



# 정답과 해설·채움 산문

I 누가	4
II 언제·어디서	13
III 무엇을	18
IV 어떻게	32
V 왜	69

# 빠른 정답 찾기

## I 누가

본문 10~25쪽

01	확인	1 (1) 주동, 반동 (2) 중심, 주변 2 (1) 회의적 (2) 우호적 (3) 비관적 3 (1) 주동 (2) 반동 4 (1) ○ (2) ○ (3) × (4) ×			
	A	1 ①	2 ④	3 ②	4 ③
	B	1 ③	2 ④	3 ④	4 ①
	C	1 ①	2 ③	3 ③	4 ②
02	확인	1 (1) ㉔ (2) ㉕ (3) ㉖ 2 (1) 설득적 (2) 단정적 3 (1) 단정적으로 (2) 우회적으로, 단정적으로 4 ③			
	A	1 ⑤	2 ①	3 ⑤	4 ② 5 ③
	B	1 ③	2 ①	3 ④	4 ①
	C	1 ④	2 ⑤	3 ①	4 ⑤

## III 무엇을

본문 38~61쪽

04	확인	1 (1) × (2) ○ (3) ○ (4) × 2 (1) 운명 (2) 인물 (3) 관습 3 ③ 4 ①			
	A	1 ①	2 ③	3 ⑤	4 ①
	B	1 ①	2 ⑤	3 ②	4 ①
	C	1 ①	2 ③	3 ①	4 ③
05	확인	1 (1) 유연성 (2) 전기성 2 (1) × (2) ○ 3 (1) ○ (2) × 4 ①			
	A	1 ③	2 ③	3 ⑤	4 ③ 5 ②
	B	1 ③	2 ③	3 ③	4 ④
	C	1 ④	2 ②	3 ③	4 ④
06	확인	1 (1) ○ (2) ○ (3) × 2 (1) × (2) ○ 3 ① 4 ③			
	A	1 ②	2 ④	3 ①	4 ① 5 ⑤
	B	1 ①	2 ⑤	3 ③	4 ⑤
	C	1 ③	2 ②	3 ②	4 ④

## II 언제·어디서

본문 28~35쪽

03	확인	1 (1) 공간적 (2) 시간적 (3) 사회적 2 (1) ○ (2) × (3) × (4) ○ 3 ③ 4 ②			
	A	1 ②	2 ⑤	3 ③	4 ④
	B	1 ④	2 ③	3 ③	4 ⑤
	C	1 ⑤	2 ②	3 ③	4 ① 5 ②

## IV 어떻게

본문 66~129쪽

07	확인	1 (1) ○ (2) × (3) ○ 2 ① 3 ③ 4 ③			
	A	1 ②	2 ②	3 ⑤	4 ②
	B	1 ③	2 ⑤	3 ⑤	4 ④
	C	1 ③	2 ④	3 ②	4 ④
08	확인	1 (1) × (2) ○ (3) ○ 2 ③ 3 ③ 4 ①			
	A	1 ③	2 ⑤	3 ①	4 ②
	B	1 ③	2 ①	3 ③	4 ⑤
	C	1 ⑤	2 ④	3 ②	4 ③

9	확인	1 ②    2 (1) × (2) ○    3 ②    4 (1) ○ (2) ×    5 (1) 당황하는 (2) 극대화
	A	1 ②    2 ④    3 ①    4 ①
	B	1 ①    2 ③    3 ⑤    4 ⑤
	C	1 ④    2 ②
10	확인	1 (1) 순 (2) 역 (3) 순 (4) 역    2 ①    3 ③ 4 (1) ○ (2) ×    5 ②
	A	1 ⑤    2 ②    3 ①    4 ⑤
	B	1 ①    2 ③    3 ④
	C	1 ③    2 ②    3 ③    4 ④    5 ④
11	확인	1 (1) 일대기 (2) 여행 (3) 행적    2 ③    3 ③ 4 (1) ○ (2) ×
	A	1 ④    2 ②    3 ②    4 ④
	B	1 ⑤    2 ①    3 ①    4 ④
	C	1 ①    2 ③    3 ②
12	확인	1 ㄴ, ㄷ    2 (1) ○ (2) × (3) ○ (4) ×    3 ③ 4 ①    5 (1) ○ (2) ×
	A	1 ⑤    2 ②    3 ②    4 ⑤    5 ⑤
	B	1 ③    2 ④    3 ②    4 ④
	C	1 ⑤    2 ②    3 ②
13	확인	1 (1) ○ (2) ○ (3) × (4) ×    2 ㄴ, ㄷ 3 (1) ○ (2) × (3) ○    4 ②    5 (1) 비웃음 (2) 동음이의어
	A	1 ⑤    2 ④    3 ①    4 ⑤
	B	1 ①    2 ⑤    3 ②    4 ④
	C	1 ④    2 ⑤    3 ②    4 ②    5 ①
14	확인	1 (1) ○ (2) × (3) ○    2 ①    3 ② 4 (1) 간결체 (2) 만연체    5 ②
	A	1 ④    2 ⑤    3 ③    4 ③
	B	1 ⑤    2 ②    3 ①    4 ①    5 ①
	C	1 ②    2 ③

15	확인	1 (1) ○ (2) × (3) ×    2 ①    3 ②
	A	1 ②    2 ⑤    3 ④    4 ①    5 ②
	B	1 ②    2 ④    3 ②    4 ③
	C	1 ③    2 ②    3 ④    4 ①
16	확인	1 (1) 처참 (2) 교 씨, 사 씨    2 ②    3 (1) ○ (2) ○ (3) ○
	A	1 ⑤    2 ②    3 ③    4 ①
	B	1 ④    2 ③    3 ④    4 ⑤
	C	1 ③    2 ②
17	확인	1 ③    2 ①    3 (1) ○ (2) × (3) ○
	A	1 ⑤    2 ④    3 ⑤    4 ③
	B	1 ⑤    2 ⑤    3 ②    4 ③
	C	1 ③    2 ⑤    3 ④
18	확인	1 ①    2 ③    3 (1) ○ (2) ○ (3) ○
	A	1 ②    2 ④    3 ①    4 ⑤
	B	1 ②    2 ⑤    3 ①    4 ④
	C	1 ⑤    2 ①    3 ④    4 ②    5 ③

**확인 1 답** (1) 주동, 반동 (2) 중심, 주변

**이래서 정답**

- (1) 작품의 주인공으로,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인물은 주동 인물이고, 주인공에 맞서 대립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은 반동 인물이다.
- (2) 주인공이나 그에 버금가는 중심적인 인물은 중심인물이다. 그리고 중심인물 이외의 부수적인 인물로, 중심인물의 주변에서 사건의 진행을 돕는 인물은 주변 인물이다.

**확인 2 답** (1) 회의적 (2) 우호적 (3) 비관적

**이래서 정답**

- (1) 대상에 대해 의심을 품으며 믿지 않는 태도는 회의적 태도이다.
- (2) 어떤 대상에 대해 좋게 평가하거나 상황을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는 우호적 태도이다.
- (3) 인생을 어둡게만 보아 슬퍼하거나 절망스럽게 여기며 앞으로로도 잘 안될 것이라고 여기는 태도는 비관적 태도이다.

**확인 3 답** (1) 주동 (2) 반동

**이래서 정답**

- (1) 최순천, 한위건은 조선 독립을 위해 싸우는 인물이므로 주동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 (2) 손규철은 조선 독립을 위해 싸우는 천도교, 기독교, 학생 대표들을 헌병대에 데려가고자 한다는 점에서 친일 세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손규철은 반동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확인 4 답** (1) ○ (2) ○ (3) × (4) ×

**이래서 정답**

- (1) 상은 중심인물인 경업의 주변에서 사건의 진행을 돕는 인물로, 주변 인물에 해당한다.
- (2) 주인공인 경업은 주동 인물이며, 경업을 해치려 하는 자점은 반동 인물이다.
- (3) 자점은 경업을 해치려고 하였으므로, 경업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4) 자점의 말을 들은 경업과 상은 모두 분노하고 있으므로, 답답한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없다.

노새 두 마리

누가	노새 마차로 연탄 배달을 하는 아버지와 '나'
언제 어디서	• 1970년대 겨울 • 도시 변두리 동네
무엇을	• 연탄 배달을 하던 중 도망간 노새를 아버지와 '나'가 찾아다니는 사건 •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아버지를 상징하는 노새
어떻게	1인칭 관찰자 시점, 역순행적 구성(회상)
왜	시대 변화에서 소외된 도시 이주민의 가난하고 고달픈 삶을 서술함.

**1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무엇을** 이 글은 '노새'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고된 삶을 드러내고 있다.

**왜 오답**

- ② **어떻게** 풍자적 기법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지도 않다.
- ③ **어떻게** 이 글은 어린 '나'의 시선으로 바라본 아버지의 삶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며, 시점이 전환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④ **무엇을**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나'가 아버지를 찾아 나서고 있다. 따라서 사건의 반전을 통해 갈등이 해소된다고 할 수 없다.
- ⑤ **어떻게** '언젠가 남편이 택시 운전사인 ~ 했다는 말이 생겼다.'에서 '나'가 과거의 일을 떠올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 이동하지는 않는다.

**문해 공식 적용** 소재

노새 — • 현실에 뒤처진 구시대적인 삶의 수단  
•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아버지를 담은 존재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힘겨운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 줌.

**2 답 ④**

**이래서 정답**

- ④ **무엇을** '사건'은 노새가 달아나 버린 일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는 내일부터 당장 별이를 나갈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왜 오답**

- ① **무엇을** 노새가 도망간 일로 '나'가 노새를 가엽게 여기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무엇을** 남편이 택시 운전사인 칠수 어머니는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러야지 지금이 어느 땐데 노새를 부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노새가 달아난 일로 집 밖으로 나간 아버지가 이 말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는 없다.
- ③ **무엇을** ‘나’의 가족은 노새를 잃어버리기 전부터 이미 도시 변두리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다.
- ⑤ **무엇을** 아버지는 노새 마차를 몰면서 연탄 배달을 하였다. 그러므로 노새가 도망간 일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가 노새를 끄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 3 답 ②

#### ◎이래서 정답

- ② **누가** 노새를 찾으러 나갔다가 늦게 돌아온 아버지를 보고 가족들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노새를 찾지 못한 상황과 아버지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이를 아버지의 무능력함에 실망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왜 오답

- ① **누가** 밤 열 시가 넘은 늦은 시간까지 아버지가 노새를 찾느라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에서 아버지의 절박한 심정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누가** 노새가 없어졌으니 앞으로 노새가 하던 역할까지 자신이 맡아서 하겠다는 말에서, 아버지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누가** 노새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가게의 물건들을 박살 낸 일로 아버지가 경찰서에 불러 가게 된 것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심리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누가** 힘들고 지친 아버지를 ‘또 한 마리의 노새’라고 하는 것에서 ‘나’가 아버지를 노새와 같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 4 답 ③

#### | 보기 | 오래 보기

1970년대에는 급속한 경제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근대적 산업 체계가 확립되고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 **언제·어디서**

#### ◎이래서 정답

- ③ **언제·어디서** 노새를 찾던 아버지가 통행금지 시간이 거의 되어 빈 몸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늦게까지 헤매었으나 노새를 찾지 못했음을 드러낼 뿐, 이를 통해 도시화 결과로 발생한 빈부 격차는 확인할 수 없다.

#### ⊕왜 오답

- ① **언제·어디서** ‘우리 같은 노새는 ~ 뽕뽕거리는 대저에서는 발붙이기 어려운 것인가’를 통해 비행기, 헬리콥터, 자동차는 경제 개발에 따라 확립된 근대적 산업 체계에 부합

하는 삶의 모습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누가, 언제·어디서**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러야” 하는 시대에 도시 변두리에서 노새 마차를 몰며 연탄 배달 일을 하는 아버지는 도시의 삶으로부터 소외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 ④ **누가, 언제·어디서** 노새가 없어서 당장 연탄 배달 일을 할 수 없게 된 아버지의 상황은 ‘나’의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처지라는 점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⑤ **언제·어디서** 노새가 난동을 부려 사람을 다치게 하고 가게 물건들을 박살 내자, 순경은 법으로 아버지를 잡아넣어야겠다고 하였다. 이는 도시의 삶에서 소외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의 가족에게 더한 고통을 주는 사회적 외면이라고 볼 수 있다.

#### ⊕ 어휘

- **풍자적**: 남의 결점을 다른 것에 빗대어 비웃으면서 폭로하고 공격하는 성격을 띤.
- **희화화**: 어떤 인물의 외모나 성격, 또는 사건이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되거나 풍자됨. 또는 그렇게 만들.
- **벌야**: 일을 하여 돈이나 재물을 벌.
- **절박한**: 어떤 일이나 때가 가까이 닥쳐서 몹시 급한.

숙영낭자전

누가	지혜롭고 절개가 굳은 숙영, 숙영을 사랑하는 남편 선군, 가부장적 가치관을 지닌 선군의 아버지 백상군
언제 어디서	• 조선 전기 • 안동
무엇을	• 숙영의 정절을 의심한 백상군과 결백을 주장하는 숙영의 갈등, 숙영이 적강한 선녀라는 점과 옥황상제에 의한 숙영의 재생 등에서 드러나는 사건의 전기성 • 「우령 각시 설화」, 「아랑 설화」를 모티브로 활용함.
어떻게	전지적 작가 시점, 순행적 구성
왜	현실을 초월한 절대적 애정의 승리를 서술함.

1 답 ③

① 이래서 정답

- ③ **누가** 선군과 숙영은 사사로이 혼인하여 팔 년 동안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 선군은 숙영의 당부를 듣고 과거에 응시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숙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집을 떠난 후에도 숙영을 잊지 못하고 밤중에 숙영을 두 번이나 찾아온다. 이로 볼 때 숙영이 자신에 대한 선군의 믿음을 의심한다고 볼 근거는 찾을 수 없다.

② 왜 오답

- ① **누가** “급제하게 된다면 조상을 빛내고 부모도 영화롭지 않겠느냐?”라는 백상군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누가** “아버님, 불효한 자식 굶어살피소서. ~ 제가 과거에 응시하고자 집을 나선다면 낭자와는 이별하게 될 것이온즉 사정이 절박하옵습니다.”라는 선군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누가** ‘부모에게 들던 말보다도 낭자에게 들으니 선군의 급제는 스스로 더욱 절실하게 생각되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누가** 숙영은 밤에 선군이 집에 돌아왔던 일을 근거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2 답 ④

① 이래서 정답

- ④ **누가** [A]에서 선군은 과거를 통한 입신출세보다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부부간의 애정이 더 소중하다는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과거에 응시하려면 숙영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밝히며 아버지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

② 왜 오답

- ① **누가** 선군은 자신의 심정을 솔직히 말하고 있으므로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② **누가** 선군은 아버지인 백상군의 권유를 우회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직접적으로 거절하고 있다.  
 ③ **누가** 선군은 자신의 가치관과 처지를 내세워 아버지인 백상군의 이해를 구하려 하고 있다.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누가** 선군은 백상군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아버님, 불효한 자식 굶어살피소서.”라며 거절의 뜻을 분명히 표시하고 있다.

3 답 ④

① 이래서 정답

- ④ **무엇을** 숙영은 육례를 치르지 않고 선군과 사사로이 혼인하였다. 그러나 이 때문에 숙영이 백공의 오해를 받은 것은 아니다. 백공이 숙영의 정절을 의심한 것은 숙영의 방에 있던 선군을 외간 남자로 오해하였기 때문이다.

② 왜 오답

- ① **무엇을** 백공은 숙영의 정절을 의심하여 매질을 하며 숙영을 추궁하고 있다.  
 ② **무엇을** ‘부모에게 들던 말보다도 낭자에게 들으니 선군의 급제는 스스로 더욱 절실하게 생각되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누가** “대장부가 세상에 나면 출세하여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것이 자식 된 도리입니다.”라는 숙영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누가** 숙영은 선군이 길을 떠났다가 자신을 찾아 밤에 집으로 두 번 돌아왔다고 하였다. 그러나 백공은 이를 믿지 않고 노하여 비복에게 더욱 심한 매질을 가하도록 하였다.

문해 공식 적용 외적 갈등

백상군(백공)	↔	숙영
숙영의 정절을 의심하여 매질함.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함.

4 답 ①

① 이래서 정답

- ① **누가** 선군에게 과거에 응시할 차림과 여정의 행장을 갖추어 준 숙영은 [B]에서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올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러한 심리에 어울리는 말은 ‘비단웃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으로, 출세를 하여 고향에 돌아가거나 돌아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금의환향’이다.

② 왜 오답

- ② **누가** ‘백척간두’는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을 이르는 말’이므로



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누가** '부화뇌동'은 '쫄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을 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누가** '수구초심'은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누가** '전화위복'은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을 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어휘**

- **응사**: 시험에 응함.
- **입신출세**: 성공하여 세상에 이름을 떨침.
- **구차**: 말이나 행동이 떳떳하거나 버젓하지 못함.
- **외간**: 친척이 아닌 남.

**흥부전**

누가	착하고 정직하며 우애가 있는 동생 흥부, 욕심 많고 인색하며 심술궂은 형 놀부
언제 어디서	• 조선 후기 •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삼도의 접경 어느 마을
무엇을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놀부가 흥부를 박대하며 벌어지는 형제 간의 갈등 • 제비가 물었다 준 박씨
어떻게	전지적 작가 시점, 장면의 극대화, 해학, 희화화, 비유적 표현
왜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 빈부의 격차에 따른 계층 갈등을 서술함.

**1 답 ①**

**㉠ 이래서 정답**

- ① **어떻게** 이 글은 흥부 부부가 박을 타는 반복적인 행위와 그 결과로 박에서 나온 것들을 나열하여 흥부 가족이 부자가 되는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왜 오답**

- ② **어떻게**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외부에서 인물의 행동과 심리,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무엇을** 제비가 은혜를 갚고, 며칠만에 열린 박에서 재물이 쏟아지는 등 전기적인 요소가 활용되고는 있으나, 이를 통해 흥부의 영웅성이 부각되지는 않는다.
- ④ **무엇을** 제비 왕이라는 권위 있는 인물이 등장하지만 제비 왕이 인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있지는 않다.
- ⑤ **어떻게** 꿈속의 장면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꿈과 현실을 교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답 ③**

**㉠ 이래서 정답**

- ③ **누가** 제비가 흥부 앞에 박씨를 떨어뜨리기 전까지 흥부는 제비가 무엇을 물고 왔는지 알지 못했다. 따라서 흥부가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온 사실을 알아채고 제비를 만졌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왜 오답**

- ① **무엇을** 흥부 부부는 '방아 찧기 ~ 이 집 저 집 돌아가며 이 영 엮기 등' 온갖 품을 다 팔았다. 이로 볼 때 흥부 부부가 먹고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 ② **무엇을** 박에서 나온 일등 묵수들이 명당을 가려 터를 잡고 집을 지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④ **무엇을**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제비가 제비 왕에게 흥부가 다리를 고쳐 준 일을 고했음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 제비 허공 중천에 높이 떠서 박씨를 입에 물고 ~ '보은박'이란 글 석 자가 쓰인 박씨였다.'로 보아, 제비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보은박'을 몰고 홍부에게 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 ⑤ **무엇을** 놀부는 홍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놈이 도둑질을 했나?”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놀부는 홍부의 집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홍부가 부자가 된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3 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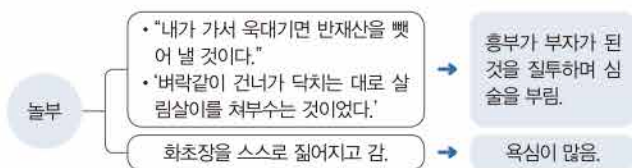
#### ○ 이래서 정답

- ③ **누가** 놀부는 홍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홍부의 집을 찾아가 살림살이를 부수고 소란을 피운다. 즉 놀부는 홍부가 부자가 된 것을 질투하여 심술을 부리고 있으므로, ‘남이 잘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는 않고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 ⊕ 왜 오답

- ① **누가**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는 ‘남의 재앙을 점점 더 커지도록 만들거나 성난 사람을 더욱 성나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누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떠다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누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면 지조 없이 이편에 붙었다 저편에 붙었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누가**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는 ‘자기의 능력 밖의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문제 공식 적용 인물의 심리·태도



### 4 답 ②

#### | 보기 | 오려 보기

조선 후기에는 잦은 자연재해와 관리들의 횡포 때문에 백성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창작된 「홍부전」은 ...

언제·어디서

#### ○ 이래서 정답

- ② **언제·어디서** 놀부가 재물이 나오는 화초장을 직접 짊어지고 간 것은 자신의 집으로 화초장을 빨리 옮기고 싶은 욕심

때문이다. 이를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백성들의 노력으로 볼 수는 없다.

#### ⊕ 왜 오답

- ① **언제·어디서** 온갖 품을 다 팔아도 살기는 막연했던 홍부 부부의 모습은, 백성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조선 후기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 ③ **언제·어디서** 홍부는 제비 왕이 전해 준 박씨를 심어 큰 부자가 되었다. 이를 통해 홍부가 초월적 존재인 제비 왕의 도움으로 가난을 벗어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언제·어디서** 홍부가 박을 타자 박 속에서 온갖 세간불이와 각종 곡식이 나왔다. 이는 의식주와 관련된 물품으로, 최소한의 의식주라도 해결하고 싶었던 당시 백성들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언제·어디서** 홍부가 심은 박씨가 자라 사오일 만에 박이 열리고, 박 속에서 순금 껍이 나오는 것에서, 홍부가 받은 보상의 환상성을 확인할 수 있다.

#### ⊕ 여휘

- **타는**: 박 따위를 톱 같은 기구를 써서 밀었다 당겼다 하여 갈라지게 하는.
- **지조**: 원칙과 신념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 나가는 깨끗한 의지. 또는 그런 기개.
- **막연했던**: 길피를 잡을 수 없게 아득했던.



## 누가 02 인물의 말하기 방식

확인 1 답 (1) ㉠ (2) ㉡ (3) ㉢

### 이래서 정답

- 논리적인 근거보다는 정서에 기대어 말하는 방식을 감정에 호소하는 말하기라고 한다.
-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에 기대어 말하는 방식을 권위에 기대는 말하기라고 한다.
- 일을 피할 때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합당한 구실과 이유 등에 근거를 두고 말하는 방식을 명분에 입각하여 말하기라고 한다.

확인 2 답 (1) 설득적 (2) 단정적

### 이래서 정답

- 상대가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따르게 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이해시키는 말하기 방식을 설득적 말하기라고 한다.
- 둘러 말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단호하게 결정하여 말하는 방식을 단정적 말하기라고 한다.

확인 3 답 (1) 단정적으로 (2) 우회적으로, 단정적으로

### 이래서 정답

- 점순이와 성례를 시켜 달라는 '나'의 말에 장인은 점순이가 자라야 한다면, 성례를 시킬 수 없다는 뜻을 단정적으로 밝히고 있다.
- ㉡, ㉢에서 점순이는 '나'에게 성례시켜 달라고 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에서는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라고 우회적으로, ㉢에서는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떡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확인 4 답 ③

### 이래서 정답

- 까투리는 『자치통감』이라는 고서의 구절을 인용하여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 밋에 치여 죽게 된 장끼의 행동을 문제 삼고 있다.

### 왜 오답

- "애고 답답하고 불쌍하다."와 같이 감정을 토로하고는 있으나 감정에 호소하며 장끼를 설득하고 있지는 않다.
- 요약적 진술을 찾아볼 수 없으며, 행동의 이유를 밝히고 있지도 않다.

실전 02-A

본문 20~21

### 전우치전

누가	천상에서 적강한 인물로 도술이 뛰어난 전우치
언제 어디서	조선 시대 때
무엇을	• 전우치가 신비한 능력을 얻은 후 도술을 이용하여 임금을 희롱하고,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건, 전우치가 선관이 되어 나타나는 장면의 전기성 • 적강 모티프, 도술 모티프
어떻게	전지적 작가 시점, 서술자의 개입, 요약적 제시
왜	전우치의 기이한 행적을 서술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지배층에 대해 비판함.

1 답 ⑤

### 이래서 정답

- 어떻게 꿈속의 장면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꿈과 현실을 교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왜 오답

- 어떻게 '상이 놀라서', '상이 신기히 여기시며', '상이 기꺼워하시' 등과 같이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
- 언제-어디서 '이때가 춘정월 초이틀이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무엇을 '하루는 몸을 변하여 선관이 되어 ~ 안개를 의지하여 바로 대궐 위에 이르러 공중 위에 머물러 섰으니', '우치가 쌍둥제학을 타고 내려와 ~ 오색 채운이 각각 동서로 흩어지거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어떻게 상이 금을 모아 황금 들보를 만드는 과정, 우치가 상으로부터 황금 들보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 답 ①

### 이래서 정답

- 누가 전우치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하자 왕은 '이놈을 죽이면 원혼이 되어 괴로움이 있으리라.'라고 생각하여 그림을 그리도록 허락한다. 그러나 "너는 방금 죽일 놈이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전우치를 죽이려는 의도를 바꾸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왜 오답

- 무엇을 전우치가 "국왕은 옥황의 칙지를 받으라."라고 말한 것은 왕을 속이기 위한 것일 뿐, 실제로 옥황상제의 의견을 왕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다.
- 무엇을 왕은 처음 선관이 등장할 때에는 놀랐고, 이후 황금 들보를 준비한 뒤에는 선관을 기다렸다. 따라서 왕이 선관이 등장할 것을 미리 알고 기다린 것은 한 번뿐이다.



- ④ **무엇을** 전우치는 황금 들보를 왕에게 되판 것이 아니라, 서공 지방으로 가져가서 팔아 백성을 구제하였다.
- ⑤ **누가** 왕이 황금 들보를 만들기 위해 팔도에 금을 모아 바치라 하자, 팔도에서 비녀에 올린 금까지 벗겨 올렸다고 하였다. 그러자 왕이 기꺼워한 것으로 보아, 왕이 이러한 현실에 안타까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답 ⑤

| 보기 | 오래 보기

「전우치전」에는 도술 모티프가 자주 등장하는데, ... 도술이라는 환상적 장치를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무엇을**

#### ㉠ 이래서 정답

- ⑤ **무엇을** 전우치는 역모를 꾀했다는 모함을 받고 죽을 위기에 처하였다. 이때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청한 뒤, 자신이 그린 그림 속으로 들어가 위기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도술을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소재는 ㉠이다.

#### ㉡ 왜 오답

- ① **무엇을** 쌍봉금관(㉡)은 전우치가 선관으로 변신했을 때 머리에 쓴 것으로, 전우치의 모습에 신비로움을 더하는 소재이다.
- ② **무엇을** 태화궁(㉢)은 선관으로 변한 전우치가 왕에게 옥황상제가 창건할 것이라고 말한 궁전이다.
- ③ **무엇을** 황금 들보(㉣)는 선관으로 변한 전우치가 왕에게 바칠 것을 요구한 물건이다.
- ④ **무엇을** 순풍(㉤)은 황금 들보를 팔아서 산 쌀 십만 석을 배에 싣고 돌아올 때, 불어온 바람이다.

### 4 답 ②

#### ㉠ 이래서 정답

- ② **누가** [A]에서 전우치는 옥황상제의 권위에 기대어 왕에게 황금 들보를 만들어 바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B]에서 전우치는 죽기 전에 원을 풀게 해 달라고 하면서 왕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켜 자신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촉구하고 있다.

#### ㉡ 왜 오답

- ① **누가** '득의양양'은 '뜻한 바를 이루어 우쭐거리며 뽐냄.'을 뜻하는데, [A]에서 선관으로 변한 전우치의 모습이 당당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뽐내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B]에는 왕의 동정심에 기대어 요구를 들어줄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자포자기한 심리가 드러난다고 할 수 없다.
- ③ **누가** [B]에서 전우치는 왕에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태도가 느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에서 전우치는 왕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 ④ **누가** [B]에서 전우치가 자신이 죽게 되었으므로 마지막 원을 풀 수 있게 해 달라고 한 것은, 현재 상황의 불가피성을 들어 왕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A]는 현재 상황의 불가피성을 들어 왕의 동의를 구하고 있지 않다.
- ⑤ **누가** [A]와 [B]에서 전우치가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려 하는 것은 맞지만, 왕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다.

#### 문해 공식 적용 인물의 말하기 방식

	대화 상황, 목적	종결 어미	말하기 방식
[A]	선관으로 변신한 전우치가 왕에게 옥황상제의 궁전을 만들 때 필요한 황금 들보를 바치라고 함.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라' 사용	→ 권위에 기대어 행동 변화 촉구
[B]	죽을 위기에 처한 전우치가 원혼이 되지 않도록 그림을 그리게 해 달라고 함.	정중한 부탁이나 기원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소서' 사용	→ 왕의 동정심에 기대어 행동 변화 촉구

### 5 답 ③

#### ㉠ 이래서 정답

- ③ **누가** ㉠에서 왕은 전우치가 눈앞에서 그림 속으로 사라지자 크게 놀라며 "이를 어찌하리오."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어울리는 말은 '멍하니 정신을 잃음.'을 뜻하는 '망연자실'이다.

#### ㉡ 왜 오답

- ① **누가** '각골난망'은 '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히지 아니함.'을 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누가** '경거망동'은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함. 또는 그런 행동'을 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누가** '오매불망'은 '자나 깨나 잊지 못함.'을 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누가** '전전반측'은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을 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 어휘

- **기꺼워하다**: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다.
- **창간**: 건물이나 조직체 따위를 처음으로 세우거나 만들.
- **관철**: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 목적을 기어이 이룸.
- **경솔**: 말이나 행동이 조심성 없이 가벼움.

산허구리

누가	어촌에서 살아가는 가족(노어부, 처, 복실, 석이)
언제 어디서	• 일제 강점기의 늦은 가을 • 서해안의 작은 포구
무엇을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복조가 죽어서 돌아오는 사건
어떻게	순행적 구성, 현재형 진술
왜	어촌 사람들의 비극적 삶을 서술함.

1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무엇을** 이 글에서는 복실과 '처', 석이의 대화를 통해 이 세 사람이 고기잡이를 하며 살아가는 가족이며, 배를 타고 나간 복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이 상세화되고 있다.

왜 오답

- ① **어떻게**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② **언제 어디서** 이 글에서는 '처'의 행위가 초점화되고 있으나, 공간의 이동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무엇을** '처'의 말에 복실과 석이가 반발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이들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으므로 갈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된다고 할 수 없다.  
 ⑤ **언제 어디서** "오래잖아 닭 울 텐데"라는 '처'의 말을 통해 시간적 배경이 새벽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적 의미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누가** '처'는 "그날이 오늘이야.", "벌써 물귀신 다 났을 거야. ~ 바지저고리만 어느 바위틈에 켜를 거다."와 같이 복조가 죽었을 것이라는 불길한 말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석이는 "정말 작은성이 그렇게 됐다면 그래 좋겠어요?"라며 반발하고 있다.

왜 오답

- ② **무엇을** 복실은 어머니인 '처'를 대신하여 죽을 수겠다고 하였을 뿐, 복실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③ **누가** "느 아버지 상어 이빨에 윈다리 몽땅 끊어지든 날도."라는 '처'의 말을 통해 아버지가 불구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아버지께서도 술만 잡숫고 밤낮으로 트집만 잡으시는데"라는 복실의 말을 고려할 때 아버지가 식구들을 박대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버지가 불구가 된 몸을 비판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식구들을 박대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 ④ **누가** 분이 아범(큰사위)과 큰아들의 죽음을 경험한 어머니('처')는 자신의 장래가 아니라 둘째 아들 복조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있다.  
 ⑤ **무엇을** 석이의 큰형의 죽음이 확인된 날의 상황을 근거로 복조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사람은 '처'이다.

3 답 ④

이래서 정답

- ④ **누가** '처'는 복실과 석이의 말을 들은 척도 않고 큰아들의 죽음을 확인하던 날을 회상하면서 혼잣말을 하듯이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복조가 돌아오지 않는 현재에 대한 불안감과 님이 나간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왜 오답

- ① **누가** 과거의 일을 회상할 뿐, 상상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② **누가** 복실과 석이의 말을 들은 척도 않고 자신의 말만 이어 가고 있을 뿐,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③ **누가** '처'가 큰아들의 죽음을 확인하던 날의 일을 시간 차를 두고 말하는 것은 궁금증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상대방인 복실과 석이를 신경 쓰지 않음을 보여 준다.  
 ⑤ **누가** 복실과 석이의 말을 무시하고 있을 뿐, 이들의 말을 연속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문제 공식 적용 인물의 말하기 방식

'처'는 '석이와 복실의 말을 들은 척도 않고' 말하고 있음.	→	말하기 방식 혼잣말하듯이 말함.
------------------------------------	---	----------------------

4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누가** ㉠에서 '처'의 행위는 궁핍한 삶으로 인한 고뇌와 좌절이 아니라, 복조가 바다에 나가 돌아오지 않아 불안한 심리를 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왜 오답

- ② **누가** 배가 또 한 척 들어왔다는 것은 복조의 귀환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자식의 소식을 궁금해하는 어머니의 조바심이 드러나게 연기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③ **누가** '먼 마을 개 짖는 소리'는 큰아들의 죽음을 확인하던 날에 들리던 '황둥개가 짖는' 소리와 연결되며 복조가 죽었는지 모른다는 '처'의 예감과 관련되므로 적절하다.  
 ④ **누가** 조개잡이를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석이의 모습이 '개펄투성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누가** '처'는 복조가 죽었을 것이라는 불길한 말을 하고 있다. 이에 복실은 풍량이 대단치도 않다는 말로 어머니의 말을 부정하려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임경업전

누가	민족적 영웅인 임경업, 임경업을 모해하는 간신 김자점
언제 어디서	• 조선 후기(병자호란) • 조선, 호국
무엇을	• 역모를 꾀하는 김자점과 충신인 임경업의 갈등 •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실존 인물인 임경업의 생애를 소재로 삼음.
어떻게	전지적 작가 시점, 순행적 구성, 비유적 표현
왜	임경업 장군의 비극적 생애와 병자호란의 패전에 대한 정신적 승리를 서술함.

## 1 답 ④



### 이래서 정답

- ④ **무엇을** 이 글의 사건은 크게 조선을 염탐하던 호국 장졸들과 임경업이 대결하는 부분(㉠), 임경업과의 대결에서 패배한 호국의 왕과 장수들이 한양을 급습할 계교를 꾸미는 부분(㉡),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왕과 신하들이 항복을 결정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에서는 임금이 임경업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을 뿐, 임경업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의견은 확인할 수 없다.

### 왜 오답

- ① **무엇을** 임경업이 호병들을 붙잡아 호통을 친 이유는 달아난 호국 장수들이 다시 돌아와 조선을 염탐했기 때문이다.
- ② **무엇을** '경업은 머지않아 호국이 다시 침범하지 않을까 근심했는데, 조정의 신하들은 전혀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무엇을** "가만히 황해를 건너 조선을 치면 ~ 의주에서도 알지 못할 것이니, 그 사이에 한양을 급습하면"이라는 호왕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무엇을** "안에는 훌륭한 장수가 없고 밖에는 강적이 있으니 외로운 산성을 어찌 보전하며"라는 임금의 말에서 '훌륭한 장수'는 의주에 있는 임경업을 뜻한다. 임경업이 없는 상황에서 산성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임금은 신하들과 항복을 논의하고 있다.

## 2 답 ⑤

### 이래서 정답

- ⑤ **누가** [A]는 임경업이 조선을 염탐하는 호국 병사들을 붙잡아 꾸짖는 말로, 과거의 은혜를 저버린 호국의 행동을

나무라며 침략 의지를 버릴 것을 경고하고 있다. [B]는 조선을 침략한 용골대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왕과 신하들을 포위한 뒤 조롱하는 말로, 패배를 인정하고 항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A]와 [B]는 모두 자신의 주장을 강력히 드러내어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 왜 오답

- ① **누가** 상대방의 불리한 상황을 지적하며 회유하고 있는 것은 [B]이다. [A]에서 임경업은 호국 병사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을 뿐, 이들의 불리한 상황을 지적하며 회유하고 있지 않다.
- ② **누가** [B]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고 살려 하느냐?"라는 용골대의 말은 속마음을 감추고 사실을 확인하려는 질문이 아니라,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음을 지적하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누가** [A]에서 임경업은 과거 자신이 호국을 지켜 주었으며 다시 침략하려 한다면 다 죽이겠다고 경고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B]에서 용골대가 상대방의 행동을 과대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 ④ **누가** [A]에서 임경업이 호병들에게 요구한 침략 의지를 버릴 것과, [B]에서 용골대가 요구한 항복은 모두 상대방이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상대방을 시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문제 공식 적용 인물의 말하기 방식

	대화 상황, 목적	종결 어미	말하기 방식
[A]	임경업이 달아난 호국 장수들이 조선을 염탐한 일을 두고 꾸짖음.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라' 사용	→ 상대의 행동 변화 촉구
[B]	용골대가 남한산성을 지키고 있는 조선의 임금에게 항복을 요구함.		

## 3 답 ①

### 이래서 정답

- ① **누가** 호국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 양식마저 다 떨어진 남한산성 내부의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인 '사면초가'이다.

### 왜 오답

- ② **누가** '수구초심'은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누가** '오월동주'는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누가** '이심전심'은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을 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누가** '호가호위'는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을 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4 답 ⑤

| 보기 | 오래 보기

임경업은 인조 때 중국에까지 이름이 알려진 장수로서 의주에 주둔하며 청의 주요한 공격로를 수비하였다. ... 「임경업전」은 이러한 임경업의 생애를 바탕으로 작절된 영웅에 대한 안타까움과 지배 계층에 대한 분노, 청나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자부심 등을 드러낸 작품이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 이래서 정답

- ⑤ **언제 어디서, 왜** 이 글에서 임경업의 능력이 호국과 조선에서 상반된 평가를 받는다고 볼 수 없다. 호국에서는 임경업을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고 싶은 존재로, 조선에서는 임경업을 호국이 침입한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로 평가하고 있다. 즉 조선과 호국에서는 모두 임경업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있다.

#### 왜 오답

- ① **무엇을** <보기>에서 「임경업전」은 임경업의 생애를 바탕으로 하였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② **왜** 호국 장수가 병사 7천 명과 함께 조선으로 와 항복을 요구하자, 임경업은 급히 출전하여 적진을 쑥대밭으로 만든 뒤 승전고를 울린다. 이는 <보기>에 언급된, 청나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드러낸 것에 해당한다.
- ③ **왜** 용골대가 황해를 건너 침입하였기 때문에 의주에 있던 임경업은 용골대와 싸우지 못하였다. 이는 <보기>에서 「임경업전」이 작절된 영웅에 대한 안타까움을 다루고 있다고 한 것에 해당한다.
- ④ **무엇을, 왜** <보기>에서 김자점은 강력한 실권자였으며, 임경업을 죽인 인물이라고 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달리 방법도 없이 성문 밖에 진을 치고 방어만 하는 무기력한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를 통해 지배 계층에 대한 분노가 드러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어휘

- **급습** 갑자기 공격함. 또는 그런 공격.
- **계교** 요리조리 헤아려 보고 생각해 낸 꾀.
- **회유** 어루만지고 잘 달래어 시키는 말을 듣도록 함.
- **쑥대밭** 매우 어지럽거나 못 쓰게 된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언제 어디서

03

## 배경의 종류와 역할

**확인 1 답** (1) 공간적 (2) 시간적 (3) 사회적

#### 이래서 정답

- (1)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를 공간적 배경이라고 한다.
- (2) 인물의 행동이 일어나는 시간을 시간적 배경이라고 한다.
- (3) 인물을 둘러싼 사회 현실과 역사적 상황을 사회적 배경이라고 한다.

**확인 2 답** (1) ○ (2) × (3) × (4) ○

#### 이래서 정답

- (1) 배경은 작품 전체를 상징하는 의미나 주제를 형상화하는 역할을 한다.
- (2) 배경은 사건의 전개를 암시하는 역할을 하지만, 사건의 인과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지는 않는다.
- (3) 배경은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는 역할을 하지만, 중심인물의 심리를 주변 인물에게 투영하여 나타내지는 않는다.
- (4) 배경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에 현실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확인 3 답** ③

#### 이래서 정답

- ③ ㉠을 통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겨울 날씨임을 알 수 있으나, 작품의 사회적 배경은 확인할 수 없다.

#### 왜 오답

- ① 아내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의 분위기를 암시한다.
- ② 작품 전체의 우울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확인 4 답** ②

#### 이래서 정답

- ② '적진'은 평국이 적군을 물리친 공간이지만, 천자가 평국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곳은 아니다.

#### 왜 오답

- ① '여복을 갈아입고 규중에 몸을 숨어 세월을 보냄이 옳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평국은 적진에 나가 십만 대병을 소멸할 정도로 뛰어난 능력이 있지만, 여성임이 밝혀지게 되자 규중에 몸을 숨어 세월을 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성은 공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웠던 사회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II

언제 어디서



땡별

누가	가난하게 살아가는 덕순 부부
언제 어디서	• 1930년대 • 농촌, 서울
무엇을	덕순이 월급을 받으며 아내의 병을 고치고자 대학 병원을 찾았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건
어떻게	전지적 작가 시점, 순행적 구성, 방언, 비속어
왜	가난으로 인한 비극과 부부간의 애정을 서술함.

1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어떻게** 이 글은 덕순의 심리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왜 오답

- ① **어떻게**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시점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어떻게** 서술자가 등장인물들의 행동에 담긴 심리까지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어떻게** 이 글은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가 들어 있는 액자식 구성이 아니다.
- ⑤ **어떻게**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을 뿐, 과거와 현재가 반복적으로 교차되고 있지 않다.

2 답 ⑤

이래서 정답

- ⑤ **누가** [A]에서 간호사는 현재 덕순의 아내의 배 속에서 아기가 나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문제 상황과, 그대로 두면 일주일도 못 가 죽을 수도 있다는 예상 결과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덕순이 승낙한다면 수술을 하겠다며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하고 있다.

왜 오답

- ① **누가** 간호사는 덕순의 행위를 질책하거나 원망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② **누가** 간호사는 덕순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거리낌 없는 어조로 말하고 있다.
- ③ **누가** 간호사가 덕순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자신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④ **누가** 간호사는 덕순의 관심을 돌리려 하고 있지 않다.

3 답 ③

이래서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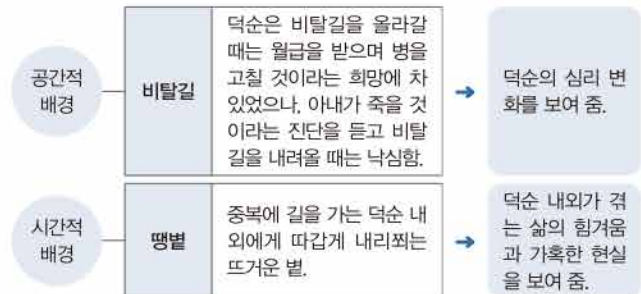
- ③ **누가** 덕순은 얼음냉수와 왜떡으로 죽음을 앞둔 아내의 슬

픔을 위로하고 있다. 그러나 덕순은 이것이 아내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므로, ㉠에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드러나지 않는다.

왜 오답

- ① **언제-어디서** 덕순은 대학 병원에 가는 길에는 아내의 병을 고치고 팔자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에 차 있었으나, 아내가 죽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나서 돌아갈 때에는 낙심하여 힘 풀린 걸음으로 터덜터덜 내려오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에서는 상황에 대한 덕순의 인식이 달라졌음을 길의 오르내림을 통해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② **누가** 닭을 사 먹을 수 없이 어려운 덕순의 가정 형편과, 그동안 아내에게 변변히 먹이지 못한 것에 대한 덕순의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 ④ **누가** 돈이 없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사촌 형님에게 꾸어 먹은 쌀을 갚으라며 걱정하는 것에서, 비정한 현실 속에서도 따뜻한 인간미를 잃지 않는 아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언제-어디서** 가혹한 현실 속에서 겪는 삶의 힘겨움을 '땡별'이라는 배경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문제 공식 적용 배경의 종류와 역할



4 답 ④

| 보기 | 오래 보기

... 작가는 「땡별」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보여 주기 위해 인물의 성격과 대비되는 속성을 가진 대학 병원을 배경으로 설정했다. ... 이를 통해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성과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언제-어디서, 왜

이래서 정답

- ④ **왜** 덕순이 아내의 병으로 월급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하는 장면은 덕순의 어려움과 고통을 보여 줄 뿐,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는 없다.

왜 오답

- ① **언제-어디서, 왜** 덕순의 아내가 돈이 없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게 되는 부조리한 현실을 통해, 당대 사회의 문제에 대한 비판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누가** 아내의 병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동네 어른의 말만 믿고 무작정 희망에 차 대학 병원을 찾아가는 모습에서 덕순의 어리숙함을 알 수 있다.
- ③ **왜** 지게 위에서 소리를 죽여 훌쩍훌쩍 울고 있는 덕순의 아내의 모습은 돈이 없어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된 비극적인 상황에 좌절하는 개인을 형상화한다고 할 수 있다.
- ⑤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순박한 덕순 내외와, 돈을 내지 않으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학 병원의 냉정한 속성이 대비됨으로써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성과 모순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 어휘

- **질책** 꾸짖어 나무람.
- **심경** 마음의 상태.
- **팔자** 사람의 한평생의 운수.

실전 03-B

본문 32~33

최척전

누가	용맹하고 옥영에 대한 사랑이 깊은 최척, 주체적이고 강인한 의지를 지닌 옥영
언제 어디서	• 임진왜란(1592)~정유재란(1597) 전후 • 조선, 중국, 일본, 안남 등 동아시아
무엇을	• 최척과 옥영이 전쟁으로 헤어졌다 재회하는 사건, 최척 부부와 가족들의 재회에 드러난 우연성 • 실제로 있었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소재로 함.
어떻게	전지적 작가 시점, 최척과 옥영의 만남과 이별이 반복됨.
왜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를 서술함.

1 답 ④

ⓐ 이래서 정답

- ④ **언제, 어디서** '어둠이 깊어 갈 무렵 미풍이 잠깐 일며 ~ 꽃잎이 옷에 떨어져 그윽한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었다.'와 같이 어느 봄날 밤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최척의 피리 소리를 듣던 옥영이 절구를 율는 상황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 왜 오답

- ① **무엇을** 옥영이 율는 절구 한 수는 맑은 정경을 대하는 감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율는 것이다. 이 시가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이 구체화되는 상황을 드러낸다고 할 수 없다.
- ② **어떻게** '둘은 서로 마주하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 마음을 안정할 수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었다.'에 인물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나열되고 있다. 그러나 신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③ **누가** 최척과 옥영의 결혼을 친척들이 축하해 주고, 정성을 다해 가족 구성원들을 대했던 옥영에 대해 이웃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을 뿐, 옥영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어떻게** 안남에서 옥영과 재회한 최척은 전란에서 헤어진 아버지와 장모님의 안위를 묻지만 옥영은 두 분의 안위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 답 ③

ⓐ 이래서 정답

- ③ **누가** 최척이 자기 아내가 이리 시를 잘 읊는 줄 모르고 있던 터라 놀라 감탄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최척이 옥영의 시에 대한 재능을 결혼 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왜 오답

- ① **누가** 양국의 뱃사람들은 최척과 옥영이 처음에는 친척이나 잘 아는 친구인 줄로만 알았다가 뒤에 그들이 부부 사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라며 놀라워했다.

II

언제, 어디서

② **누가** 최척은 강독을 내려가 일본인 배에 이르러 어젯밤 시를 읊던 사람이 조선 사람이 아니냐고 묻는다. 그리고 자신은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라며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찌 그저 기쁘기만 한 일이겠냐고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무엇을** 시집에 온 옥영은 '시아버지를 봉양하고 ~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성의와 예의를 두루 갖추다.'라고 하였으므로 가정의 구성원들을 정성스러움으로 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척은 결혼한 후 재산이 점차 넉넉히 불었다고 하였다.

⑤ **무엇을** 혼례를 마치고 돌아온 최척과 옥영을 친척들이 축하하여 온 집안에 기쁨이 넘쳤다고 하였으므로, 친척들이 최척의 결혼을 경사로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웃 사람들은 옥영을 두고 양홍의 처나 포선의 아내도 이보다 낮지 않을 것이라고 칭찬하였다.

### 3 답 ③

#### ㉠ 아래서 정답

③ **언제-어디서** 매양 꽃 피는 아침과 달 뜬 밤(㉠)에 최척은 아내 곁에서 피리를 불곤 했으므로 ㉠은 인물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의 표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봄날 밤(㉡)은 그런 날들 중 옥영이 절구 한 수를 읊은 때이므로, ㉡은 ㉠ 중 한 시점을 특정하는 시간의 표지라고 할 수 있다.

#### ㉡ 왜 오답

① **언제-어디서** 매월 초하루(㉠)는 후사에 대한 염려로 최척 부부가 만복사에 올라 부처께 기도를 올리는 날이므로 인물의 심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시간의 표지로 볼 수 없다. 이후 그달(㉡)에 옥영이 아이를 잉태함으로써 후사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므로 ㉡은 ㉠에서 발생한 갈등이 심화되는 시간의 표지로 볼 수 없다.

② **언제-어디서** ㉡에 아이를 잉태한 옥영은 후사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났고, ㉠에 최척은 옥영이 읊은 시를 듣고 놀라 감탄했다. 따라서 ㉡과 ㉠은 과거의 행위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변화되는 것과 관계가 없다.

④ **언제-어디서** 정월 초하루(㉠)는 최척 부부가 만복사에 올라 부처께 기도를 올렸던 ㉠ 중 하루에 해당하므로, ㉠에서부터 이어진 행위를 알려 주는 시간의 표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은 최척이 옥영이 읊은 시에 감탄한 날이므로 ㉠에 행해지던 행위가 완결된 순간을 지시하는 시간의 표지로 볼 수 없다.

⑤ **언제-어디서** ㉠에 행해지던 최척 부부의 행위가 ㉡을 거쳐 ㉡에 이르러 그 결실을 보아 자식을 얻었으므로, ㉠과 ㉡은 인물의 소망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에 포함되는 시간의

표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은 최척이 옥영이 읊은 시에 감탄한 날이므로 인물의 소망이 좌절된 시간의 표지로 볼 수 없다.

### 4 답 ⑤

#### | 보기 | 오래 보기

... 공간적 배경을 확장하여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등의 서사적 장치들이 확인된다. ...

언제-어디서

#### ㉠ 아래서 정답

⑤ **누가** 안남에서 재회한 최척과 옥영은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았으며,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리기까지 하였다. 이는 재회의 기쁨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으로, 또 다른 문제 확인에 따른 인물의 불안감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 왜 오답

① **무엇을** 후사를 걱정하던 옥영의 꿈에 나타난 장육금불이 자신은 만복사의 부처라며 사내아이를 점지한 후, 최척과 옥영 부부는 아들을 낳게 되었다. 그러므로 만복사의 부처는 옥영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신이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② **무엇을** 옥영의 꿈에 나타난 장육금불은 옥영에게 사내아이를 점지해 주면서 아이에게 특이한 칭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후 태어난 아들 몽석의 등에 붉은 점이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붉은 점'은 장육금불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특이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③ **언제-어디서** 최척은 명나라 배를 타고 안남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어보며, 고국 사람을 찾고 있다. 이를 통해 공간적 배경을 확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무엇을** 옥영은 어젯밤에 들은 피리 소리로 인해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 시를 읊게 되었다. 이를 들은 최척이 시를 읊던 사람을 찾으러 일본인 배에 와서 두 사람이 비로소 만나게 되었으므로 '피리 소리'는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 문제 공식 적용 소재

최척의 피리 소리, 옥영의 시	→	최척과 옥영이 재회하는 계기가 됨.
최척이 피리를 불자 옥영이 시를 읊음.		

#### + 어휘

- **안위**: 편안함과 위태함을 아울러 이르는 말.
- **고국**: 주로 남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조상 때부터 살던 나라를 이르는 말.
- **표지**: 표시나 특징으로 어떤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함. 또는 그 표시나 특징.
- **칭표**: 어떤 것과 다른 것을 드러내 보이는 뚜렷한 점.



동승

누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동승 도념, 겉으로는 완고하지만 도념을 아끼는 주지, 도념을 입양하고자 하는 미망인
언제 어디서	• 초겨울 • 깊은 산속에 있는 절
무엇을	• 불도를 닦아야 하는 운명과 어머니가 있는 세속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도념의 심리적 갈등 • 도념을 입양하고자 하는 미망인과 도념이 절에 머물며 죄를 씻기를 바라는 주지 사이의 갈등
어떻게	순행적 구성, 현재형 진술
왜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불교적 삶 사이의 갈등을 서술함.

1 답 ⑤

이래서 정답

- ⑤ **누가, 무엇을** 도념은 절을 떠나면서 주지를 위해 산문 앞에 잣을 놓아두고,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도념이 주지에 대한 섭섭함을 삭이지 못한 채 절을 떠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왜 오답

- ① **무엇을** 초부는 도념을 말리며 어머니 아버지를 찾지 못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고 거지밖에 될 게 없다며 신중한 처신을 당부하고 있다.  
 ② **누가** 주지는 절을 떠나 동네로 가고 싶어 하는 도념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만류하고 있다.  
 ③ **무엇을** 친정모가 미망인에게 인철이 영혼 축원할 도리나 걱정하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누가, 무엇을** 친정모는 젊은 별좌 등 다른 스님의 말을 듣고 도념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2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누가** 주지는 속세로 나가고자 하는 도념을 만류하기 위해 연못의 이야기를 하며 도념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있다.

왜 오답

- ① **누가** 도념은 연못 속에 이무기가 없다며 주지의 말에 반박하고 있을 뿐, 주지의 연민을 자극하고 있지는 않다.  
 ③ **누가** 초부는 도념이 절을 떠나 겪게 될 수 있는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을 뿐, 도념의 주장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  
 ④ **누가** 미망인은 도념에게는 자신의 사랑이 필요하며, 자신은 도념을 잃고 살 수 없다면서 감정에 호소하고 있을 뿐,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들고 있지 않다.  
 ⑤ **누가** 친정모는 도념이 전생에 부모의 죄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다며 미망인을 말리고 있을 뿐, 부모

의 권위에 의존하여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언제-어디서** 도념이 절에서 떠나는 길이라는 점에서 '벗어남'의 속성을 지닌 비탈길은, 지금까지 살던 절이라는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 속세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감을 보여 준다. 잣을 산문 앞에 놓아두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 도념은 절에서 살았던 지난날을 원망하고 있지 않다.

왜 오답

- ① **언제-어디서** 도념이 초부와 헤어지며 선택한 길이라는 점에서 '갈라짐'의 속성을 지닌 비탈길은, 홀로 길을 떠나야 하는 도념의 처지를 보여 준다.  
 ② **언제-어디서**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점에서 '내려감'의 속성을 지닌 비탈길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도념의 마음을 보여 준다.  
 ④ **언제-어디서** 도념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길이라는 점에서 '시작됨'의 속성을 지닌 비탈길은, 절을 떠난 도념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정신적으로 성숙해 나갈 것임을 알려 준다.  
 ⑤ **언제-어디서** 경사가 급하게 기울어져 있는 길이라는 점에서 '가파름'의 속성을 지닌 비탈길은, 어머니를 찾아 나서는 도념의 여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4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누가** 주지는 도념을 데리고 가겠다는 미망인의 말에 불쾌함을 느끼며 이에 대해 강하게 반문하고 있다. 따라서 ㉠에 가장 적절한 지시문은 '정색을 하며'이다.

왜 오답

- ②, ③, ④, ⑤ **누가** 주지는 미망인의 말에 대해 강하게 반문하고 있으므로 '한숨을 내쉬며(②)', '점연쩍은 듯이(③)', '무엇인가 흘린 듯이(④)', '인자하고 온화한 얼굴로(⑤)'는 ㉠에 어울리지 않는다.

문제 공식 적용 인물의 심리·태도

주지	• 도념이 절을 떠나지 못하게 말림. • "염려 마라니요? 아씨는 그저 애를 데려가실 작정이십니까?"	→ 도념을 데려가려는 미망인의 계획을 불쾌하게 여김.
----	---	-------------------------------

5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어떻게** <보기>는 '건넸다', '말했다' 등과 같이 장면을 과거

시제로 서술하고 있으나, [A]는 '내려간다', '놓는다' 등과 같이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장면을 현재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 왜 오답

- ① **언제-어디서** [A]의 '눈은 점점 펑펑 내리기 시작한다.'와 <보기>의 '어느덧 하늘도 갯빛으로 변하여 ~ 바람도 거세어져 우는 소리를 내었다.'를 비교해 볼 때, [A]에 비해 <보기>가 눈 내리는 날의 배경을 더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③ **어떻게** <보기>는 희곡인 [A]를 소설화한 것이므로, [A]가 아니라 <보기>에 서술자가 있다. [A]에 갈등의 원인은 나타나지 않으며, 이를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 ④ **어떻게** [A]와 <보기> 모두 잦은 장면 전환은 나타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사건의 긴박함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 ⑤ **어떻게** <보기>는 '외로워졌다', '까닭 모를 편안함을 느끼며'에서와 같이 중심인물인 도념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반면 [A]는 도념의 마지막 대사와 '길-게 한숨을 쉰다.', '산문을 돌아다보며 돌아다보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물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어휘

- **삭이자**: 긴장이나 화를 풀어 마음을 가라앉히지.
- **처산**: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져야 할 몸가짐이나 행동.
- **별좌**: 불사(佛事)가 있을 때에 불전(佛前)에 음식을 차리는 일. 또는 그 일을 맡아 하는 사람.
- **겸연쩍은**: 쑥스럽거나 미안하여 아색한.

04 갈등의 종류

확인 1 답 (1) × (2) ○ (3) ○ (4) ×

❖ 이래서 정답

- (1) 갈등은 사건 전개에 중심이 된다.
- (2)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은 갈등의 대상에 따라 구분한다.
- (3) 인물이 갈등을 겪고 있는 대상이 인물의 외부에 있는 경우 외적 갈등이라 한다.
- (4) 내적 갈등은 인물의 외부가 아니라, 한 인물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모순이나 가치관의 대립이 중심이 된다.

확인 2 답 (1) 운명 (2) 인물 (3) 관습

❖ 이래서 정답

- (1) 인물과 운명의 갈등은 인물과 그에게 주어진 운명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의미한다.
- (2) 인물과 인물의 갈등은 인물과 그가 대립하는 다른 인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의미한다.
- (3) 인물과 사회의 갈등은 인물과 그가 살아가는 사회의 제도, 관습, 윤리 등의 사회적 환경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의미한다.

확인 3 답 ③

❖ 이래서 정답

- ③ 정한담과 최일귀는 천자에게 유심이 가달과 동심한 간신이자 역적이라고 한목소리로 아뢰고 있으므로, 유심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라 갈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왜 오답

- ①, ② <보기>는 남적, 즉 가달의 항복을 받기 위해 기병하는 일을 두고(②), 기병을 주장하는 정한담·최일귀와 이를 반대하는 유심 사이의 갈등이 중심이 된다(①).

확인 4 답 ①

❖ 이래서 정답

- ① <보기>에서는 돌을 조각하며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 때문에 고뇌하는 '아사달'의 내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왜 오답

- ② 주만과 아사녀 사이의 외적 갈등은 확인할 수 없다.
- ③ 아사달과 아사녀 사이의 가치관 차이는 확인할 수 없다.

➤ 어휘

- **기병**: 군사를 일으킴.



박씨전

누가	신이한 능력을 지닌 박 씨 부인, 박 씨의 남편인 이시백, 호국의 장수 용골대와 울대 형제
언제 어디서	• 조선 후기(병자호란) • 조선, 호국
무엇을	•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박 씨와 이시백의 갈등(전반부), 호국과 조선의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후반부) • 패전한 병자호란을 소재로 삼음, 변신 모티프
어떻게	전지적 작가 시점, 순행적 구성
왜	박 씨 부인의 영웅적 기상과 재주, 박 씨 부인의 활약을 통한 민족적 자부심의 고취를 서술함.

1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무엇을 '만조백관이 김자점의 말이 그른 줄 알되, 아무 말도 못 하더라.'로 볼 때, 조정의 신하들은 김자점의 말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오답

- ② 누가 "박 부인은 신인이라 ~ 그 말대로 하고자 하노라."라는 임금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무엇을 박 씨가 장안이 함몰되는 다급한 상황에서 일가친척을 피화당으로 피난시킨 뒤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누가 "만일 임경업을 패초하였다가 ~ 어찌 요망한 계집의 말을 듣고 북방을 비우고 동을 막으리이까."라는 김자점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누가 승상은 "북방 호적이 들어오면 북으로 올 것이니"라고 말하며, 호적이 황해수를 건너 들어올 것이라는 박 씨의 말을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2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언제-어디서 '백성들이 도적의 창검에 죽는 자가 무수하여 주검이 태산 같더라.'에서 장안(㉠)을 침입한 호적에 의해 백성들이 피해를 입은 전쟁의 참상을 확인할 수 있다.

왜 오답

- ① 언제-어디서 호적은 의주(㉡)를 피해 황해수(㉢)를 건너 바로 ㉠로 침입하였다.
- ② 언제-어디서 임경업은 ㉢가 아니라 ㉡를 수비하고 있었다.
- ④ 언제-어디서 용골대의 아우 울대가 우상의 집, 즉 박 씨의 집을 범하여 피화당(㉣)에 침입하였으나, 이곳에서 울대의 영웅적 면모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 ⑤ 언제-어디서 남한산성(㉤)은 왕이 피난한 곳이다. '중로에서

호적의 복병을 만나 우상이 칼을 잡고 죽기로 싸워 ~ 남한에 들어가니라.'를 볼 때 우상의 충성심은 남한산성으로 가는 도중에 발휘된다고 할 수 있다. 남한산성에서 우상이 충성심을 발휘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3 답 ⑤

보기 | 오래 보기

... 갈등은 그 성격에 따라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갈등인 '내적 갈등'과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개인과 자연, 사회와 사회, 개인과 운명 등의 갈등인 '외적 갈등'으로 나눌 수 있다. ...

무엇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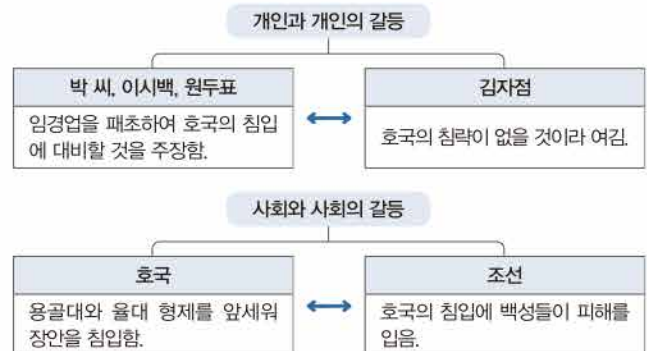
이래서 정답

- ⑤ 무엇을 우상은 장안이 호적에게 함몰된 상황에서 죽기로 싸워 임금을 남한산성으로 모시고 들어간다. 이러한 우상의 모습에서 호적과의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고민하는 내적 갈등은 확인할 수 없다.

왜 오답

- ① 무엇을 울대가 박 씨의 집 피화당을 침입하는 데서 울대와 박 씨, 즉 개인과 개인의 대립이 발생할 것이라는 극적 긴장감이 유발되고 있다.
- ② 무엇을 김자점은 승상이 전한 박 씨의 방책을 듣고, 박 씨를 요망한 계집이라고 하며 그 말을 무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에 대한 당대 남성의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무엇을 호적이 침입하여 장안의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사회와 사회의 갈등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 ④ 무엇을 임경업을 내적으로 불러들여야 한다는 박 씨의 말에 "박 부인 말씀대로 하여 보사이다."라며 찬성하는 원두표와, 이에 반대하는 김자점이 갈등하고 있다.

문제 공식 적용 외적 갈등



4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누가 박 씨는 호적이 황해수를 건너 침입할 것을 예견하



였는데, 박 씨의 말대로 전쟁이 일어난다. 따라서 박 씨를 평가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고 아는 지혜'를 의미하는 '선견지명'이다.

❖ 왜 오답

- ② **누가** '우유부단'은 '어물어물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성이 없음.'을 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누가** '일취월장'은 '나날이 다달이 자라거나 발전함.'을 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누가** '주마가편'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뜻으로, 잘하는 사람을 더욱 장려함을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누가** '표리부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름.'을 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어휘

- **만조백관**: 조정의 모든 벼슬아치.
- **신안**: 신과 같이 신령하고 숭고한 사람.
- **참상**: 비참하고 끔찍한 상태나 상황.
- **예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짐작함.

불꽃

누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삶의 태도 사이에서 방황하는 현, 현의 친구로 공산주의자가 된 연호, 현의 할아버지로 조상의 혈통을 잇는 일을 삶의 전부로 여기는 고 영감
언제 어디서	• 1919년 3·1 운동~6·25 전쟁 • P 고을
무엇을	• 숙명에 의지하는 할아버지의 삶의 방식과 신념을 지니고 현실에 저항한 아버지의 삶의 방식 사이에 발생하는 현의 내적 갈등 • 현을 공산주의자로 만들고자 하는 연호와 현의 갈등
어떻게	역순행적 구성(회상), 현재형 진술
왜	역사에 대한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삶의 추구를 서술함.

1 답 ①

❶ 이래서 정답

- ① **어떻게** S# 29에서는 현을 키우는 방식에 대한 현 모와 고 영감의 갈등이, S# 36에서는 비밀 운동을 조직하고 동참을 권유하는 민영과 이를 거절하는 현의 갈등이 대화를 통해 제시되며 사건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왜 오답

- ② **무엇을**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 갈등 해소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지 않다.
- ③ **언제-어디서** M 선생이 고등계 형사에게 연행되어 가는 장면에서 시대 상황을 짐작할 수 있으나, 공간적 배경의 묘사를 통해 시대 상황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④ **어떻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나란히 배치해 서사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지 않다.
- ⑤ **무엇을** 상징적인 소재는 활용되고 있지 않다.

문제 공식 적용 외적 갈등

고 영감과 현 모의 갈등	현을 키우는 방식을 두고 고 영감과 현 모가 갈등함.
현과 민영의 갈등	비밀 운동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민영과 이를 거절하는 현이 갈등함.

2 답 ⑤

| 보기 | 오려 보기

... ㉔ 세계의 횡포에 좌절하거나 순응하는 자아도 있고, ㉕ 쉽사리 세계에 굴복당하지 않으려는 자아도 있다. 한편 위의 두 자아가 한 인물 내에서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누가, 무엇을**

❶ 이래서 정답

- ⑤ **누가, 무엇을** 현은 비밀 운동을 조직해 함께 저항하자는 친구들의 권유를 듣고, "우리들 힘이나 잡혀간 M 선생님의 힘으로 뭐가 거대한 것이 달라질까"라고 하면서 미안하며 돌아선다. 이는 ㉔에서 ㉕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㉔의 양상으로 볼 수 있다.

❖ 왜 오답

- ① **누가, 무엇을** 현 모는 현이 아버지(남편)의 죽음에 대한 고영감의 부정적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㉞의 양상으로 볼 수 있다.
- ② **누가, 무엇을** 고영감이 자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죽어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이므로, ㉠의 양상으로 볼 수 있다.
- ③ **누가, 무엇을** 비밀 운동을 하려는 민영이 언제까지나 수동적이어야만 한다면 반문한 것은 ㉠의 양상으로 볼 수 있다.
- ④ **누가, 무엇을** 학생들에게 독립 사상을 주입시킨 혐의로 연행되어 가는 M 선생이 겁먹거나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고 태연히 냉소마저 머금은 것은 ㉠의 양상으로 볼 수 있다.

3 답 ②

❖ 이레서 정답

- ② **무엇을** <보기>에서 '끌려간 M 선생은 학생들의 은근한 여론 속에서 하나의 우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였으나, S# 36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 왜 오답

- ① **무엇을** S# 36의 연행되는 M 선생과 현이 마주치는 장면은 <보기>에는 없으므로, 장면을 삽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어떻게** <보기>에 서술된, M 선생이 연행된 이유가 S# 36에서는 학생들의 수군거리는 목소리(E)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효과음을 사용해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무엇을** <보기>에 제시된, M 선생이 옥중에서 보낸 쪽지와 관련된 내용은 S# 36에 없으므로 생략했다고 볼 수 있다.
- ⑤ **어떻게** 비밀 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받은 현이 당황해하는 모습은 <보기>에는 없고, S# 36에는 '입술이 탄다.', '당황'과 같은 지시문으로 드러나 있다.

4 답 ①

❖ 이레서 정답

- ① **누가** ㉠은 현 모에 대한 고영감의 불만이 드러난 대사이다. 고영감은 현이 현의 아버지처럼 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

❖ 왜 오답

- ② **어떻게** ㉠에서는 M 선생이 형사들에게 붙잡혀 가는 이유가 독서회를 열고 학생들에게 독립 사상을 주입시킨 것 때문임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누가** ㉠에서는 학생들이 계속 붙잡혀 가더라도 행동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누가** ㉠에서 민영은 현을 설득하기 위해서, 현의 아버지가 자신들의 우상이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누가** ㉠에서는 연호는 현에게 할머니가 있다며, 현의 가족 상황을 고려하여 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실전 04-C

본문 44~45

옥단춘전

누가	의리와 정의를 갖춘 이혈룡, 개인의 안위만 생각하는 김진희, 절의가 있는 기생 옥단춘
언제 어디서	• 조선 후기 • 한양, 평양
무엇을	김진희의 배신으로 인한 이혈룡과 김진희의 갈등, 이혈룡의 갈등 해결 과정에 드러나는 현실성
어떻게	전지적 작가 시점, 판소리 사설 투 문제
왜	신인의 중요성과 남녀 간의 신의 있는 사랑을 서술함.

1 답 ①

❖ 이레서 정답

- ① **무엇을** 이 글에서는 김진희가 친구였던 이혈룡을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는 데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 왜 오답

- ② **누가** 옥단춘은 이혈룡이 거지꼴로 나타났어도 한결같은 신의와 애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혈룡과 김진희의 성격도 변화하지 않는다.
- ③ **어떻게** 인물의 대화 속에서 과거에 이혈룡이 김진희와 결의형제를 한 일이나 옥단춘이 이혈룡의 집으로 재물을 보낸 일 등이 언급되었으나,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사건이 전개되고 있지는 않다.
- ④ **무엇을** 이 글에 역사적 사실은 언급되지 않았다.
- ⑤ **무엇을** 초월적 세계의 개입은 확인할 수 없다.

2 답 ③

❖ 이레서 정답

- ③ **언제 어디서** 평양 감사인 김진희는 친구인 이혈룡을 모른 채하고 강물(㉠) 한가운데에 던져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은 배신과 죽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 왜 오답

- ① **언제 어디서** 연광정(㉠)은 김진희가 잔치를 벌인 곳으로, 김진희를 찾아온 이혈룡과 옥단춘이 처음 만난 곳이다.
- ② **무엇을** 이혈룡은 김진희에게 풍전의 노자(㉠)가 없어 서을 길을 어찌 돌아가겠냐고 말한다. 따라서 ㉠은 집으로 되돌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누가** 사공들(㉠)은 옥단춘의 부탁을 받고 이혈룡을 살려 주었으므로, ㉠은 이혈룡을 살려 주는 보조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무엇을** 옥단춘은 사공들에게 이혈룡을 죽인 듯이 모래(㉠)를 덮어서 숨겨 두고 오라고 하였으므로, ㉠은 인물의 죽음을 가장하는 구실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3 답 ①

#### ㉠ 이래서 정답

- ① **누가** [A]의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려면 무슨 일을 안 당 하리까.”라는 옥단춘의 말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은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인 ‘새옹지마’이다.

#### ㉡ 왜 오답

- ② **누가** ‘고립무원’은 ‘고립되어 구원을 받을 데가 없음.’을 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누가** ‘점입가경’은 ‘들어갈수록 점점 재미가 있음.’ 또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짓이나 몰골이 더욱 꼴불견임.’을 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누가** ‘일장춘몽’은 ‘한바탕의 봄꿈이라는 뜻으로,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누가** ‘금상첨화’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4 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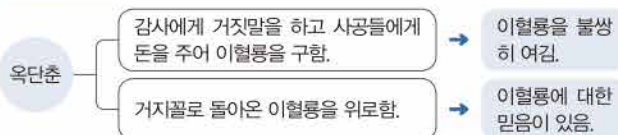
#### ㉠ 이래서 정답

- ③ **누가** 옥단춘과 만덕이 기지를 발휘하여 신분의 제약을 벗어났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 ㉡ 왜 오답

- ① **누가** 옥단춘은 이혈룡을 구출하여 도와주었다는 점에서, 만덕은 흉년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쌀을 나누어 주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누가** 이혈룡의 가족에게 많은 재물을 보냈다는 점에서 옥단춘의 경제적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만덕은 여성 부호로 이름이 드높았다고 하였다.
- ④ **누가** 옥단춘은 거지꼴로 돌아온 이혈룡을 박대하지 않고 끝까지 신의를 지켰다. 또한 만덕은 쌀을 나누어 주어 흉년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도와주었다.
- ⑤ **누가** 옥단춘은 남루한 의복을 입은 이혈룡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그를 구하여 암행어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사람을 보는 안목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만덕은 물가의 높고 낮음을 잘 짐작하여 내들이를 하였으므로 사회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 문제 공식 적용 인물의 심리·태도



### 무엇을

## 05

## 사건의 특성

### 확인 1 답 (1) 우연성 (2) 전기성

#### ㉠ 이래서 정답

- (1) 우연성은 어떠한 사건이 뜻하지 아니하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 (2) 현실에서 나타날 수 없는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사건 등 기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 전기성이 있다고 한다.

### 확인 2 답 (1) × (2) ○

#### ㉠ 이래서 정답

- (1) 왜왕은 신하의 말을 듣고 철마를 달고 있으므로, 사건이 우연적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없다.
- (2) 사명당이 조선 향산을 향해 사배하자 비가 바가지로 쏟아붓듯이 와 홍수가 일어나는데, 이는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사건이므로 전기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확인 3 답 (1) ○ (2) ×

#### ㉠ 이래서 정답

- (1) (가)에서 남편이 술을 마신 이유는 사회에 대한 좌절 때문임을 (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 (나)에서는 남편의 말을 통해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만 언급되었을 뿐, (가)의 상황을 극복할 방안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 확인 4 답 ①

#### ㉠ 이래서 정답

- ① 인당수에 빠졌던 심청은 용왕에 의해 구출되어 황후가 되었는데, 이는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사건이므로 현실성이 아니라 전기성이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 ㉡ 왜 오답

- ② 심 봉사는 꿈 이야기를 하며 “아무래도 오늘 승상 댁에서 너를 가마 태워 갈 꿈인가보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 ③ 심 봉사의 꿈에서 심청은 수레를 타고 떠나 심 봉사와 이별한다. 이는 이후에 일어나는 심청이 인당수에 빠졌으나 용왕에 의해 구출되어 황후가 되는 일을 암시하는 복선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어휘

- 사배: 네 번 절함. 또는 그런 절.





고 있지는 않다.

- ② **왜** 관리들이나 장수들이 길동을 잡지 못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나라의 인재가 없는 현실을 그리고 있지는 않다.
- ④ **왜** 상이 길동의 소원인 병조 판서를 제수한 것은 길동을 잡기 위한 계략으로, 이를 통해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 ⑤ **왜** 길동이 병조 판서라는 높은 관직에 오르고자 하는 것은 천비 소생이라는 개인적인 한을 풀기 위함이지, 신분 제도를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 5 답 ②

### ❶ 아래서 정답

- ② **누가** ㉠은 길동이 자신을 결박하는 것들을 가볍게 풀고 궁중에 올라 사라지자 장교와 제군이 모두 넋을 잃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멍하니 정신을 잃음.'을 의미하는 '망연자실'이다.

### ❷ 왜 오답

- ① **누가** '등하불명'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뜻으로, 가까이 있는 물건이나 사람을 잘 찾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누가** '마이동풍'은 '동풍이 말의 귀를 스쳐 간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림을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누가** '순망치한'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누가** '주마간산'은 '말을 타고 달리며 산천을 구경한다는 뜻으로,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대충대충 보고 지나감을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 어휘

- **소탕**: 휩쓸어 죄다 없애 버림.
- **초한**: 조선 시대에, 종이품 이상의 벼슬아치가 타던 수레. 긴 쪼대에 외바퀴가 밑으로 달리고, 앞는 데는 의자 비슷하게 되어 있으며, 두 개의 긴 채가 달려 있음.
- **명망**: 명성(세상에 널리 퍼져 평판 높은 이름)과 인망(세상 사람이 우러르고 따르는 덕망)을 아울러 이르는 말.
- **구현**: 어떤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함.
- **결박**: 몸이나 손 따위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동여 묶음.

## 옥루몽

누가	• 천상계(현실): 천상계 선관인 문창성, 문창성이 희롱하던 다섯 선녀들(제방 옥녀, 천요성, 홍란성, 제천 선녀, 도화성) • 지상계(꿈): 문창성이 적강한 양창곡, 다섯 선녀들이 적강한 다섯 여인들(운 소저, 황 소저, 강남홍, 벽성선, 일지련)
언제 어디서	• 명나라 때 • 황성, 강주 등
무엇을	• 천상계 선관 문창성이 벌을 받아 다섯 선녀들과 적강한 사건, 양창곡의 영웅적 활약과 양창곡이 다섯 여인들과 인연을 맺는 사건 • 옥통소와 관련한 복선, 적강 모티프
어떻게	전지적 작가 시점, 환몽 구성
왜	양창곡의 영웅적인 활약상과 다섯 여인과의 영화로운 삶을 서술함.

## 1 답 ③

### ❶ 아래서 정답

- ③ **무엇을** 양 원수와 강남홍이 일대일로 대결하는 장면에서 강남홍은 양 원수를 알아보고 자신에게 덤벼드는 양 원수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다. 따라서 승부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양 원수의 무예가 강남홍의 무예를 능가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 ❷ 왜 오답

- ① **무엇을** “홍랑! 그대 죽어서 혼이 나타난 것이 아니요? ~ 어찌 살아왔다고 믿으리요!”라는 양 원수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무엇을** “첩은 상공께서 사랑해 주신 덕택으로”라는 강남홍의 말과, 강남홍과 양 원수가 서로 손을 마주 잡고 오열에 젖었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무엇을** 강남홍이 수중고혼이 되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고 한 것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무엇을** 강남홍은 ‘스승의 명을 받들고 싸움터에 나’왔다고 하였다.

## 2 답 ③

### ❶ 아래서 정답

- ③ **누가** 강남홍은 ‘어찌 만왕을 위해서 나의 고국을 ~ 스승의 명을 받들고 싸움터에 나와’라며 고민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에서 강남홍이 소사마를 죽이지 않고 살려 보내는 데에는 어쩔 수 없이 만왕의 편이 되어 참전한 상황이므로 상대방과 싸우고 싶어 하지 않는 심리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❷ 왜 오답

- ① **누가** 명장 소사마도 강남홍의 놀라운 재주와 칼은 막아



널 도리가 없었다고 하였으므로, 강남홍의 실력이 소사마보다 뛰어남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누가** 강남홍이 소사마와의 대결에서 이겼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양 원수와 싸움을 내일로 미웠다는 내용으로 볼 때 강남홍이 전쟁에 이미 승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누가** 강남홍이 소사마를 ‘하늘이 내신 명장’이라고 평가하고는 있으나, 강남홍의 실력이 소사마보다 뛰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누가** 강남홍이 소사마를 제압하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돌아올 것을 염려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 3 답 ③

#### ◎이래서 정답

- ③ **누가** 〈보기〉에는 양 원수가 벽성선으로부터 옥곡을 배운 경위가 제시되어 있다. 한편 [A]에서 적장은 강남홍이며, 양 원수는 이 적장에 대한 의심을 풀 길이 없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양 원수가 적장이 벽성선임을 확신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왜 오답

- ① **무엇을** 강남홍의 옥통소 곡조에 명나라 군사들이 우수에 잠기자, [A]에서 양 원수는 벽성선이 준 옥통소를 붙여 군사들이 명량한 기분을 회복하게 만들었다. 〈보기〉에서는 벽성선이 싸움터에서 옥곡을 쓸 일이 있을 것이라고 당부하였으므로, 〈보기〉의 사건은 [A]의 복선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② **누가** 〈보기〉에서 벽성선이 “머지않아 반드시 싸움터에 나가실 듯하오니, 이 옥곡을 배워 두시면 쓰실 날이 있을까 하옵나이다.”라고 말하였고, [A]에서 양 원수가 옥통소를 쓰고 있으므로 벽성선의 예지력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누가** 〈보기〉에서 벽성선이 양 원수에게 옥곡을 가르쳐 주고, [A]에서 양 원수가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무엇을** 〈보기〉에서 벽성선의 옥통소 소리는 ‘산이 울고 초목이 진동하고 ~ 흙이 날아’오르는 자연의 변화를 일으킨다. 반면 [A]에서 양 원수의 옥통소 소리는 군사들이 ‘명량한 기분을 회복하고 사기가 충천해지’는 심리 변화를 가져온다.

#### 문해 공식 적용 복선

〈보기〉	벽성선이 양창곡에게 옥통소를 부는 법을 가르쳐 주며 쓸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함.
[A]	양창곡이 벽성선에게 받은 옥통소를 붙여 군사들의 사기를 회복 시킴.



양 원수가 벽성선에게 옥통소를 배운 일이 복선으로 작용함.

### 4 답 ④

#### ◎이래서 정답

- ④ **누가** ㉠에서 소사마는 강남홍의 놀라운 재주와 칼을 막아 널 도리가 없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처지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손을 묶은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 함.’을 의미하는 ‘속수무책’이다.

#### ❖왜 오답

- ① **누가** ‘사생결단’은 ‘죽고 사는 것을 돌보지 않고 끝장을 내려고 함.’을 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누가** ‘오월동주’는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누가** ‘견문발검’은 ‘모기를 보고 칼을 뺄다는 뜻으로, 사소한 일에 크게 성내어 덤빔을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누가** ‘전전반측’은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을 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 어휘

- 무예: 무도에 관한 재주.
- 참전: 전쟁에 참가함.
- 경위: 일이 진행되어 온 과정.
- 예지력: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아는 능력.

### 정수정전

누가	남장하여 큰 공을 세운 영웅인 정수정, 정수정의 정혼자인 장연, 아버지를 죽인 정적 진량
언제 어디서	• 송나라 때 • 황성, 청주, 기주 등
무엇을	• 아버지를 죽인 진량과 정수정의 갈등, 혼인 후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우는 장연과 가부장적 질서에 대항하는 정수정의 갈등 • 적강 모티프, 남장 모티프
어떻게	전지적 작가 시점, 영웅의 일대기 구성
왜	정수정의 고난 극복과 영웅적 행적을 서술함.

## 1 답 ④

### 이래서 정답

- ④ **무엇을** 한복이 대원수(정수정)의 명령을 받고 진량의 귀양지로 가서 진량을 결박하여 돌아온 뒤에, 대원수가 진량의 죄를 묻고 처벌하였다.

### 왜 오답

- ① **누가** 정 상서가 황제의 탄생일에 참석하지 못하자, 진량은 정 상서가 간악하며 황제에게 다른 마음을 가진 것으로 모함한다. 황제는 이 말을 듣고 정 상서를 절강에 귀양 보내기로 결심한다.
- ② **무엇을** 중관은 “정 상서의 죄 명백함이 없으니 어찌 별로 다스리오리까?”라며 정 상서의 죄가 분명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 ③ **누가** “내 일찍 국을을 갚을까 하였더니 소인의 참언을 입어 이제 귀양을 가니 어찌 애달프지 않으리오.”라는 정 상서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무엇을** 장연의 말을 듣고 태부인이 원통하고 분한 심정을 드러내자 원 부인과 공주가 “저 사람 또한 대의를 알아 삼가 화목할 것이니 이제는 노하지 마소서.”라며 태부인을 진정시키고 있다.

## 2 답 ②

### 이래서 정답

- ② **무엇을** ㉠은 사관이 정 상서를 재촉하는 말이다. 정 상서는 이미 중관을 통해 자신이 귀양을 가게 되었다는 비보를 들었으므로, ㉠은 정 상서로 하여금 비보가 전해질 것을 짐작하게 만드는 말이 아니다.

### 왜 오답

- ① **무엇을** 진량은 정 상서가 병으로 황제의 탄생일에 불참하자, 이를 이용하여 정 상서를 모함한다.
- ③ **무엇을** 정 상서가 귀양지에서 죽었다는 ㉡의 소식에 부인과 정수정은 혼절하게 된다.

- ④ **무엇을** 정수정이 호왕에 승리를 거두자 황제는 정수정을 맞아 치하한 뒤, 그 공을 인정하여 좌각로 평복후를 봉해 정수정의 노고에 보답한다.

- ⑤ **무엇을** 정수정은 장연을 징계한 일로 심사가 답답하였는데, ㉢의 태부인의 서찰을 받고 기뻐 즉시 회답하여 보내고 익일에 행장을 차려 갔다. 따라서 ㉢으로 인해 정수정은 걱정을 덜며 떠날 준비를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답 ③

### 이래서 정답

- ③ **무엇을** 첩서(㉤)는 호왕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황제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 왜 오답

- ① **무엇을** 장계(㉠)는 정 상서의 죽음을 황제에게 보고하기 위해 절강을 다스리는 절강 만호가 작성하였다. 정 상서가 자신의 귀양살이를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
- ② **무엇을** ㉠은 정 상서의 죽음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를 작성한 절강 만호가 황제와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다.
- ④ **무엇을** 정수정은 ㉢을 올려 승전을 알린 후 대군을 지휘하여 경사로 향하였고, 황제는 백관을 거느려 대원수 정수정을 맞아 치하하였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 정수정이 황제와의 대면을 피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고, 황제와의 대면을 피할 목적으로 ㉢이 작성된 것도 아니다.
- ⑤ **무엇을** ㉢에 담긴 정 상서가 죽었다는 소식은 절강 만호가 정 상서의 부인과 정수정에게도 알렸고, ㉢에 담긴 호왕을 격파했다는 소식은 황제가 백관을 거느리고 정수정을 맞아 치하하는 상황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다 볼 수 있다. 즉 ㉠과 ㉢에 담긴 소식은 모두 황제 외의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 문제 공식 적용 소재

장계	• 작성자: 절강 만호 • 내용: 절강에서 귀양 중이던 정 상서가 죽음.	→ 정 상서의 부인과 정수정에게 슬픔을 유발함.
첩서	• 작성자: 정수정 • 내용: 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함.	→ 황제에게 승전을 알림.

## 4 답 ④

### 보기 | 오래 보기

정수정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이자,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이고, 부녀자로서의 덕목을 지녀야 하는 장씨 가문의 여성이다. ... 모든 역할에 충실하며 다양한 능력과 덕목을 갖춘 인물로 형상화된다.

누가



◎ 이래서 정답

- ④ **누가** 전쟁에서 장연을 징계한 일로 심사 담당인 정수정의 고민은 <보기>의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이면서도 부녀자로서의 덕목을 지녀야 하는 장씨 가문의 여성이라는 서로 다른 역할 사이의 갈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수정의 담당 심사 태부인의 서찰로 해소되었으며, 정수정이 군대를 통솔했던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 왜 오답

- ① **누가** 정수정이 진량의 귀양지까지의 거리를 물은 후 한복에게 진량을 결박하여 오라고 명하는 것을 통해, 부친의 한을 풀어 주려는 효녀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누가** 정수정이 진량의 머리를 받아 제사를 차려 부친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통해,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로서 죽은 부친의 넋을 위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누가** 정수정은 전쟁에서 장연을 징계하였고, 이 일을 장연에게 전해 들은 태부인은 장연이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욕을 보고 돌아왔다'며 통분하고 있다. <보기>에서 장씨 가문의 여성이 부녀자로서의 덕목을 지녀야 한다고 한 것을 고려하면, 태부인은 정수정이 아내의 역할보다 태원수의 역할을 중시한 것에 대해 못마땅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누가** 정수정이 기주로 갈 때 '홍군 취삼으로 봉관 적의에 ~ 한복이 정수정을 호위'하는 모습에서 정수정의 국가적 영웅의 면모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주에 도착하여 태부인에게 예하고 태부인을 지성으로 섬기는 모습에서 정수정이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함을 알 수 있다.

⊕ 어휘

- **비보** 슬픈 가별이나 소식
- **혼절** 정신이 아찔하여 까무러침
- **치하** 남이 한 일에 대하여 고마움이나 칭찬의 뜻을 표시함. 주로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함.
- **노고** 힘들어 수고하고 애씀
- **대면**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함

무엇을

06

소재, 모티프

확인 1 답 (1) ○ (2) ○ (3) ×

◎ 이래서 정답

- (1) 소재는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하여 나타낸다.
- (2) 소재는 인물에게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 (3) 소재는 갈등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킨다. 또는 갈등 해결 및 화해의 실마리가 된다.

확인 2 답 (1) × (2) ○

◎ 이래서 정답

- (1) 최척이 옥영에게 '남자 옷'을 입힌 것은 맞지만, 이것이 최척에게 옥영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하지는 않는다.
- (2) 여자인 옥영이 남자 옷을 입고 남자 행세를 하였다는 점에서 남장 모티프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 3 답 ①

◎ 이래서 정답

- ① "나무가 둘만 하다든?"이라는 아버지의 말과 이어지는 둘다리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을 고려할 때, '나무다리'가 아니라 '둘다리'가 아버지의 가치관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 왜 오답

- ② '둘다리'는 창섭이 고기를 잡고 놀았고, 서울로 갈 때 건너가던 다리이며, 창섭의 증조할아버지의 상들을 옮기고, 아버지가 천자문을 끼고 공부하러 가고, 창섭의 어머니가 가마를 타고 시집오는 길에 지난 다리이다. 즉 '둘다리'는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담겨 있는 소재이다.
- ③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시나요?"라는 창섭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확인 4 답 ③

◎ 이래서 정답

- ③ 소선이 부왕의 병을 고칠 영약을 구하러 갔다는 점에서 구약 여행 모티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소선이 도인과 함께 보타산에 가지는 않았다.

❖ 왜 오답

- ① 소선은 기러기의 발에 매인 모친의 서간을 들고 눈을 뜨게 된다. 따라서 '서간'은 소선이 눈을 뜨게 되는 계기이다.
- ② 소선이 서간을 들고 올다가 '홀연 뜻밖에 두 눈이 활짝 열'렸다고 한 것에서 개안 모티프를 확인할 수 있다.

III

무엇을

이생규장전

누가	용모와 재주가 뛰어나며 적극적으로 사랑을 추구하는 이생, 사랑에 적극적인 최 여인
언제 어디서	• 고려 공민왕 10년(홍건적의 난) • 송도
무엇을	• 이생과 최 여인의 세 번의 만남과 이별, 살아 있는 이생과 죽은 최 여인이 인연을 맺는 전기성 • 삽입 시, 인귀 교환 모티프
어떻게	전지적 작가 시점, 순행적 구성
왜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지극한 사랑을 서술함.

1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무엇을** 이 글은 홍건적에 의해 죽은 최 여인이 이생 앞에 다시 나타나 함께 살다가 저승으로 떠난다는 내용이다. 이는 귀신이 나타나서 살아 있는 사람과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오답

- ① **누가** 이생이나 최 여인의 성격 변화는 확인할 수 없다.  
 ③ **어떻게** 잦은 장면의 전환이나 이로 인한 긴박한 분위기는 확인할 수 없다.  
 ④ **어떻게**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작품에 등장하여 사건에 개입하고 있지 않다.  
 ⑤ **어떻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2 답 ④

이래서 정답

- ④ **누가** ㉠에서 최 여인이 수습해 달라고 부탁하는 유해는 최 여인 자신의 것이므로 부모의 장례를 부탁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왜 오답

- ① **누가** ㉠에서 최 여인을 다시 만난 후 집 밖에 나가지 않는 이생의 모습을 통해 이생이 최 여인과의 사랑 이외의 세상에 관심이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② **무엇을** ㉠에서 세 번의 좋은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 이별이 닥쳐왔다고 한 것으로 볼 때, 최 여인과 이생이 함께 지내는 지금이 세 번째 만남이며, 이미 두 번의 이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무엇을** ㉠에서 최 여인은 자신이 인간 세상에 머무른다면 자신뿐 아니라 이생에게도 누가 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최 여인이 이생과 계속 함께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다.  
 ⑤ **누가** ㉠에서 최 여인과 이별한 후 이생이 결국 죽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최 여인에 대한 이생의 지

극한 사랑이 드러난다.

3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누가** [A]에서는 죽은 뒤에 이생을 찾아온 최 여인이 저승으로 돌아가야 하는 운명임을 고백하며 이별을 알리고 있다. 이 말을 들은 이생의 심정은 '맑게 갠 하늘에서 치는 날벼락이라는 뜻으로, 뜻밖에 일어난 큰 변고나 사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청천벽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왜 오답

- ② **누가** '결초보은'은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누가** '사필귀정'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을 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누가** '전화위복'은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을 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누가** '비분강개'는 '슬프고 분하여 의분이 복받침'을 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4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무엇을** [B]는 최 여인이 읊은 시로, 전쟁으로 죽은 최 여인의 원통함과 이별을 앞둔 슬픔을 드러내고 있으며(ㄱ), 최 여인과 이생이 이별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ㄴ).

왜 오답

- ㄷ. **무엇을** 이생과 최 여인이 이별하게 된 상황이 변하지 않으므로, [B]를 통해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볼 수 없다.  
 ㄹ. **무엇을** [B]에는 전쟁터에서 죽게 된 최 여인의 경험이 드러나 있으나,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나타나 있지 않다.

문제 공식 적용 소재

최 여인의 시	
전쟁으로 죽은 자신의 과거와 이생과 이별하게 되었음을 노래함.	→ 전쟁으로 죽은 원통함과 이별에 대한 슬픔을 함축적으로 드러냄.

5 답 ⑤

| 보기 | 오려 보기

「이생규장전」은 사랑하는 남녀가 전쟁 때문에 이별했다가 기이한 방식으로 다시 결연하지만 결국 비극적으로 종결되는 이야기이다.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통해 개인과 세계의 갈등 관계를 형상화한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엇을, 왜**



◎ 이래서 정답

- ⑤ **누가** “남자는 인간 세상에 ~ 흠이 뒀이 어떻겠소?”라는 이생의 말에는, 사랑이 종결되는 것을 막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드러날 뿐, 사랑의 종결을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 왜 오답

- ① **왜** 최 여인과 이생이 함께 살며 밖에 나가지도 않고 금슬이 좋아 화락하게 지냈다는 것은, 생사를 초월한 두 사람의 사랑을 보여 준다.
- ② **무엇을** 이 글에서 최 여인이 죽게 된 것은 홍건적의 난 때문이다. 이는 최 여인의 노래 ‘전장의 창과 방패가 ~ 원앙도 짝 잃었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무엇을** “천제께서 저와 그대의 연분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고 ~ 환체를 빌려주어”라는 최 여인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무엇을** “세 번이나 좋은 시절을 ~ 어긋나기만 하네요.”라는 최 여인의 말에서 이생과 최 여인이 세 번의 이별을 겪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생과 최 여인은 전쟁과 저승 세계의 법령 때문에 이별하게 된 것이므로, 개인과 세계의 갈등 관계가 형상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 공식 적용 모티프

인위 교환 모티프	
살아 있는 이생과 죽은 최 여인이 다시 만나 사랑하며 살아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흥미를 유발함.</li> <li>•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지극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드러냄.</li> </ul>	

⊕ 어휘

- **유해** 주검을 태우고 남은 뼈. 또는 무덤 속에서 나온 뼈.
- **의분** 불의에 대하여 일으키는 분노.
- **화락** 화평하고 즐거움.

철쭉제

누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고생한 끝에 검사가 된 '나', '나'의 아버지를 죽인 박판돌
언제 어디서	• 일제 강점기~6·25 전쟁~1980년대 • 지리산 세석평전, 서울 등
무엇을	• 아버지의 원수인 박판돌과 '나'의 갈등 및 화해(외부 이야기), 박판돌이 들려준 '나'와 그의 가족사(내부 이야기) • 박판돌 가족의 비극의 원인이 된 족보
어떻게	1인칭 주인공 시점(외부 이야기), 전지적 작가 시점(내부 이야기), 액자식 구성, 방언, 비유적 표현
왜	역사적인 비극에 대한 극복 의지를 서술함.

1 답 ①

◎ 이래서 정답

- ① **어떻게** ‘나’와 판돌의 대화를 통해 판돌과 ‘나’의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이 밝혀지고 있다.

❖ 왜 오답

- ② **언제-어디서** ‘지리산 세석평전’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고, ‘6·25’라는 역사적 사건도 언급되어 있으나, 공간적 배경에 대해 묘사하여 역사적 사건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어떻게** 이 글은 지리산 세석평전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 즉 과거에 판돌과 ‘나’의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사건과 현재 ‘나’와 판돌이 대화를 나누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하고 있지는 않다.
- ④ **어떻게** 빈번한 장면의 전환은 드러나지 않으며, 사건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 ⑤ **어떻게**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속 인물인 ‘나’이므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답 ⑤

◎ 이래서 정답

- ⑤ **누가** 판돌의 목소리를 효과음(E.)으로 처리한 것은 맞지만, 이는 인동이 거짓말로라도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기를 바라는 판돌의 속마음이 생생하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왜 오답

- ① **무엇을** [A]에는 인동이 판돌의 아버지를 죽이게 된 이유가 “아버지가 언젠가는 낫으로 ~ 지 부자가 도련님 댁 족보에 오르는 것이 싫어서”라고 언급되어 있으나, <보기>에는 이러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 ② **무엇을** [A]에는 판돌이 인동을 데리고 지리산으로 들어갔

다고만 하였으나, 〈보기〉에서는 ‘판돌, 인동(박 검사의 아버지)의 ~ 판돌의 뒤를 따라가다 넘어진다.’와 같이 인물들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③ **누가** 〈보기〉에서는 판돌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종이를 인동의 얼굴을 향해 던지며’, ‘흥분한 목소리로’와 같이 행동에 담긴 감정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도록 지시문을 구성하였다.
- ④ **어떻게** [A]에서 과거의 사건에 대해 고백하고 있는 판돌의 말을, 〈보기〉에서는 판돌과 인동의 대화로 제시하여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 3 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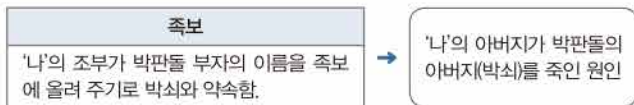
#### ◎ 이래서 정답

- ③ **무엇을** “물론 저도 아직 족보가 없습니다만.”이라는 판돌의 말을 고려할 때, 판돌의 이름은 족보에 오르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우는 것이 ‘나’가 고향에 돌아온 이유라고 할 수 없다.

#### ❖ 왜 오답

- ① **무엇을** “지 아버지는 족보에 이름 석 자 올릴 욕심으로 죽을 때까지 쫓고 있었”다는 판돌의 말을 통해, 판돌의 아버지는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기를 평생 고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무엇을** “이제는 백만 원만 ~ 올릴 수 있겠습니다만…….”이라는 판돌의 말을 통해 판돌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 ④ **무엇을** 판돌은 족보 대신 ‘나’의 조부가 지어 준 ‘박판돌’이라는 이름이 적힌 종이쪽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고 하였다.
- ⑤ **무엇을** “지 부자가 도련님 댁 족보에 오르는 것이 싫어서 ~ 썩 적었다고 허드만요.”라는 판돌의 말에서 ‘나’의 아버지가 판돌 부자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문해 공식 적용 소재



### 4 답 ⑤

#### | 보기 | 오려 보기

이 작품의 주인공인 ‘나’는 가족이 겪은 비극으로 인하여 한을 품게 된다. … 인식이 전환되고, 이는 한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누가**

#### ◎ 이래서 정답

- ⑤ **누가** ‘나’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 끝내 입을 열지 못’한 것은 판돌로부터 모든 사실을 듣고 자신이 복수할 처지가 아니라 용서를 구해야 할 처지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보기〉에 언급된, 한을 품게 한 대상과의 재회를 통해 인식이 전환되어 한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는 것에 해당한다. 한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잃었다고 볼 수 없다.

#### ❖ 왜 오답

- ① **누가** ‘나’는 고향으로 내려와 아버지를 죽인 판돌을 만난다. 이는 한을 품게 한 대상과의 재회라고 할 수 있다.
- ② **누가** ‘나’의 아버지는 판돌에게 죽임을 당하였는데 이는 〈보기〉에 언급된, 가족이 겪은 비극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인공의 내면에 한이 형성되는 이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누가** ‘나’는 고향에 와서야 판돌을 만나게 되었으므로, ‘나’가 고향을 떠나 있었던 것은 소통의 단절로 인해 한을 해소할 기회를 얻지 못한 이유로 볼 수 있다.
- ④ **누가** 판돌은 ‘나’에게 한의 대상이다. 그러나 판돌의 이야기를 들은 나는 ‘어둠에 묻힌 먼 하늘을 바라보기조차 부끄러워’한다. 이는 〈보기〉에 언급된 인식의 전환에 해당하며, 이러한 나의 인식 전환은 판돌이 박쇠의 유골을 찾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난다.

#### ⊕ 여휘

- **지리산 세석평전** 지리산 대략 1,500m 고도에 있는 고위평탄면. 잔돌이 많은 평야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임.
- **전환**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거나 바뀜.
- **유골** 주검을 태우고 남은 뼈. 또는 무덤 속에서 나온 뼈.



두껍전

누가	천상의 선관이었으나 죄를 짓고 적강한 두꺼비
언제 어디서	조선 시대 때
무엇을	• 박 판서의 셋째 사위가 된 두꺼비와 처가 식구들의 갈등 • 적강 모티프, 사위 박대 모티프, 변신 모티프
어떻게	전자적 작가 시점, 서술자의 개입
왜	죄를 짓고 적강한 선관의 속죄를 통한 승천의 과정을 서술함.

1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어떻게** 두꺼비와 장인의 대화에서 선관이었던 두꺼비가 인간에 내쳐진 사건의 **정황**을 드러내고 있다.

❖왜 오답

- ① **언제-어디서, 어떻게** 장인의 회갑 잔치 풍경, 두꺼비가 허물을 벗은 뒤 하늘에서 내려온 하인들의 모습 등을 묘사하고 있으나, 작중 상황을 희화화하고 있지는 않다.
- ② **어떻게** 허물을 벗은 두꺼비의 말을 듣고 즐겁기도 하고 한편 슬프기도 한 마음을 그치지 못하는 장인과 기뻐하는 장모의 모습에서 인물의 심리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의 역전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④ **어떻게** 꿈속의 장면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꿈과 현실을 교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⑤ **왜** 현실 세태와 자연물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2 답 ②

보기   오려 보기			
㉠	㉡	㉢	㉣
길	윗문	집	천상
언제-어디서			

◎이래서 정답

- ② **언제-어디서** 윗문(㉡)의 안쪽에서 분노한 두꺼비가 진언을 외워 허물을 벗자 하늘에서 하인들이 내려온다. 이 하인들은 두꺼비에게 문안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인물들로, 길(㉠)에서 두꺼비가 잡은 사냥감을 지고 오던 하인들과는 다른 인물들이다. 또한 두꺼비가 하인들을 불러 ㉠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문책하고 있지도 않다.

❖왜 오답

- ① **무엇을** ㉠에서 두 동서는 두꺼비에게 사냥한 것을 달라고 하였고, 두꺼비는 이를 허락하였다.
- ③ **무엇을** ㉡에서 두꺼비가 허물을 벗고 집(㉢) 사랑으로 이

동하자, 대감이 “어디에 계시며 뉘 댁 사람입니까?”라고 묻는다. 이를 통해 대감은 허물을 벗은 두꺼비가 자신의 사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무엇을** ㉢에서 대감의 부인이 “저렇게나 좋은 풍채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으리오.”라고 말하며 반기며 좋아하는 것을 통해 부인이 두꺼비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무엇을** 두꺼비가 천상(㉣)으로 가기 전에 장인에게 ‘빈 상자’를 올리며 잘 간수하라고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무엇을** 두꺼비는 두 동서들에게 사냥한 짐승을 주는 과정에서 두 동서의 등에 도장(㉠)을 찍고, 장인의 회갑 날에 두 동서의 등에 찍힌 표를 근거로 들어 두 동서들이 자신의 종이라고 주장한다. 이로 보아 ㉠은 계획한 일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두꺼비는 허물을 벗고 자신의 정체를 밝힌 후 천상에서 옥으로 된 가마(㉢)가 내려오자 “천명을 이기지 못하고 천상으로 올라”간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은 명령을 이행하는 데 쓰이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오답

- ① **무엇을** ㉠을 통해 두꺼비가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을 통해 두꺼비가 벌을 내리고 있지도 않다.
- ③ **무엇을** 두꺼비는 과거에 천상의 선관이었다고 하였을 뿐, 과거에 부귀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또 두꺼비는 현재 허물을 벗고 선관이 되었으므로 곤궁한 처지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④ **무엇을** ㉠은 두꺼비가 사냥한 짐승을 동서들에게 주며 찍은 것이므로, 위기 상황을 알리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두꺼비는 자신의 정체를 밝힌 뒤 ㉢을 타고 천상으로 올라가는데, 이전의 박대받던 상황을 위험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⑤ **무엇을** 두꺼비가 “나는 본시 ~ 등에 도장을 찍으니”라고 하였을 뿐, ㉠을 통해 경계심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은 두꺼비가 천상으로 올라가는 수단일 뿐, 가족들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답 ④

이 작품은 천상에서 쫓겨난 인물이 지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내용의 적강 모티프와 사위가 처가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사위 박대담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

㉠이래서 정답

- ④ **무엇을** 두 동서가 사냥한 것을 달라고 하자 두꺼비는 이를 허락한다. 이를 통해 두꺼비의 뛰어난 능력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것이 속죄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 오답

- ① **무엇을** 두꺼비가 진언을 외워 허물을 벗으니 하늘에서 하인들이 내려오고 두꺼비는 선관의 의복을 제대로 갖춘다. 이를 통해 숨기고 있었던 두꺼비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무엇을** 부인은 허물을 벗은 두꺼비를 보고 “저런가나 좋은 품체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으리오.”라고 말하며 반기며 좋아하였다. 이를 통해 두꺼비가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무엇을** 회갑 날 두꺼비 내외를 못 오게 한 이유가 ‘그네들이 두꺼비를 매우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박대를 당하는 두꺼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무엇을** 두꺼비가 장인에게 자신이 인간에 비를 잘못 내린 죄로 지상에 내려왔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두꺼비가 천상에서 쫓겨나 지상의 삶을 살게 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문해 공식 적용 모티프

적강 모티프	두꺼비 사위는 본래 천상에서 비를 내려 주는 선관이었으나, 인간에 비를 잘못 내린 죄로 두꺼비 허물을 쓰고 인간에 내려짐.
사위 박대 모티프	처가 식구들이 흉한 외모를 지닌 두꺼비 사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냥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장인의 회갑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등 박대함.
변신 모티프	두꺼비 사위가 허물을 벗고 본래의 모습을 되찾음.

+ 어휘

- **정황**: 일의 사정과 상황.
- **세태**: 사람들의 일상생활, 풍습 따위에서 보이는 세상의 상태나 형편.
- **곤궁**: 가난하여 살림이 구차함.
- **박대**: 정성을 들이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는 대접. = 푸대접.
- **속죄**: 지은 죄를 물건이나 다른 공로 따위로 비겨 없앰.

# 07 서술자와 시점

확인 1 답 (1) ○ (2) × (3) ○

㉠이래서 정답

- (1) 서술자는 소설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소설가가 만든 인물로, 소설 속에서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존재이다.
- (2)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과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 (3)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파악하여 서술한다.

확인 2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보기>의 서술자는 주인공인 ‘나’로, 혼란스러운 자신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왜 오답

- ② 서술자는 ‘나’로, 여러 서술자가 사건을 진술하고 있지 않다.
- ③ 서술자인 ‘나’의 복잡한 심리가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은 아니다.

확인 3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나’는 관찰하는 입장이므로, 황수건의 내면 심리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왜 오답

- ①, ② <보기>의 주인공은 어수룩한 황수건으로(②), 주변 인물인 ‘나’는 황수건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①).

확인 4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보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윤 직원 영감과 가족들의 심리까지 파악하여 서술하고 있다. 서술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물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서술하는 것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왜 오답

- ①, ② <보기>는 작품 밖에 위치한 서술자가(①) 사건뿐만 아니라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모두 파악하여 서술하고 있다(②).



### 눈사람 속의 검은 향아리

누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네에 찾아가 향아리를 깨뜨렸던 일을 회상하는 '나'
언제 어디서	• 1990년대, 1970년대(어린 시절) • 신도시, 미아리 동네(어린 시절)
무엇을	• 어린 시절에 변소에 갔다가 욕쟁이 할머니의 찌지 단지를 깨뜨리고 가출했던 사건 • '나'의 성장의 계기가 되는 욕쟁이 할머니의 깨진 향아리
어떻게	1인칭 주인공 시점, 역순행적 구성(회상)
왜	세상을 깨닫게 된 유년의 추억과 기억의 터전이 소멸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서술함.

## 1 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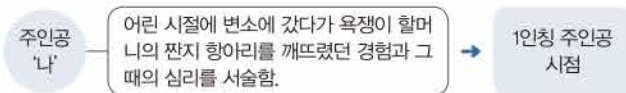
### 이래서 정답

- ② **어떻게** 이 글은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다.

### 왜 오답

- ① **어떻게** 부분적으로 인물 간의 대화가 제시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서술자의 심리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
- ③ **어떻게** 대화와 외화를 넘나드는 액자식 구성은 사용되지 않았다.
- ④ **어떻게** 이 글의 서술자는 주인공인 '나'로, 자신의 심리를 직접 전달하고 있다. 주변 인물을 서술자로 내세우지 않았다.
- ⑤ **어떻게** 서술자는 작품 안에 있는 '나'이므로, 작품 밖에서 인물의 심리를 직접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니다.

### 문제 공식 적용 1인칭 주인공 시점



## 2 답 ②

### 이래서 정답

- ② **누가, 무엇을** '나'는 주문을 외운 후, 깨진 향아리를 눈사람 속에 숨기는 생각이 떠올라 기뻐하고 있다.

### 왜 오답

- ① **누가, 무엇을** '나'는 욕쟁이 할머니의 단지를 깼 후 입술을 파르르 떨며 당황하고 있으므로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③ **누가, 무엇을** 현정이 아빠와 대화하기 전 '나'는 깨진 단지를 들키지 않으려고 장갑도 끼지 않은 손으로 눈을 긁어 모아 숨기는 등 초조하고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나'가 의기양양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누가, 무엇을** 가출 후 돌아온 '나'는 눈사람과 깨진 찌지 단지

가 깨끗하게 치워진 마당을 보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 ⑤ **누가, 무엇을** 혼날 것을 두려워하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자신을 혼내지 않아서 혼돈스러워하고 불안해하던 '나'는 엄마가 볼을 꼬집자 그제야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

## 3 답 ⑤

### 이래서 정답

- ⑤ **누가** 찌지 단지를 깨고 혼날 것이 두려워 가출했다 돌아온 '나'는 어른들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집 안의 상황은 '나'와 상관없이 무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혼돈과 불안함을 느껴 눈물을 흘린 것이다.

### 왜 오답

- ① **누가** '나'는 혼돈과 불안함을 느꼈기 때문에 운 것이지, 어른들이 잘못을 용서해 준 것이 고마워서 운 것이 아니다.
- ② **누가** '나'가 겨울날 해 질 녘에 귀가하며 쓸쓸함을 느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운 것은 아니다.
- ③ **누가** 혼날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집으로 돌아온 '나'가 가출을 감행해야만 했던 스스로의 처지를 슬프게 느꼈다고 볼 근거는 없다.
- ④ **누가** '나'는 예상과 달리 어른들이 자신을 혼내지 않자 혼돈과 불안함을 느꼈을 뿐, 분노를 느끼지는 않았다.

## 4 답 ②

### 이래서 정답

- ② **누가** '나'는 장갑도 끼지 않은 손으로 서둘러 눈사람을 만들어 깨진 향아리를 은폐한 뒤, 집 밖으로 나온 현정이 아빠와 천연덕스럽게 대화하고 있다. 이로 볼 때 '나'가 내면적으로 갈등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왜 오답

- ① **무엇을** 미숙한 어린 시절의 '나'가 '깨진 단지' 사건을 계기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무엇을** '방학 숙제로 낼 일기'를 언급하는 것에서 이 글이 어린 시절의 경험을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언제, 어디서** '나'는 가출하고 돌아와서 '나를 둘러싼 세계'를 낯설게 느낀다. 이는 <보기>에 언급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각성과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⑤ **어떻게** '그렇게 컸다'는 성인이 된 '나'가 향아리를 깨뜨렸던 어린 시절의 체험을 떠올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 + 어휘

- 감행: 과감하게 실행함.

논 이야기

누가	광복이 되자 일본인에게 판 땅을 되찾으리라는 기대를 가졌다가 좌절하는 한덕문
언제 어디서	• 광복 직후 • 군산 부근의 농촌 마을
무엇을	한덕문이 일본인에게 땅을 팔았으나 광복 후 그 땅이 국가 소유가 됨에 따라 일어난 갈등
어떻게	전지적 작가 시점, 역순행적 구성(회상), 풍자
왜	정부의 토지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소시민적 이기주의에 대해 풍자함.

1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어떻게** ‘한덕문은 혼자 속으로는 아뿔싸 ~ 심히 후회하여 마지아니하였다.’, ‘한덕문은 장차에 일인들이 쫓기어 가리라는 것을 확인할 아무런 근거도 가진 것이 없었다. 따라서 자신도 없었다.’, ‘듣는 사람마다 그의 회떠움을 혹은 실없음을 웃었다. / 하는 양을 보느라고 위정’, ‘털고 일어서면서’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글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와 행동 등을 모두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왜 오답

- ① **어떻게** 작품 속 인물이 다른 인물을 관찰하여 서술하는 것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② **어떻게** 작품 속 인물이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서술하는 것은 1인칭 시점이다.  
 ④ **어떻게**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말과 행동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관찰하는 것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⑤ **어떻게**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장면마다 서술자가 바뀌지 않는다.

문제 공식 적용 전지적 작가 시점

심리	• ‘한덕문은 혼자 속으로는 아뿔싸 ~ 심히 후회하여 마지아니하였다.’ • ‘한덕문은 장차에 일인들이 쫓기어 ~ 따라서 자신도 없었다.’ • ‘듣는 사람마다 그의 회떠움을 ~ 하는 양을 보느라고 위정’
행동	‘털고 일어서면서’

→ 전지적 작가 시점

2 답 ⑤

이래서 정답

- ⑤ **무엇을** “그래 일인들이 죄다 내놓구 가는 것을 백성들더러 돈을 내구 사라구 마련을 했다면서?”라는 한덕문의 말을 통해 일본인들이 해방 후에 떠나며 땅을 내놓고 갔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이를 원래의 주인에게 다시 팔고자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왜 오답

- ① **무엇을** 한덕문이, 일인들이 다 쫓기어 가면 그 논이 도로 제 것이 될 터이라서 논을 팔았다고 한다더라는 소문이 퍼졌고, 마을과 인근에서 아주 호가 났다고 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누가** 한덕문은 논을 판 뒤 후회하였으나 ‘논을 판 명예롭지 못함과 어리석음을 싸기 위하여’, ‘배포 있어 장담을 탕탕’ 하는 등 괜찮은 척하였다.  
 ③ **누가** “일인들이 다 쫓겨 가면 그 논 도루 내 것 되지 갈 데 있나?”, “암만 팔았어두, 길천이가 내놓구 쫓겨 갔은깐 도루 내 것이 돼야 옳지, 무슨 말야.”라는 한덕문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누가** “일인의 재산이 우리 조선 나라 재산이 되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라는 구장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답 ⑤

| 보기 | 오래 보기

일제의 토지 정책으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땅을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해방 직후 토지의 소유 문제는 중요한 현안이었다. ... 땅을 갖고 싶다는 농민의 소망을 저버린 정부의 토지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독립의 역사적 의미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의식도 담고 있다.

언제 어디서 왜

이래서 정답

- ⑤ **누가** 한덕문은 독립이 된 후에 자신이 길천에게 팔았던 땅이 나라의 재산이 된다는 것에 분노하며 “독립 됐다고 했을 제 내 만세 안 부르기 잘했지.”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한덕문의 모습은 개인적 이익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기>의 ‘독립의 역사적 의미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모습에 해당한다.

왜 오답

- ① **누가** 한덕문은 길천에게 땅을 팔았으므로 길천이 한덕문의 토지를 강제로 뺏었다고 할 수 없다.  
 ② **누가** 구장은 해방 전 한덕문이 길천에게 팔았던 땅이 해방 후에는 국가의 재산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구장이 정부의 토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누가** 한덕문의 친구는 한덕문이 땅을 판 것을 책망하고 있을 뿐, 한덕문을 옹호하고 있지 않다.  
 ④ **누가** 한덕문은 자신이 길천에게 판 땅이 도로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 땅을 돈을 내고 사라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덕문이 정부의 토지 정책을 지지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문제 공식 적용 풍자

독립을 개인적 이익과 관련해서만 생각하는 한덕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없네. 난 오늘버튼 도루 나라 없는 백성이네."</li> <li>• "독립 됐다고 했을 제 내 만세 안 부르기 잘했지."</li> </ul>



소시민적 이기주의를 풍자함.

## 4 답 ④

### 이래서 정답

- ④ **누가** 한덕문은 일본인 길천에게 논을 판 뒤에 장차 일인들이 쫓기어 가리라는 것을 확인할 근거도 없이, 사람들 앞에서 일인들이 다 쫓기어 가면 그 논이 도로 제 것이 될 것이라며 장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시작하여 놓고 성공을 자신하는 사람을 비꼬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왜 오답

- ① **누가** 친구나 사람들의 말에도 한덕문은 겉으로는 장담하고 있으므로 **쫓대** 없이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린다고 보기 어렵다.
- ② **누가** 한덕문은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있지 않다.
- ③ **누가** 한덕문은 해방 후 길천에게 팔았던 땅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성과를 거두려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⑤ **누가** 한덕문은 논을 판 일을 후회하면서도 겉으로는 큰소리를 치고 있을 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다.

### + 어휘

- **위장** '일부러'의 방언.
- **소작농** 일정한 소작료를 지급하며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려 짓는 농사. 또는 그런 농민.
- **현안** 이전부터 의논하여 오면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문제나 의안.
- **쫓대** 자기의 처지나 생각을 곳곳이 지키고 내세우는 기질이나 기풍.

#### 도요새에 관한 명상

누가	고향에서 무기력하게 지내던 중 환경 오염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형 병국, 금전적 가치를 중시하며 이기적인 동생 병식, 고향을 그리워하는 실랑민인 아버지
언제 어디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0년대, 6.25 전쟁(화상)</li> <li>• 전라북도 동진강 유역</li> </ul>
무엇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화 진행에 따른 환경 오염 문제, 민족 분단의 문제</li> <li>• 아버지에게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병국에게는 자유를 상징하며 병식에게는 돈벌이 수단인 도요새</li> </ul>
어떻게	1인칭 주인공 시점(1, 2, 3부), 전지적 작가 시점(4부), 역순행적 구성(회상)
왜	민족의 비극적 역사 현실에 대한 인식과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비판을 서술함.

## 1 답 ③

### 이래서 정답

- ③ **어떻게** 이 글에서 서술자인 '나'는 개펄에서 새 떼를 만난 체험을 바탕으로 도시의 생활 환경이 자연을 파손시키는 것이 문제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왜 오답

- ① **어떻게** 서술자인 '나'는 현실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으므로 어리숙한 인물이라 할 수 없고, 해학적인 부분도 찾을 수 없다.
- ②, ④ **어떻게** 서술자는 주변 인물이나(②) 관찰자가(④) 아니라 주인공인 '나'이다.
- ⑤ **어떻게** 서술자는 작중 인물인 '나'이다.

## 2 답 ④

### 이래서 정답

- ④ **누가** ㉠에서 '나'가 도요새의 재잘거림을 꿈이나 환청으로 들어 왔다는 것은 [A]에 제시된 것과 같은 생각을 '나'가 끊임없이 되풀이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에서 인물이 도요새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왜 오답

- ① **누가** ㉠에서 새떼가 의식의 공간을 무한대로 휘저었다는 것은 '나'의 머릿속이 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의미한다.
- ② **누가** ㉡에서 도요새 무리가 도래할 시절을 만해 한용운 시의 임처럼 기다렸다는 것은, 계절이 바뀌어 도요새가 다시 날아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의미한다.
- ③ **누가** ㉢에서 닫힌 문과 같이 자유스럽지 못한 '나'의 사고의 상태를 도요새가 부리로 쪼았다는 것은, '나'의 의식이 도요새에 의해 각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⑤ **누가** ㉣에서 '나'가 석교천과 동진강을 예전의 자연수 상태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수천 번 반복함으로써 자기 최면에

걸렸다는 것은, '나'의 의지가 그만큼 확고함을 의미한다.

### 3 답 ②

#### ㉠이래서 정답

- ② **어떻게** [A]에서는 도요새가 사람처럼 말을 한다는 우화적 장치를 통해 자연의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 세계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왜 오답

- ① **어떻게** [A]에 도요새들 간의 논쟁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언제-어디서** [A]의 '우리는 여름에 그 한대의 ~ 여행길에 오른다.'에서 도요새의 이동에 따른 공간 변화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요새 무리의 갈등이나 그 해소 과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어떻게** [A]에서 '지구의 반을 가로지르는 여행길'은 도요새의 이동을 나타낸 것일 뿐 비행경로로 볼 수 없으며, 인간 문명의 발전 과정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어떻게** [A]에서 도요새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4 답 ④

#### ㉠이래서 정답

- ④ **무엇을** 이 글의 '도요새'는 '나'에게 깨달음을 주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또 작은 심장으로 숨 가빠하면서도 일정 속도로 분명한 행로를 따라 지구의 반을 가로지르는 여행을 하는 모습을 통해 교훈을 주고 있다. 한편 <보기>의 '매화'는 연약해 보였으나 눈 속에서도 꽃을 피워 낸 강인한 존재로 화자에게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

#### ㉡왜 오답

- ① **무엇을** 도요새는 '나'로 하여금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각성시키고 있을 뿐, 자신감을 주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보기>의 화자는 매화를 보며 감탄하고 있을 뿐, 자존감을 잃고 있지 않다.  
 ② **무엇을** '나'가 도요새를 통해 생각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도요새를 '나의 욕망이 투영된 존재'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보기>의 매화는 화자가 극복해야 할 존재가 아니다.  
 ③ **무엇을** <보기>의 매화는 화자가 관찰하고 있는 독립된 존재이지만, 도요새는 '나'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다.  
 ⑤ **무엇을** 어려운 상황을 이겨 내고 꽃을 피우는 <보기>의 매화는 화자가 추구하는 이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도요새를 통해 환경에 관심을 갖고 수질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으므로 도요새는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나'의 태도를 표상한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 08 서술자의 개입, 초점화

### 확인 1 답 (1) × (2) ○ (3) ○

#### ㉠이래서 정답

- (1) 서술자는 작품에 끼어들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이를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한다.  
 (2)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한다.  
 (3)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면서도 때에 따라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내면에 집중하여 그의 생각, 감정, 시각 등을 서술하는 것을 '초점화'라고 한다.

### 확인 2 답 ③

#### ㉠이래서 정답

- ③ ㉠에서는 '그 아름다움이 측량없더라.'라며 서술자가 개입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왜 오답

- ① ㉠에서는 원수가 꿈속에서 천상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② ㉡에서는 '한 노인'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다.

### 확인 3 답 ③

#### ㉠이래서 정답

- ③ (가)의 '유복은 활달한 영웅이요 ~ 어진 사람을 곤궁 속에 던져두시겠는가.'와 (나)의 '명진이 불의에 난을 ~ 추풍낙엽일네라 뉘 능히 당하리요?'에서 서술자가 등장인물과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 ㉡왜 오답

- ① (나)에서는 원수가 장안으로 향했기 때문에 호왕이 명진을 침입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고, 서술자는 이를 '불의의 난'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에서는 서술자가 사건의 원인을 밝혀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지 않다.  
 ② (가), (나) 모두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관찰하여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지 않다.

### 확인 4 답 ①

#### ㉠이래서 정답

- ① 서술자는 작품 속 주인공이 아니라 작품 밖에 있다.

#### ㉡왜 오답

- ②, ③ 서술자는 응오에 서술의 초점을 맞춰(②) 그의 행동뿐 아니라 내면 심리까지 모두 서술하고 있다(③).



### 사씨남정기

누가	유 한림의 정실로 총명하고 신중하며 고매한 인품을 지닌 사 씨, 유 한림의 첩으로 정실이 되기 위해 사 씨를 모함하는 간교한 교 씨, 선하지만 수동적이고 나약한 유 한림
언제 어디서	명나라 때
무엇을	• 정실인 사 씨와 첩인 교 씨 간의 갈등 • 사 씨와 유 한림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앞일을 예고하는 꿈
어떻게	전지적 작가 시점, 서술자의 개입, 순행적 구성
왜	처첩 간의 갈등과 사 씨의 고행, 권선징악을 서술함.

## 1 답 ③

### 이래서 정답

- ③ **어떻게**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되고 있으므로, 시간의 역전적 구성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왜 오답

- ① **왜** 이 글은 유 한림의 집안을 배경으로 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어떻게** '자고로 여자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못할 일이 없는 법이라.'에서 서술자가 개입하여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한림은 교 씨의 유혹에 빠져 ~ 어찌 안타깝지 아니하랴.'에서 서술자가 개입하여 안타까운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 ④ **누가, 무엇을** 규방 여인의 법도를 지키는 사 씨와 악행을 저지르는 교 씨 사이의 선악 대결, 유 한림과 사 씨, 교 씨의 삼각관계를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⑤ **무엇을** 장주가 병에 걸리자 십량이 말한 계책을 실행할 때가 왔다고 한 것을 통해, 사건이 진전되어 갈등이 심화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문해 공식 적용 서술자의 개입

서술자의 개입	• '자고로 여자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못할 일이 없는 법이라.' • '한림은 교 씨의 유혹에 빠져 총명이 점점 흐려져 사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니 어찌 안타깝지 아니하랴.'
---------	---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냄.

## 2 답 ⑤

### 이래서 정답

- ⑤ **어떻게** [A]에서는 동청이 살아온 과정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 왜 오답

- ① **누가, 어떻게** [A]에서 동청이 겪은 일들을 나열하고는 있으

나, 동청의 성격은 변화하고 있지 않다.

- ② **어떻게** '잘생긴 얼굴'이라고 동청의 외양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청의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형상화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어떻게** 동청이 일찍 부모를 여윈 후 재산을 탕진하고 생계가 막연했던 처지였음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비유적 진술은 사용되지 않았다.
- ④ **어떻게** [A]에서는 서술자가 동청에 대해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작중 인물의 시각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동청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 3 답 ①

### | 보기 | 오래 보기

문학 작품은 시대적 이념이나 당대 사회상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문학 작품을 통해 당대의 세태와 관습뿐 아니라 인간관계나 사회적 위계, 지배적 이념 등에 대한 가치관을 다각도로 확인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

### 이래서 정답

- ① **언제-어디서** 석 낭중이 유 한림에게 동청을 소개한 것은 동청의 정체를 알아차렸기 때문이므로, 석 낭중의 행동은 자신의 부담을 남에게 떠넘긴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당시의 세태와는 관련이 없다.

### 왜 오답

- ② **언제-어디서** 사 씨는 동청이 정직하지 않아 배척받았다는 말을 듣고, 동청을 집안에 두어 법도가 잘못될 것을 걱정하며 동청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 이를 통해 도덕성과 평판을 중시하는 당시 가치관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언제-어디서** 동청을 내보내자는 사 씨에게 유 한림은 "부인은 걱정 말고 집안 하인들이나 잘 다스려 법도가 어지럽지 않게 하오."라고 말하며 사 씨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남녀 사이에 역할과 위계가 있다고 생각하던 당시의 사회적 관념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언제-어디서** 교 씨가 "남의 첩이 되어 장차 앞길이 어떻게 될지 기약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말하며 사 씨를 해치기 위해 모의를 하는 것에서 축첩 관행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언제-어디서** 교 씨가 방자에 쓰이는 요망한 물건들을 사방에 두루 묻고 음모를 꾸미는 것을 통해 주술에 대한 사회적 믿음을 짐작할 수 있다.

## 4 답 ②

### 이래서 정답

- ② **누가** ㉠에서 사 씨는 좋지 않은 사람과 있으면 잘못된 길

로 빠질 수 있다며 동청으로 인해 집안에 문제가 생길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와 뜻이 가장 가까운 것은 ‘ 좋지 못한 사람과 사귀게 되면, 그를 닮아 악에 물들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이다.

❖ 왜 오답

- ① **누가** ‘뱀새가 황새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는 ‘힘에 겨운 일을 억지로 하면 도리어 해만 입는다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누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누가** ‘동냥치가 동냥치 꺼린다’는 ‘자기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부탁할 때 다른 사람도 와 구하면 혹 제 일이 잘 안될까 봐 꺼린다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누가** ‘가재는 게 편’은 ‘모양이나 형편이 서로 비슷하고 인연이 있는 것끼리 서로 잘 어울리고, 사정을 보아주며 감싸주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어휘

- **조명**: 어떤 대상을 일정한 관점으로 바라봄.
- **법도**: 생활상의 예법과 제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입신양명**: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침.
- **관행**: 오래전부터 해 오는 대로 함. 또는 관례에 따라서 함.
- **요망**: 간사하고 영악함.

미스터 방

누가	신기료장수를 하다 광복 후 미군 장교의 통역관이 되어 출세한 방삼복, 친일파 지주였으나 광복 후 재산을 빼앗긴 백 주사
언제 어디서	• 광복 직후 • 서울
무엇을	• 기회주의적인 처세로 출세한 방삼복이 광복 후 몰락한 친일 지주 백 주사의 부탁을 들어주마 장담하는 사건, 방삼복의 출세에 영향을 미친 S 소위와 그에게 양치물을 받은 방삼복의 갈등 • 인물의 품격에 맞지 않는 호칭인 ‘미스터 방’
어떻게	전지적 작가 시점, 초점화, 풍자, 희화화
왜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광복 직후의 혼란한 사회상에 대해 풍자하고 비판함.

1 답 ③

❖ 이래서 정답

- ③ **누가** 방삼복은 아내가 전해 준 각봉투를 뜯어보고는 적은 돈을 두고 간 서 주사를 비난하면서, 자신이 미군 옴피에게 말하면 그가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위협한다. 또 자신의 말 한마디에 죽을 사람도 살고 살 사람도 죽는다고 하며 그 말을 듣고 있는 백 주사에게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

❖ 왜 오답

- ① **누가** 방삼복이 아내나 백 주사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 ② **누가** 방삼복은 술을 정중으로 가져오느냐는 아내의 질문에 정중을 데워 오라고 대답하였으므로, 상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도록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④ **누가** 방삼복은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차에서 내린 뒤, 어찌다 눈이 마주친 백 주사에게 먼저 알은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동승자인 서양 사람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⑤ **누가** 방삼복은 출세한 뒤에 만난 백 주사가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자,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 이를 방삼복이 백 주사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답 ①

❖ 이래서 정답

- ① **누가** ㉠에는 해방 직후 미군의 권력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방삼복의 부정적 모습이, ㉡에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권력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백선봉의 부정적 모습이 드러나 있다.

❖ 왜 오답

- ② **누가** ㉠에서 미군과 방삼복의 권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역



전된 모습이나 ㉠에서 일본과 백선봉의 권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 ③ **누가** ㉠과 ㉡에 방삼복이나 백선봉이 몰락하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 ④ **누가** ㉠에 권력을 향한 방삼복의 조바심이나 ㉡에 권력에 의한 백선봉의 좌절감은 드러나 있지 않다.
- ⑤ **누가** ㉠에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방삼복의 확신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에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백선봉의 자신감은 드러나 있지 않다.

### 3 답 ③

#### 이래서 정답

- ③ **누가** ㉢의 '개전에서 용 난다'는 '미친한 집안이나 변변하지 못한 부모에게서 훌륭한 인물이 나는 경우를 이르는 말'로, 과거와 달리 신수가 좋아진 방삼복에 대한 백 주사의 심리를 드러낸다. 그런데 백 주사는 자신에게 무엄스럽게 구는 방삼복의 태도를 불쾌하게 여기고 있으므로 그가 고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왜 오답

- ① **누가** ㉣는 빼앗긴 재물을 찾으려 하지만 그럴 방법을 찾지 못하는 백 주사의 상태를 강조하여, 그의 답답한 처지를 보여 준다.
- ② **누가** ㉤는 출세한 방삼복을 보고 놀라던 백 주사가 방삼복의 집에 끌려와 얼떨떨한 상태임을 보여 준다.
- ④ **누가** ㉥는 자신의 초라한 처지와 출세한 방삼복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어 있는 백 주사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⑤ **누가** ㉦에서 백 주사가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을 한 것은 거만하게 행동하는 방삼복에게 반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백 주사가 참은 것은 방삼복을 통해 빼앗긴 재물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이다.

### 4 답 ⑤

#### | 보기 | 오래 보기

... 서술자는 그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다. ...

어떻게

#### 이래서 정답

- ⑤ **어떻게** [E]에서 '백 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는 백 주사의 시선으로 초점화된 부분으로 볼 수 없다.

#### 왜 오답

- ① **어떻게** [A]에서 '남들은 주린 창자를 졸라맬 때'라는 '남들'

의 굶주린 생활과, '그의 광에는 옥 같은 정백미가 ~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라는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이 비교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일본의 권력에 기대어 풍요롭게 생활하던 백선봉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 ② **어떻게** [B]에 나열된, 백선봉이 부정하게 모은 물건들은 군중이 백선봉의 집을 습격했을 때 나온 것이다. 이를 통해 독자는 백선봉이 가진 재산의 실상을 목격한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어떻게** [C]에서 '있었더라'는 누군가에게 들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만 원어치 여편네의 ~ 저금통장은 고만두고 말이었다.'에서 서술자는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군중이 찾아낸 백선봉의 재물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는 '군중'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다.
- ④ **어떻게** [D]의 '백 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는 서술자가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백 주사의 만행을 드러낸 것이다. 이를 통해 독자는 백 주사가 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느낄 수 있다.

#### 문해 공식 적용 초점화

군중의 시선	'만 원어치 여편네의 패물과 ~ 만 원짜리 저금통장은 고만두고 말이었다.'
동네 사람의 시선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 백 주사네 집을 습격하였다.'
백 주사의 시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독자들을 백 주사와 그의 가족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 서게 함.

#### + 어휘

- **엠포**: 군사 경찰의 구실을 하는 병과. 또는 그런 군인 = 헌병.
- **무엄스럽게**: 보기에 삼가거나 어려워함이 없이 아주 무례한 데가 있게.
- **주눅**: 기운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움츠러드는 태도나 성질.
- **만행**: 아만스러운 행위.
- **빌미**: 재앙이나 탈 따위가 생기는 원인.

어떤 유서

누가	국가사업으로 농토가 수용된 후 보상의 부당함을 호소하다 죽은 송 노인
언제 어디서	• 1970년대 • 낙동강 일대의 농촌
무엇을	• 산업 개발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토지를 침탈한 권력자와 토지를 상실한 송 노인 간의 갈등 • 부당 환지를 받은 송 노인과 토지 환수 문제를 가깝게 여기는 마을 젊은이들 사이의 갈등
어떻게	전지적 작가 시점, 초점화
왜	부당한 토지 침탈로 인한 농민들의 비참한 삶을 서술함.

1 답 ⑤

㉠ 아래서 정답

- ⑤ **어떻게** ‘그는 자기에게 내려진 부당한 처사를 참을 수가 없었다.’, ‘송 노인은 상출의 얼굴에 ~ 판국이라고 송 노인은 생각했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글은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송 노인의 입장에서 환지와 관련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왜 오답

- ① **어떻게** 이 글은 부당한 환지와 관련한 송 노인과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외부 이야기에 내부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지 않다.
- ② **어떻게**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인물들의 경험이 삽화 형식으로 나열되어 있지는 않다.
- ③ **어떻게** 송 노인의 유서 내용이 언급되고는 있으나, 인물의 회상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를 반복하여 교차하고 있지는 않다.
- ④ **어떻게** 이 글은 같은 시간에 벌어지는 다양한 장면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문제 공식 적용 초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는 자기에게 내려진 부당한 처사를 참을 수가 없었다.’</li> <li>• ‘송 노인은 상출의 얼굴에 ~ 판국이라고 송 노인은 생각했다.’ 등</li> </ul>	→	<b>서술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 밖에 위치함.</li> <li>• 송 노인의 내면에 주목함.</li> </ul>
---	---	--

2 답 ④

㉠ 아래서 정답

- ④ **누가** ㉡에서 송 노인은 과거에 자신이 농민 조합에 가담했던 일을 빨갱이 취급하는 이들에 대한 분노를 드러낼 뿐, 그 일이 실수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다.

㉡ 왜 오답

- ① **누가** 자신의 좋은 땅을 뺏기고 나쁜 땅을 받아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된 송 노인은 ㉠에서 “죽일 놈들!”이라고

말하며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있다.

- ② **누가** ㉠에서 송 노인은 고속 도로가 생기면 집에 가게를 차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다르게, 가게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망했다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누가** ㉠에서 송 노인은 과거 자신이 농민 조합에 가담했던 것을 빨갱이 단체에 가담한 것으로 왜곡하는 젊은이들에게 생사람 잡을 소리라며 화를 내고 있다.
- ⑤ **누가** ㉡에서 송 노인은 부당한 환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철딱서니 없는 놈들”이라고 생각하며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

3 답 ②

㉠ 아래서 정답

- ② **무엇을** ‘마을 환지 위원들 가운데는 그런 억울한 변을 당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통해, 마을의 환지 위원들 중에는 부당한 환지를 받은 사람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 왜 오답

- ① **무엇을** “그래 농민 조합에 가담한 기 그렇게 나쁜 일인가?”라는 송 노인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무엇을** ‘송 노인의 경우는 도합 천오백열 평 중 ~ 말도 안되는 박토——산을 깎은 개간지를 환지로서 받았던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무엇을** ‘새어 나온 그의 유서 내용에 의하면 ~ 농업진흥공사 × × 사업소에는 6회나 찾아간 것으로 되어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무엇을** 송 노인이 상출을 향해 빼만 남은 팔을 걷어 올리자, 송 노인의 성깔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메기입(이성복동장)이 얼른 사이에 들었고 다행히 별일은 없었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4 답 ③

| 보기 | 오래 보기

이 작품은 1970년대 국가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권력자들에게 토지를 침탈당하는 농민들의 현실을 보여 준다. ... **왜**

㉠ 아래서 정답

- ③ **왜** 바로 길 너머 눈에 두엄을 가져가기 위해 농민들이 먼 굴다리 쪽을 일부러 돌아야만 하는 모습은 권력이 휘두르는 폭력으로 피해를 입고 불편을 겪는 농민들의 상황을 드러낸 것일 뿐, 세대 간의 갈등과는 관련이 없다.

㉡ 왜 오답

- ① **왜** 부당한 환지를 받고도 정부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항의하지 못하는 농민들의 모



습은 권력자들에 의해 토지를 침탈당한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보여 준다.

- ② **왜** 고속 도로가 통하면 송 노인의 집에 가게도 차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이성복 동장은 마을의 환지 위원장이다. 그는 개발에 동조하고 있는 중간자이므로 가해자의 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왜** 부당한 환지 문제에 대해 “세상이 그런 걸 머!”라고 체념하는 노인들은 권력이 휘두르는 폭력 앞에 무기력하게 방관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⑤ **왜** 어른들은 뒤로 물러났고 젊은이들이 마을 일을 도맡듯 하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틈이 생기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세대 간의 갈등으로 분열되며 파편화되어 가는 농민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 어휘**

- **판국**: 일이 벌어진 사태의 형편이나 국면.
- **가담**: 같은 편이 되어 일을 함께 하거나 도움.
- **동조**: 남의 주장에 자기의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보조를 맞춤.
- **방관**: 어떤 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함.
- **파편화**: 깨어지거나 부서져 여러 조각으로 나뉘. 또는 그렇게 나뉘.

**어떻게 09 제시 방법**

**확인 1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서술자가 양반의 성격에 대해 ‘어질고 책 읽기를 좋아’한다고 직접 이야기해 주고 있다.

**확인 2 답 (1) × (2) ○**

**이래서 정답**

- (1) ㉠에서는 감자를 도로 밀어 버리는 ‘나’의 행동을 통해 무뚝뚝한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2) ㉡에서는 흥당무처럼 새빨개진 점순이의 얼굴 묘사를 통해 부끄럽고 불안한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확인 3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지금으로부터 구 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내용을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

**왜 오답**

- ① 인물 간의 대화가 드러나 있지 않다.
- ③ 과거에 대해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하고 있지 않다.

**확인 4 답 (1) ○ (2) ×**

**이래서 정답**

- (1) ‘각설’의 앞부분은 원수가 금표통을 받은 뒤 황성으로 향하는 장면이고, 뒷부분은 무사가 애운을 잡아가는 장면이다. ‘각설’ 이후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며 인물, 사건, 배경이 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해 장황하게 서술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확인 5 답 (1) 당황하는 (2) 극대화**

**이래서 정답**

- (1) 어사출두로 인해 허둥지둥하며 당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2) 어사출두로 당황한 사람들의 모습을 짧은 어구로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면의 극대화를 통해 해학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복덕방

누가	사업에 실패하고 딸에게 의존하며 궁핍하게 살아가는 안 초시, 안 초시의 친구로 과거에 장교로 지내다 지금은 복덕방을 차려 먹고사는 서 참위, 서 참위의 친구로 대서업 준비를 위해 복덕방에서 일본어 공부를 하는 박희완 영감, 유명한 무용가로 개인을 중시하며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안 초시의 딸(안경화)
언제 어디서	• 1930년대 • 서울 변두리의 한 복덕방
무엇을	• 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일확천금을 노리는 안 초시와 아버지를 귀찮아하며 이해타산적으로 대하는 안 초시의 딸 사이의 갈등, 구세대를 상징하는 세 노인(안 초시, 서 참위, 박희완 영감)과 신세대를 상징하는 안 초시의 딸의 세대 간의 갈등 • 안 초시의 구차한 삶과 경제적 무능력을 상징하는 안경다리,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 소외된 계층의 공간인 복덕방
어떻게	전지적 작가 시점, 간접 제시, 요약적 제시
왜	근대화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소외된 세대의 서글픈 삶을 서술함.

1 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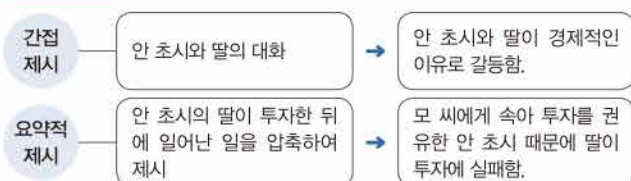
❶ 아래서 정답

- ② **무엇을, 어떻게** [A]에서는 대화와 서술을 통해 경제적인 이유로 안 초시와 그의 딸이 갈등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B]에서는 요약적 서술을 통해 박희완 영감과 안 초시를 속인 모 씨의 사연과 그로 인해 안 초시의 딸이 투자에 실패하게 된 사건을 압축하여 드러내고 있다.

❷ 왜 오답

- ① **어떻게** [A]에서는 안 초시와 그의 딸의 대화와 서술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을 뿐, 안 초시와 그의 딸에 대한 외양 묘사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B]를 통해 거짓 정보에 속은 박희완 영감의 처지와 안 초시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게 된 그의 딸의 처지 등은 알 수 있으나, 이를 배경 묘사를 통해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어떻게** [A]는 작품 밖 서술자가 서술하고 있으며, 사건을 평가하고 있지 않다. [B]는 작품 밖 서술자가 서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예측하고 있지는 않다.
- ④ **어떻게** [A]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B]는 1년 동안 있었던 사건과 알게 된 사실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무엇을** [A]에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향토적인 소재는 나타나 있지 않다. [B]에도 사건의 의미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소재는 나타나 있지 않다.

문해 공식 적용 사건 제시 방법



2 답 ④

❶ 아래서 정답

- ④ **누가** ㉠에서 딸이 아버지에게는 단 1전도 주지 않고 돈을 쓰며 처리할 청년을 따로 보낸 것을 통해 안 초시의 딸이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❷ 왜 오답

- ① **누가** 안 초시는 테만 오륙 원짜리 하는 안경에 50전짜리 다리를 짹짹이로 붙이는 것은 볼품없다고 생각해 50전짜리 안경다리는 사지 않고, 종이 노끈으로 테를 묶어서 쓰고 있다. 따라서 ㉠에는 저렴한 안경다리는 사지 않겠다는 안 초시의 자존심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누가** 보험료가 한 달에 3원 80전씩 나간다는 딸의 말이 '보험료나 타 먹게 어서 죽어 달라는 소리'로 들렸다는 것으로 보아, ㉠에는 딸에 대한 서운함이 담겨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누가** '딸 편이 먼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었'다는 것으로 보아, ㉠에서 안 초시의 딸은 안 초시가 전해 준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누가** 안 초시는 딸에게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지만 1년 후 딸의 투자가 실패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에서 안 초시는 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 때문에 딸과 마주할 자신이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답 ①

❶ 아래서 정답

- ① **왜** 안 초시는 축항이 된다는 거짓 소문을 믿고 딸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안 초시의 딸은 투자를 하게 된다. 따라서 안 초시가 투자를 권유한 부지는 건설 사업이 확정된 부지로 볼 수 없으며, 부지에 투자한 사람도 안 초시가 아니라 안 초시의 딸이다.

❷ 왜 오답

- ② **왜** 안 초시는 한 번의 투자를 통해 큰 이익을 얻으려 하고 있으므로, 한탕주의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왜** 안 초시의 딸이 축항 사업에 대한 정보를 듣고 투자를 위해 '연구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모습은 당시의 투기 열풍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왜** 축항 후보지로 측량까지 하였으나 중지된 땅을 다시 팔기 위해 연극을 한 모 씨는 자신의 피해를 사기로 만회하려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 ⑤ **왜** 안 초시의 권유로 한 투자에 실패한 딸이 안 초시를 외면하자 그는 재물이 '친자 간의 의리도 배추 밑 도리'듯 한다고 탄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가족보다 물질을 더 중시하는 물질 만능주의의 어두운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4 답 ①

##### ◎ 이래서 정답

- ① **무엇을** 안 초시가 부러진 '안경다리'를 고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안경다리'는 형편이 어려운 안 초시의 처지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 왜 오답

- ② **무엇을** 안 초시의 성격이 강직하고 청렴하다고 할 수 없고, '안경다리'가 이러한 성격을 보여 준다고 할 수도 없다.
- ③ **무엇을** 안 초시는 궁핍하게 생활하고 있으므로, '안경다리'가 안 초시의 한가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나타낸다고 할 수 없다.
- ④, ⑤ **무엇을** 안경이 돈을 줌 주무르던 시절에 장만한 것이라고는 하였으나, '안경다리'가 안 초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상징(④)한다거나, 좌절감을 완화(⑤)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어휘

- **향토적**: 고향이나 시골의 정취가 담긴 것.
- **출자**: 자금을 내는 일. 특히 회사나 조합 따위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자본을 내는 일을 이른다.
- **한탕주의**: 한 번의 시도로 큰 재물을 얻거나 크게 성공하려는 태도를 속되게 이르는 말.
- **투기**: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이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매매 거래.
- **강직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곧고.
- **청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

#### 권익증전

누가	재주와 풍모가 뛰어난 권익중, 천상에 올라가 선녀가 된 이춘화, 권익중과 이춘화의 아들인 권선동
언제 어디서	• 명나라 때 • 천상과 지상
무엇을	• 권익중과 이춘화가 장애를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어 가는 과정, 권익중과 우인 중 진짜를 가리기 위한 갈등, 권선동의 무용담 • 혼사 장애 모티프, 진짜와 가짜가 다투는 진가쟁주 모티프
어떻게	전지적 작가 시점, 서술자의 개입, 영웅의 일대기 구성
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과 영웅의 활약을 서술함.

#### 1 답 ①

##### ◎ 이래서 정답

- ① **어떻게**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익중과 이 낭자의 대화를 통해 또다시 이별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익중의 슬픔이 드러나고 있다.

##### ❖ 왜 오답

- ② **무엇을** 진짜 익중이 가짜 익중과 대립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진짜 익중이 도리어 쫓겨났으므로, 이를 통해 주인공의 업적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 ③ **언제 어디서** 이 글에 구체적 시대 상황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전기적 요소가 많아 내용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어떻게**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될 뿐,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을 교차하고 있지 않다.
- ⑤ **언제 어디서** 공간적 배경에 대해 묘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문해 공식 적용 사건 제시 방법

익중의 말	이 낭자의 말
"가지 마시오, 못 가요. 기약 없이 못 가나니, 만정의 회포 풀지 못하고 간다는 말이 웬 말이요?"	"남군님은 지나치게 슬퍼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리옵소서."

↓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익중의 슬픔을 드러냄.

#### 2 답 ③

##### ◎ 이래서 정답

- ③ **누가** [A]에서는 귀신이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한 불길한 꿈과 우인이 집에 찾아온 부정적 상황에 대한 익중의 추측이 "저놈이 그놈이로다."에 나타나 있다. [B]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난 긍정적 상황에 대한 익중의 만족감이 "만고 여한 풀어진다."에 나타나 있다.

❖ 왜 오답

- ① **누가** [A]에서 익중은 자신을 쫓아내기 위해 찾아온다고 한 비현실적 인물인 허깨비 귀신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 현실적 인물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한편 [B]에서 익중은 죽어서 선녀가 된 이 낭자를 다시 만나 기쁨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현실적 인물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비현실적 인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누가** [A]에서 귀신의 위세에 대한 익중의 두려움은 나타나지 않는다. [B]에서 익중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이 낭자를 다시 만난 것에 대한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누가** [A]에서 꿈에 나온 귀신이 현실의 집에 찾아온 사건은 실현 가능한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B]에서 죽어서 선녀가 된 이 낭자와 익중이 다시 만난 것은 실현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익중이 이에 대한 실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⑤ **누가** [A]에는 예상했던 사건에 대한 익중의 추측이 제시되어 있을 뿐, 익중의 안도감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B]에서 익중이 이 낭자를 다시 만난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볼 수 있으나, 익중이 이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3 답 ⑤

❖ 이래서 정답

- ⑤ **무엇을** '위 낭자가 익중인 줄 여겨 반겨 하고 서촉 안부를 물으니, 우인이 대강 대답하고'로 보아, 위 낭자는 우인의 모습을 보고 진짜 익중이라고 생각해 반기며 안부를 물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낭자가 안부를 묻는 말에 대한 우인의 대답 때문에 우인을 반겼다고 볼 수 없다.

❖ 왜 오답

- ① **무엇을** '승상은 부인을 붙들고 ~ 어느 것이 참 익중이며 어느 것이 거짓 익중인지 알기 어려웠다.'로 보아, 승상은 익중과 우인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무엇을** "어젯밤에 여차여차한 꿈을 꾸었더니 과연 그대로 이구나. 승상은 의심치 마소서."로 보아, 승상 부인은 자신의 꿈을 근거로 우인을 익중으로 믿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무엇을** '권생이 며칠을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와 대문 안에 들어서니, 당상에 어떤 한 사람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며 화를 내는 것이었다.'로 보아, 익중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화를 내는 우인을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무엇을** '이제 천하 강산 두루 돌아 구경이나 다 한 후에, 강남 명월 악양루를 구경하고 동정호에 빠져 죽으리라.'로

보아, 익중은 우인의 정체를 밝히는 대신 유람 후에 죽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답 ⑤

| 보기 | 오려 보기

「권익중전」에는 진짜와 가짜가 다투는 '진가쟁주(眞假爭主)'가 나타난다. ...

무엇을

❖ 이래서 정답

- ⑤ **무엇을** 이 낭자가 진짜 익중에게 "또 오 년이 지나 이곳에 와서 오늘 밤 복중에 들어 때가 찬 아이를 데려가옵소서."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오 년 후에 가짜 익중이 아니라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와의 만남을 예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왜 오답

- ① **무엇을** 옥황상제가 허수아비를 만들며 "이 허수아비의 이름은 우인이며, 자태와 얼굴은 익중과 같이 만들었노라."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진가쟁주가 천상계의 개입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무엇을** '익중이 당장의 곤욕과 매를 견디지 못할 정도로 산골 물이 팔팔 소리 내며 흘러가듯 두들겨 때렸다.'로 보아, 진가쟁주가 익중에게 고난을 겪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무엇을** 가짜 익중 때문에 쫓겨나 길을 나섰던 익중이 이 낭자를 만나 육례를 치렀으므로, 진가쟁주가 익중과 이 낭자의 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무엇을** 꿈꾼 내용을 근거로 가짜 익중을 진짜 익중이라 믿은 부인이 진짜 익중을 집에서 쫓아냈으므로, 진가쟁주로 인해 익중과 가족 간의 갈등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어휘

- 연민: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김.
- 위세: ① 사람을 두렵게 하여 복종하게 하는 힘. ② 위엄이 있거나 맹렬한 기세.
- 육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혼인의 여섯 가지 예법.



이대봉전

누가	북방 흉노를 격퇴한 공을 인정받아 초왕이 된 이대봉, 남방 선우를 격퇴한 공을 인정받아 총렬 왕후가 된 장애황
언제 어디서	명나라 때
무엇을	• 이대봉과 장애황이 영웅적 면모를 보이며 적군을 물리치는 사건, 이대봉과 장애황이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며 사랑을 이루어 가는 과정 • 남장 모티프
어떻게	전자적 작가 시점, 빈번한 장면 전환, 영웅의 일대기 구성, 만남과 이별의 반복
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사랑을 이루는 남녀 주인공의 활약상을 서술함.

1 답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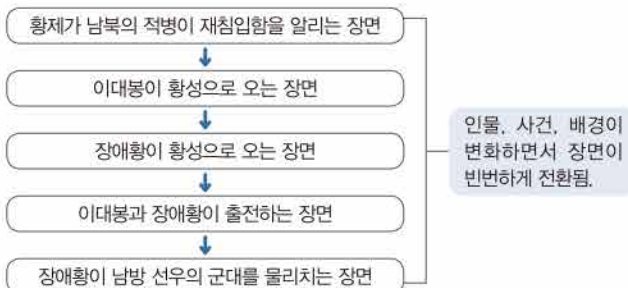
◎ 이래서 정답

- ④ **어떻게** 이 글은 '황제가 남북의 적병이 재침입한 사실을 알리는 장면 → 이대봉이 황제의 부름을 받고 황성으로 오는 장면 → 장애황이 적병이 재침입한 사연을 듣고 황성으로 오는 장면 → 이대봉과 장애황이 각각 전장으로 떠나는 장면 → 장애황이 남방 선우의 군대를 물리치는 장면' 등 장면이 빈번하게 바뀌면서 사건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 왜 오답

- ① **언제·어디서** 장애황이 남방 선우의 대군과 맞서 싸우는 장면 묘사를 통해 장애황과 적군 사이의 갈등이 드러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 갈등을 부각하는 배경 묘사는 확인할 수 없다.
- ② **언제·어디서, 무엇을** 초월적 공간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건의 환상성 또한 확인할 수 없다.
- ③ **어떻게** 서술자가 개입하고 있는 부분이나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 ⑤ **어떻게** '장 원수가 적군을 여린 풀 베듯 하니, 군사의 주검이 산처럼 쌓였고 피가 흘러 내가 되어 겹내지 않는 이가 없었다.'에서 장애황이 적군을 물리치는 상황이 과장되게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해학적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문제 공식 적용 장면 제시 방법



2 답 ②

| 보기 | 오려 보기

「이대봉전」은 개인적 가치보다 집단적 가치를 우선하며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는 남녀 주인공을 통해 ... 남녀 주인공이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하는 모습을 그린 점,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여성 영웅의 활약상을 부각한 점 ...

왜

◎ 이래서 정답

- ② **왜** 황제는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이대봉을 불러들인 것이므로, 이를 황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왜 오답

- ① **왜** 이대봉은 황제의 부름을 받고 즉시 황성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군주에게 충성하는 유교적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왜** 장애황은 남방 선우와의 전쟁에서 대원수로 활약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여성 영웅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왜** 장애황은 잉태를 한 상황인데도 자신의 몸을 돌보기 보다는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개인적 가치보다 집단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왜** '대봉은 북방의 흉노를 치러 가고 애황은 남방의 선우를 치러 떠났다.'로 보아, 이대봉과 장애황이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어휘

- **초월적**: 어떠한 한계나 표준, 이해나 자연 따위를 뛰어넘거나 경험과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 **잉태**: 아이나 새끼를 뱐.

확인 1 답 (1) 순 (2) 역 (3) 순 (4) 역

이래서 정답

- (1), (3) '과거 → 현재 → 미래'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는 구성을 순행적 구성, 혹은 평면적 구성이라고 한다.  
(2), (4) '현재 → 과거 → 현재', '미래 → 현재 → 과거' 등과 같이 시간의 순서를 바꾸어 사건을 전개하는 구성을 역순행적 구성, 혹은 입체적 구성이라고 한다.

확인 2 답 ①

이래서 정답

- ㄱ. 의식의 흐름 구성에서 중요한 것은 '의식'이므로, 인물의 생각이 서술의 중심이 된다.  
ㄴ. 의식의 흐름 구성은 인물의 내면 의식을 흘러가는 대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왜 오답

- ㄷ. 의식의 흐름 구성에서는 사건이 인과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의 필연성 또한 강조되지 않는다.  
ㄹ. 의식의 흐름 구성은 시간보다는 의식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기 때문에 사건의 순차성은 무시될 수 있다.

확인 3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드디어 인정이 되기를 기다려', '삼경 무렵', '새벽중이 올릴 때까지'로 보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확인 4 답 (1) ○ (2) ×

이래서 정답

- (1) <보기>는 역순행적 구성으로, 시간의 순서를 바꾸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2) '어저께 → 작년 이맘때 → 오늘'의 순서로 사건이 서술되고 있다.

확인 5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구보가 인물들을 관찰하며 한 생각이 서술의 중심이 되고 있으므로 구보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씨열행록

누가	장 시랑의 아들과 혼인한 김 씨, 김 씨의 시아버지인 장 시랑, 장 시랑의 첫 번째 후취 부인인 유 씨, 장 시랑의 두 번째 후취 부인인 최 씨
언제 어디서	• 조선 시대 • 관동 지역
무엇을	• 전처소생인 장 시랑의 아들과 계모인 유 씨 간의 갈등, 며느리인 김 씨와 시어머니인 최 씨 간의 갈등 • 남장 모티프
어떻게	전지적 작가 시점, 순행적 구성, 서술자의 개입
왜	가정사의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김 씨의 지혜와 열행을 서술함.

1 답 ⑤

이래서 정답

- ⑤ **어떻게** 김 씨는 노파를 통해 유 씨 부인의 **홍계**를 알게 되었고, '그 밤을 지낸 후에 날이 밝자' 장 시랑 댁을 찾아가 자신이 알게 된 유 씨 부인의 **홍계**를 밝히고 있다. 이로 보아 '그 밤을 지낸 후에 날이 밝자'라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서사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오답

- ① **어떻게** 우의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풍자 의식 또한 드러나 있지 않다.  
② **무엇을**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는 인물의 내적 독백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어떻게** 꿈과 현실을 교차하고 있지 않으며, 사건이 비현실적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다.  
④ **어떻게** 서술 시점의 변화 없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인물의 초월적 능력을 부각하고 있지 않다.

문해 공식 적용 순행적 구성



2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누가** '유 씨 부인'은 장 시랑의 후취 부인이고 '연 씨'는 장 시랑의 **전취** 부인이다. 유 씨 부인이 전실 자제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유 씨 부인이 **홍계**를 품어 전실 자제를 없앴다는 내용으로 보아, '유 씨 부인'은 전취 부인인 '연 씨'의 자제를 사랑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❶ 왜 오답

- ① **무엇을** '이에 신부가 심히 의심하여 짐짓 노파를 위로하고 ~ 수작은 무엇을 장황히 하였나 하는 것을 낱낱이 물으니'로 보아 적절하다.
- ③ **무엇을** "혼인날 밤에 신랑을 죽이기 위하여 돈을 많이 주고 자객을 구한즉 ~ 그날 밤에 가서 신랑의 머리를 베어다가 유 씨 부인에게 바쳤습더니"로 보아 적절하다.
- ④ **무엇을** '시랑이 병을 핑계하고 손님 보기를 거절하거늘'에서 장 시랑이 병을 핑계로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제야 들어오라 하거늘, 김 씨가 도령의 복색으로 안으로 들어가서'로 보아, 결국 김 씨를 들어오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⑤ **누가, 무엇을** '본가로 돌아와 친정 부모를 뵈옵고 ~ 분하고 원통한 중에도 기뻐함을 이기지 못하여'로 보아 적절하다.

## 3 답 ①

## ❷ 이래서 정답

- ① **누가** [A]에서 노파는 김 씨에게 자신이 양자를 들인 사연, 장 시랑 집안의 사정, 유 씨 부인의 흥계를 자신의 양자가 김 씨 남편의 머리를 베어다가 유 씨 부인에게 바친 일 등 과거의 사건들을 요약하여 이야기하고, "공검한 심사와 처량한 심사를 진정하지 못하나이다."라고 하며 두렵고 겁이 나면서도 처량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 ❸ 왜 오답

- ② **누가** 노파가 미래의 성취와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털어놓고 있지 않다.
- ③ **누가** 노파가 김 씨에게 상급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해 보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김 씨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 않다.
- ④ **누가** 노파는 김 씨의 약점을 공격하고 있지 않으며,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 ⑤ **누가** 노파는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이 김 씨인 줄 알지 못하므로 김 씨의 처지에 공감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고 있지 않다.

## 4 답 ⑤

## | 보기 | 오려 보기

「김씨열행록」에서 '김 씨'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인물이다. '김 씨'는 남장을 수단으로 하여 현실의 제약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데 ...

**누가, 무엇을**

## ❹ 이래서 정답

- ⑤ **무엇을** '김 씨'의 친정 부모가 '원통한 중에도 기뻐'한 까닭은 '김 씨'가 남편을 잃고 억울한 누명까지 썼지만, 결국

스스로 그 누명을 벗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❺ 왜 오답

- ① **무엇을, 왜** '김 씨'가 신랑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게 된 사건의 전모는 "유 씨 부인이 흥계를 품어 전실 자제를 없애고 제 소생으로 종가를 삼으려 하여"라는 노파의 말을 통해 전달된다. 이를 통해 '김 씨'에게 닥친 문제는 '유 씨'가 '전실 자제'를 없애려 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누가, 무엇을** '김 씨'는 '의복을 정제하고' '장 시랑' 댁을 찾아가 신랑의 머리가 곳간에 있음을 확인시키고 자신의 누명을 벗고자 했다. 이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무엇을** '김 씨'는 신랑을 죽였다는 누명을 씻기 위하여 '도령의 복색으로' 신랑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의 전모를 밝힌다. 이를 통해 여성이 활동하기 힘든 현실의 제약에 대응하기 위해 남장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무엇을, 왜** '김 씨'는 사건의 전모를 밝힌 후에 '이후의 일은 존구의 처분'이라고 하며 가부장인 시아버지에게 처분을 맡기고 자신은 본가로 돌아갔다. 이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후 가부장제의 기존 질서를 따르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 어휘

- **흥계**: 흥악한 계략.
- **전취**: 이혼이나 재혼을 하였을 때, 전에 혼인했던 여자를 이르는 말.
- **촉구**: 급하게 재촉하여 요구함.
- **능동적**: 다른 것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일으키거나 움직이는 것.
- **전모**: 전체의 모습, 또는 전체의 내용.

선학동 나그네

누가	아버지 때문에 눈이 먼 소리꾼 여자, 눈먼 소리꾼 여자의 오빠인 손(나그네), 손에게 소리꾼 부녀의 이야기를 전해 주는 주막집 주인
언제 어디서	• 1940~1970년대(근대화 시기) • 전라남도 장흥 근처의 어느 마을(선학동)
무엇을	• 소리꾼 가족의 기구한 운명 • 현실적 삶의 고난과 한을 넘어서는 이상적 삶과, 삶의 한이 예술적으로 승화된 경지를 상징하는 비상학
어떻게	전지적 작가 시점, 역순행적 구성(회상), 액자식 구성, 방언
왜	한(恨)의 예술적 승화에 대해 서술함.

1 답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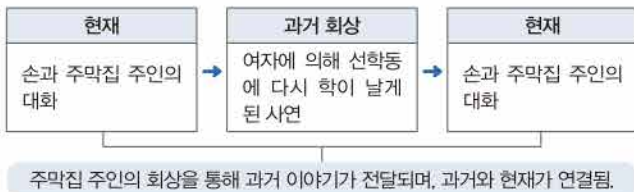
❶ 이래서 정답

- ① **어떻게** 손과 대화를 나누던 주인은 ‘선학동에 다시 학이 날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회상하고 있다. 따라서 주인의 회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❷ 왜 오답

- ② **어떻게** 풍자적 서술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인물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지도 않다.
- ③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집단 간의 갈등도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어떻게**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며 사건이 전개되고 있을 뿐, 이 사건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 ⑤ **어떻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변하지 않는다.

문해 공식 적용 역순행적 구성



2 답 ③

❶ 이래서 정답

- ③ **무엇을** 이 글을 통해 여자가 선학동으로 돌아온 손으로부터 아버지에게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주인 사내로부터 여자와 아버지에게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는 인물은 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❷ 왜 오답

- ① **무엇을** 손이 주인 사내에게 “그 어린 오라비가 부녀를 버리고 떠난 것은 차마 그 원망스런 의붓아비를 죽여 없앨

수가 없어서였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 ② **무엇을** 손이 “주인장 어렸을 적에 이 마을에 찾아들었다는 그 소리꾼 부녀”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여자는 이전에 선학동에 온 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선학동에 아비의 유골을 묻고 간 여자’로 보아 여자가 선학동에 아비의 유골을 묻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무엇을** ‘사립에 기대어 눈을 감고 가만히 여자의 소리를 듣고 있자니 사내의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잊혀져 온 옛날의 그 비상학이 서서히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 ⑤ **무엇을** 손이 주인 사내에게 “주인장은 그 오누이가 서로 아비의 피를 나누지 않은 남남 한가지 사이란 것도 알고 있었겠구만요.”라고 말한 것을 듣고 주인 사내가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3 답 ④

❶ 이래서 정답

- ④ **누가** ㉔에서 그(손)의 ‘낯고 차분’한 어조에는 주인이 자신과 여자의 관계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는 마음이 담겨 있다. 그(손)가 당혹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❷ 왜 오답

- ① **누가** ㉑에서 ‘그녀의 소리가 여전히 귓전을 맴돌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그녀의 소리를 들으며 비상학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된 과거의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누가** ㉒에는 손에게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은 뒤에 ‘이제 자기 할 일을 다해 버린 사람 같았다’는 주인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 ③ **누가** ㉓에서 침묵을 견디지 못한 손이 먼저 주인에게 말을 건네는 행동에는 상대방과 이야기를 더 이어 가고자 하는 심리가 드러나 있다.
- ⑤ **누가** 일부터 오라비 이야길 빼놓고 있었냐는 손의 말에 주인이 ‘고개를 두어 번 깊이 끄덕’인 것으로 보아, ㉔에서 주인은 자신의 의도를 알아차린 상대방의 말에 수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어휘

- 회상: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
- 의붓아버지: ‘어머니가 재혼함으로써 생긴 아버지’를 낮잡아 이르는 말.
- 당혹감: 무슨 일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감정.
- 수긍: 옳다고 인정함.



날개

누가	직업 없이 아내에게 종속되어 살아가는 무기력한 지식인인 '나', 남편 대신 생계를 유지하는 아내
언제 어디서	• 1930년대 • 경성(서울)
무엇을	• 자아가 분열된 채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지식인인 '나'의 내면세계, '나'와 아내의 부조리한 관계 • 진정한 자아, 자유와 이상 등을 상징하는 날개
어떻게	1인칭 주인공 시점, 의식의 흐름 구성
왜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서술함.

1 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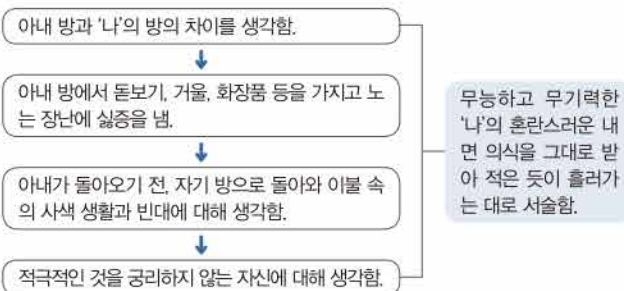
이래서 정답

- ③ **어떻게** 독백적인 어조로 '나'의 내면 의식을 흘러가는 대로 구성함으로써 현실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나'의 의식 분열과 혼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왜 오답

- ① **언제 어디서**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기 위한 장면 묘사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어떻게** 인물 간의 대화는 드러나 있지 않고,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내면세계를 서술하고 있을 뿐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무엇을** 단정적이고 객관적인 진술보다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이 주로 나타나 있다.  
 ⑤ **어떻게** '나'가 회상하는 장면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문제 공식 적용 의식의 흐름 구성



2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무엇을** 이 글에서 '나'가 자기 아내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왜 오답

- ① **무엇을** '나는 거울을 내던지고 아내의 화장대 앞으로 가까이 가서 ~ 가지각색의 화장품 병들을 들여다본다.'에서 주변 사물을 관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⑤ **무엇을** '아내가 외출만 하면 나는 얼른 아랫방으로 와서 ~ 또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내 방으로 가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하고 그만 내 방으로 건너간다.'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이동하며 일상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무엇을** '나는 내 좀 축축한 이불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발명도 하였고 논문도 많이 썼다. ~ 베개와도 같은 한 벌 신경이었을 뿐이고 하였다.'에서 이불 속에서 몽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누가** '나'는 한 사람의 사회인의 자격으로 일을 해 보는 것도 성가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왜 오답

- ① **무엇을** '어느덧 손수건만 해졌던 별이 나갔는데 아내는 외출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무엇을** '아내가 외출만 하면 나는 얼른 아랫방으로 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무엇을** '나는 조그만 돋보기를 꺼내 가지고 ~ 불장난을 하고 논다.', '나는 또 아내의 손잡이 거울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무엇을** '별 드는 방이 아내 방이요 ~ 둘 중에 누가 정했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답 ④

이래서 정답

- ④ **언제 어디서** 아내 방(㉠)에서 '나'는 아내의 물건들을 가지고 장난을 하며 자기 방에서는 억눌러 왔던 내적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 이로 보아 ㉠은 내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왜 오답

- ① **언제 어디서** '나'는 자신의 의지로 ㉠에 와서 싫증이 날 때마다 물건을 바꾸어 가며 장난을 이어 가고 있다. 이로 보아 ㉠을 자아가 억압되는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② **언제 어디서** 이 글에서 '나'는 아내에게 종속된 상태로, 아내와 갈등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을 갈등이 심화되는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③, ⑤ **언제 어디서** ㉠에서 '나'는 장난을 치고 있을 뿐,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나 저항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이로 보아 ㉠을 현실을 극복하는 공간이나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는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 5 답 ④

### ㉠ 아래서 정답

- ④ **무엇을** '한잠 자고 깨인 나는 속이 무명 형겅이나 메밀껍질로 땀땀 찬 한 덩어리 베개와도 같은 한 벌 신경이었을 뿐'으로 보아, '베개'는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나'의 처지를 형상화하여 보여 주는 소재이다.

### ㉡ 왜 오답

- ① **무엇을** '나'가 '베개'에 애착과 안정을 느끼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 ② **무엇을** 이 글에 '나'와 아내의 갈등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베개'가 '나'와 아내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 ③ **무엇을** '나'의 방에 한 번도 걷은 일이 없는 이부자리도 있다고 했으므로, '베개'가 '나'의 유일한 소유물이라고 볼 수 없다.
- ⑤ **무엇을** '나'는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인물로,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드러나 있지 않다.

### + 어휘

- **몽상** ① 꿈속의 생각. ② 실현성이 없는 헛된 생각을 함. 또는 그 생각.
- **종속** 자주성이 없이 주가 되는 것에 달려 붙음.
- **애착** 몹시 사랑하거나 끌려서 떨어지지 아니함. 또는 그런 마음.

어떻게

11

구성

## 여로형, 일대기, 전

확인

1 답 (1) 일대기 (2) 여행 (3) 행적

### ㉠ 아래서 정답

- (1) 주인공의 출생, 성장, 활동, 사망까지의 일대기를 서술하는 구성을 일대기 구성이라고 한다.
- (2) 인물의 여행 과정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구성을 여로형 구성이라고 한다.
- (3) 인물의 행적에 초점을 맞춰 '인물 소개-주요 행적-평'의 순으로 서술하는 구성을 전의 구성이라고 한다.

확인

2 답 ③

### ㉠ 아래서 정답

- ③ 허 생원이 봉평에서 대화까지 향하는 여정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여로형 구성이다.

### ㉡ 왜 오답

- ① 허 생원의 활동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그의 출생, 성장, 사망까지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② 허 생원의 행적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허 생원에 대해 소개하거나 평가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확인

3 답 ③

### ㉠ 아래서 정답

- ③ 이 글에 주인공인 '금방울'의 사망과 관련된 사건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 왜 오답

- ① 중략 이전에 '금방울'의 출생 과정이 나타나 있다.
- ② 중략 이후에 '금방울'의 성장 과정이 나타나 있다.

확인

4 답 (1) ○ (2) ×

### ㉠ 아래서 정답

- (1) (가)에는 유광억에 대한 소개, (나)에는 과거 글을 대신 써 주며 살다 군수에게 잡혀가게 되자 겁을 먹고 강에 투신하여 죽은 유광억의 행적, (다)에는 유광억에 대한 평이 나타나 있다.
- (2) 이 글에서는 '유광억'이라는 인물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다. '매화외사'는 유광억에 대해 평가하는 인물이다.



민옹전

누가	민 영감과 있었던 일화를 전달하는 '나', 벼슬 없이 지내지만 논리적인 달변가이자 풍자적인 이야기꾼인 민 영감(민유신)
언제 어디서	• 조선 시대 • 남양
무엇을	민 영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화
어떻게	전의 구성, 풍자, 해학
왜	부조리한 현실과 세태에 대해 비판하고 풍자함.

1 답 ④

이래서 정답

- ④ **누가, 무엇을** 악공들이 연주에 집중하고 있는 표정을 본 민 영감이 악공들의 표정에 대해 성난 꼴이라고 말한 것일 뿐, 악공들이 성난 표정으로 민 영감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왜 오답

- ① **누가, 무엇을** 민 영감이 벽에 쓴 글들은 자신이 흠모하는 옛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글들에 고인들을 닮고 싶은 민 영감의 바람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누가, 무엇을** 민 영감의 아내가 민 영감에게 왜 까마귀를 그리지 않는지를 물은 뒤 “짜가 아무리 기이하더라도, 장차 언제나 쓰시려오?” 하고 따지는 것으로 보아, 벼슬을 하지 않고 집 벽이 감정투성이가 되도록 글만 쓰는 남편을 놀리려는 의도로 물어본 것임을 알 수 있다.
- ③ **누가, 무엇을** 우울해하던 ‘나’는 민 영감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치고 마음이 상쾌하게 열리지 않는 이가 없다는 말을 듣고 민 영감을 초대했으므로, 민 영감의 이야기로 울적한 마음을 달래 보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누가, 무엇을** 민 영감이 통소 부는 자의 뺨을 때린 뒤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마치 무서운 일이라도 난 듯, 아이와 종놈들까지도 웃지 못하고 말도 못 하게 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남의 즐거움을 생각하지 않는 악공들을 질책하려고 통소 부는 자의 뺨을 때린 것임을 알 수 있다.

2 답 ②

보기 | 오려 보기

아아, 민 영감이시여  
괴상하고도 기이하고 놀랍고 깜찍스럽고  
기쁘고 노엽고 또한 얄밟더군요 ...  
내 이제 이 전을 짓노니 아아 그는 오히려 죽지 않았구려

어떻게

이래서 정답

- ② **어떻게** ㉠에서 민 영감은 여든 살에 장수가 된 여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일흔 살인 자신은 여상에 비하면 어린 아 우뚝밖에 안 된다며 앞으로 여상처럼 공을 세울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보기>에서 ‘영감은 뜻을 지닌 선비건만 마침내 늙어 죽도록 쓰이지 못했다’고 하며 전을 짓는 까닭과 민 영감에 대한 애도를 전하고 있다. 따라서 작가는 민 영감이 세상에 쓰이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서 이 글을 지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 오답

- ① **어떻게** <보기>에는 아내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어떻게** ㉠과 <보기>에서 민 영감의 재미있는 일화와 관련된 언급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어떻게** ㉠을 통해 민 영감의 청렴함에 대해 알 수 없으며, <보기>에서 민 영감의 청렴함을 칭송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어떻게** <보기>에 민 영감을 기리고 싶어 하는 마음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을 통해 민 영감이 세상의 부조리를 바로잡으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문제 공식 적용 전의 구성

인물 소개	민 영감에 대한 소개
+	
주요 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벽에 글을 쓴 일화</li> <li>• 악공의 뺨을 때린 일화</li> <li>• 궁지에 몰려 한 손님들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한 일화</li> <li>• 황충에 대한 의견을 밝힌 일화</li> <li>• 파자로 자신을 놀리는 ‘나’에게 재치 있게 대응한 일화</li> </ul>
+	
평	민 영감에 대한 평가와 애도

3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누가, 어떻게** 벽에 글을 쓴 일화에서 민 영감은 해가 바뀔 때마다 늘 자신을 돌아보며 옛사람의 기이한 절개나 거룩한 발자취를 닮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악공의 뺨을 때린 일화나 황충에 대한 의견을 밝힌 일화에서 민 영감은 다른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포착하여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민 영감에 대해 ‘늘 깨어 있던 사람, 새롭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평할 수 있다.

왜 오답

- ① **누가, 어떻게** 민 영감의 말에 유머와 해학이 담겨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누가, 어떻게** 벽에 글을 쓴 일화나 악공의 뺨을 때린 일화에서 민 영감이 세상의 슬픔이나 아픔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④ **누가, 어떻게** 민 영감은 자신의 의견을 밝혔을 뿐, 백성의 소망을 대변했다고 보기 어렵다.

⑤ **누가, 어떻게** 민 영감은 득도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득도하고자 세상을 등졌다고 보기 어렵다.

#### 4 답 ④

##### ㉠ 아래서 정답

④ **어떻게** [A]의 '종로 네거리에 한길 가득히 오가는 것들'은 백성들을 수탈하는 위정자들을 의미하고, <보기>의 '제비'는 탐관오리들로부터 수탈당하는 백성을 의미하므로, 그 처지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 ㉡ 왜 오답

① **어떻게** [A]는 어떤 사람과 민 영감의 대화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보기>는 사람과 제비의 대화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② **어떻게** [A]에서는 당시 지배층이 백성을 수탈하는 문제 상황을 황충이 농사를 해치고 곡식을 짓밟는 상황에 빗대어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보기>에서는 탐관오리의 횡포로 인해 백성들이 유랑민이 되는 문제 상황을 황새와 뱀 때문에 느릅나무 구멍, 왜나무 구멍에 갇힐지 못하는 제비를 통해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무엇을** [A]의 '황충'과 <보기>의 '황새'는 백성들을 수탈하는 위정자들을 의미한다.

⑤ **무엇을** [A]의 '농사를 해치고 곡식을 짓밟는' 행위와 <보기>의 '왜나무 구멍을 뚫지는' 행위는 부패한 관리들이 백성을 수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 어휘

- **기리고**: 뛰어난 업적이나 바람직한 정신, 위대한 사람 따위를 칭찬하고 기억하고
- **득도**: 오묘한 이치나 도를 깨달음
- **위정자**: 정치를 하는 사람
- **유랑민**: 일정한 거주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백성

#### 진성운전

누가	영웅적 인물인 진성운, 성운의 누이인 진성희, 성운의 친구들인 남순경·윤호원·이학녹, 성운의 아버지를 모함한 간신 유경만
언제 어디서	명나라 때
무엇을	• 진성운과 유경만의 갈등, 진성운과 세 친구들의 우의 • 남장 모티프
어떻게	전지적 작가 시점, 서술자의 개입(편집자적 논평), 순행적 구성, 영웅의 일대기 구성
왜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나라를 위험에서 구한 영웅들의 효행과 충절을 서술함

#### 1 답 ⑤

##### ㉠ 아래서 정답

⑤ **어떻게** '산천과 초목이 함께 슬퍼하는 듯하였다.'에서 서술자가 개입하여 성운과 성희가 위기를 넘기고 재회하여 통곡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 ㉡ 왜 오답

① **어떻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을 뿐, 시간의 역전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② **어떻게**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지 않으며,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지도 않다.

③ **어떻게**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을 전개하고 있을 뿐, 꿈은 드러나 있지 않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고 있지 않다.

④ **어떻게** '성운과 순경이 말을 재촉하여 적진 중에 다시 들어 동서로 마구 치니, 순식간에 사백만 군졸을 거의 모두 죽였다.'에 인물이 지닌 초월적 능력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서술 시점이 변화하고 있지는 않다.

#### 2 답 ①

##### ㉠ 아래서 정답

① **무엇을** 진성운이 '윤 승지 맥이 야간도주하였다는 말을 듣고' 나서 "분명히 태후 유경만의 해를 입었구나!"라고 말한 것을 통해 윤 승지 맥의 불행이 유경만 때문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왜 오답

② **무엇을** 주점 사람은 강남으로 귀양 간 진 상서와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진성운에게 전달할 뿐, 중원으로 향하던 진성운의 목적을 알아차리고 있지는 않다.

③ **무엇을** 강남골 하인이 '하인들이 진 상서의 아들을 결박하여 가지고 방금 물을 건너갔다'는 사실을 진성운에게 전한 것으로 보아, 강남골 하인은 진성운이 진 상서의 아들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무엇을** 호원이 전쟁터에서 몹시 당황하던 중에 자기편인 순경을 발견하고 '더욱 반가워하며' 늦게 온 이유를 물었다. 따라서 호원이 적진에 늦게 도착한 순경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볼 수 없다.
- ⑤ **무엇을** 월성덕은 삼백만 군졸을 하루아침에 함몰시킨 자신은 고국에 돌아갈 면목이 없다며 자결했으므로, 연나라 군대의 패배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 3 답 ①

#### ◎이래서 정답

- ① **무엇을** 진성운은 [A]에서 주점 사람의 말을 듣고 누이를 붙들어 간 사람들을 쫓아가 위험에 처한 누이를 구했다. 따라서 [A]는 진성운이 위험에 처한 누이를 구하게 되는 계기로 이해할 수 있다.

#### ❖왜 오답

- ② **무엇을** [A]에서 주점 사람이 연향이 숨겨 둔 흔적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무엇을** [A]에서 주점 사람의 말을 들은 학녹이 진 소저를 구하기 위해 능력을 발휘하는 장면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무엇을** 진성운은 [A]에서 주점 사람의 말을 듣고 누이가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뿐, [A]로 인해 진성운이 세상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니다.
- ⑤ **무엇을** 진성운은 [A]를 통해 진 상서가 강남으로 귀양 갔다가 죽었다는 사실과 그 아들이 성모 갔다가 붙들리어 황도로 올라갔다는 정보만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A]는 누이가 강남에서 겪은 일을 진성운이 재확인한 단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 4 답 ④

| 보기 | 오래 보기

「진성운전」은 진성운의 영웅적 일대기를 다룬 작품이다. ...

어떻게, 왜

#### ◎이래서 정답

- ④ **어떻게, 왜** 진성운의 활약으로 연나라의 군대가 패배한 이후 '유경만이 갈 바를 모르고 앉아 탄식'한 것은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연나라에 항복한 자신의 처지가 곤란해질까 봐 걱정한 것이지, 진 상서를 참소한 것에 대해 후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왜 오답

- ① **어떻게, 왜** 진성운과 순경이 순식간에 연나라의 사백만 군졸을 거의 모두 죽이는 활약을 보여 주며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에서 영웅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어떻게, 왜** 성희가 자신을 구해 준 사람이 진성운임을 알아보고 '어릴 적 성운의 얼굴이 자라서도 명백하'다며 "네가 성운이나 ~ 네 어이 나를 모르느냐?"라고 말하자, 진성운도 누이를 알아보고 "누님아, 누님아! 어떤 일인가? 꿈인가! 생시인가?"라고 말하며 함께 통곡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진성운이 어릴 적 가족 이산의 고통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어떻게, 왜** 진성운이 연나라에 맞서 싸워 승리한 뒤 유경만을 잡아 죄를 낱알이 말하면서 "내 부친을 무슨 탓으로 강남에 귀양 보내어 죽게 하였는가? 원수를 만분지일이라도 갚아야겠다."라고 했으므로, 국난 극복과 함께 개인적인 원한도 갚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어떻게, 왜** 호원이 '대장군 대원수 진성운'이라 쓰인 수기를 보고 "호원을 살려 주소서."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다른 영웅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문제 공식 적용 영웅의 일대기 구성

고귀한 혈통	명나라 명신 진공필과, 임 진사의 딸인 임 소저 사이에서 태어남.
비범한 능력	용모가 준수하고 재주가 탁월함.
유년기의 위기	어머니가 병을 얻어 죽고 아버지는 간신 유경만의 모함을 받아 귀양을 가고 누이와도 헤어짐.
구출 양육	남순경, 윤호원, 이학녹을 만나 친구가 되고, 도사를 만나 무예를 익힘.
성장 후 위기	• 귀양 갔던 아버지가 죽고, 누이가 위험에 처함. • 연나라의 침공과 유경만의 배신으로 천자가 위험에 처함.
위기 극복과 승리	• 위험에 처한 누이를 구함. • 남순경, 윤호원, 이학녹과 함께 적을 격파하고 천자를 구한 후 초왕에 봉해짐.



주인공 진성운이 성장해 나가며 일생 동안 일어난 일들을 차례대로 서술함.

#### + 어휘

- **참소**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뒷사람에게 고하여 바침.
- **원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응어리진 마음.
- **수기** 행진할 때에 장수가 손에 들어 그 직책을 표시하던 군기(軍旗) 글자를 새겼고, 직책에 따라 기의 넓이와 색깔이 달랐다.

### 삼포 가는 길

누가	일자리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영달, 교도소에서 출감한 뒤 공장 노동자로 일하다 고향에 가려고 하는 정 씨, 일하던 술집에서 달아난 백화
언제 어디서	• 1970년대 겨울 • 삼포 가는 길
무엇을	• 삼포로 가는 여정,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삶 • 세 사람 사이의 유대감과 온정을 드러내는 팔시루떡, 백화를 배려하는 영달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기차표·삼립빵·찐 달걀
어떻게	전지적 작가 시점, 여로형 구성
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고향을 상실한 떠돌이 인생의 애환을 서술함.

## 1 답 ①

### ㉠ 아래서 정답

- ① **어떻게** ㉠에서는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는 영달의 모습을 통해 궁핍하게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고 백화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며 고민하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에서는 ‘눈이 붉게 충혈’된 백화의 모습을 통해 다가올 이별에 대해 슬프고 서운해하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 왜 오답

- ② **어떻게** ㉠와 ㉡에 요약적 서술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④ **어떻게** ㉠와 ㉡는 삼인칭 서술자에 의한 서술이지만, 인물의 성격을 직접 서술하거나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언제-어디서** ㉠와 ㉡에 배경은 드러나 있지 않다.

## 2 답 ③

| 보기 | 오래 보기

... 이 작품에는 떠돌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우연히 길 위에서 마주쳐 동행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다. ... **어떻게**

### ㉠ 아래서 정답

- ③ **언제-어디서, 어떻게** 백화, 영달, 정 씨는 흥청대는 분위기의 ‘읍내’ 중앙에 포용되지 못하고, ‘장터’ 모퉁이에서 팔시루떡을 사 먹었다. 이로 보아 ‘읍내’가 중심부에서 밀려난 자들을 포용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 ㉢ 왜 오답

- ① **언제-어디서, 어떻게** 세 사람은 허기가 저서 속이 떨리고 온몸이 얼었는데도 하룻밤을 지체할 수 없어 ‘산골 마을’을 지나쳐 감천으로 향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고달픈 떠돌이의 삶을 엿볼 수 있다.  
 ② **언제-어디서, 어떻게** ‘불이 생기니까 세 사람 모두가 먼 곳에서 지금 막 집에 도착한 느낌이 들었고, 잠이 왔다.’로 보아,

‘폐가’가 세 사람에게 일시적인 쉼터가 됨을 알 수 있다.

- ④ **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장터’에서 세 사람이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팔시루떡’을 사 먹고 백화가 자신의 떡을 떼어 영달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을 통해 인물들이 유대감과 온정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언제-어디서, 어떻게** ‘역’에서 백화가 혼자 기차를 타고 떠나므로, ‘역’은 세 사람의 동행이 끝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문제 공식 적용 여로형 구성

등판	영달과 정 씨가 만남.
↓	
찬샘	동행하던 영달과 정 씨가 식당 주인으로부터 달아난 백화를 잡아 달라는 부탁을 받음.
↓	
송림	기차를 타기 위해 감천으로 가던 중 백화와 만나 동행함.
↓	
폐가	불을 피워 몸을 녹이며 서로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교감함.
↓	
감천	영달은 자신의 고향에 함께 가자는 백화의 제안을 거절하고, 정 씨는 한 노인으로부터 삼포가 공사판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망연자실함.
↓	
정 씨의 고향인 ‘삼포’를 찾아가는 여로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됨.	

## 3 답 ②

### ㉠ 아래서 정답

- ② **누가** ㉠은 자신이 일할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의미로, 영달은 자신의 일자리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 왜 오답

- ① **누가** ㉠에서 백화가 영달에 대해 ‘괜찮은 사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아, 백화가 영달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누가** ㉡은 정 씨가 백화와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영달에게 한 말로, 정 씨는 갈 곳 없는 영달의 처지를 배려하여 함께 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누가** ㉡에서 영달은 여비가 없는 백화를 위해 기차표와 먹을거리를 챙겨 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백화를 위하는 영달의 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다.  
 ⑤ **누가** ㉡에서 백화는 ‘이점례’라는 본명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백화가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동행한 두 사람과 유대감을 형성한 백화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정 씨와 영달에게 신뢰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 어휘

- 유대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통된 느낌.



## 확인 1 답 나, 다

## 이래서 정답

- 나. 액자식 구성은 마치 액자처럼 외부 이야기가 내부 이야기를 감싸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 다. 액자식 구성은 하나의 이야기(외부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내부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 왜 오답

- ㄱ. 액자식 구성은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을 뿐, 여러 삽화가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 ㄷ. 액자식 구성에서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의 사건은 대체로 다른 시간대와 장소에서 벌어진다.

## 확인 2 답 (1) ○ (2) × (3) ○ (4) ×

## 이래서 정답

- (1) 삽화식 구성에는 내용적으로 관련된 짝막한 이야기가 삽입된다.
- (2) 삽화식 구성에서 삽입된 이야기는 전체 이야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되어도 전체 줄거리를 이해할 수 있다.
- (3) 환몽 구성에서는 인물이 꿈을 통해 깨달음을 얻거나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다.
- (4) 환몽 구성은 '현실-꿈-현실'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 확인 3 답 ③

## 이래서 정답

- ③ '나'가 주생의 이야기를 듣는 외부 이야기 속에 주생과 선화의 사랑 이야기가 포함된 액자식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 확인 4 답 ①

## 이래서 정답

- ① 이 글에서는 황만근이 토끼와 겨루는 기이한 체험을 삽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환상성을 부여하고 있다.

## 확인 5 답 (1) ○ (2) ×

## 이래서 정답

- (1) 조신은 현실 세계에서 '선잠이 들었'을 때 꿈속 세계로 이동하였다가 '꿈에서 깨어'나 현실 세계로 돌아온다.
- (2) 조신은 현실 세계가 아닌 꿈속 세계에서 김 씨의 딸과 결혼한 뒤 고달픈 삶을 경험하고 나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

## 구운몽

누가	• 천상계(현실): 육관 대사의 수제자인 성진, 남악 형산을 다스리는 위 부인의 시녀들인 팔선녀 • 지상계(꿈): 성진이 환생한 인물인 양소유, 팔선녀가 환생한 인물로 양소유의 부인이 된 정경패(영양 공주)·난양 공주·진채봉·가춘운·계섬월·적경홍·심요연·백룡파
언제 어디서	• 당나라 때 • 남악 형산의 연화봉, 용궁, 당나라
무엇을	• 천상계(현실)에서 성진과 팔선녀가 추방된 사건, 지상계(꿈)에서 양소유가 영웅으로 활약하고 여덟 명의 여인들과 인연을 맺은 사건, 양소유의 신비로운 체험에서 드러나는 전기성 • 적강 모티프
어떻게	전지적 작가 시점, 환몽 구성, 꿈속 꿈 구성, 액자식 구성
왜	인생무상에 대한 깨달음을 서술함.

## 1 답 ⑤

## 이래서 정답

- ⑤ **어떻게** 이 글에서 회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왜 오답

- ① **무엇을** 상서가 꿈에서 깬 뒤 '백룡담 위에 가 보니 고기비늘이 떨어져 가득하고 피가 흘러 냇물이 되었'으며, 못의 물을 마신 병든 군병이 즉시 좋아졌다는 것에서 비현실적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어떻게** '상서가 크게 노하여', '상서가 매우 기뻐하며' 등과 같이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어떻게** '눈썹이 길고 눈이 푸르고 골격이 청수하여 세상 사람이 아닐러라.'와 같이 노승의 외양 묘사를 통해 노승의 신이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어떻게** 등장인물의 말과 요약적 서술을 통해 남해 태자와 상서가 겨룬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

## 2 답 ②

## 이래서 정답

- ② **무엇을** 상서가 먼저 못의 물을 떠 마시고 병든 군병을 먹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서가 백룡담 물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먼저 마셔 보았다고 할 수 있다.

## 왜 오답

- ① **무엇을** 양소유가 "너의 아버가 남해를 진정시키고 ~ 망령된 마음을 먹지 마라."라며 관용을 보이자 '태자가 머리를 싸고 쥐가 숨듯이 돌아갔다고 했다. 따라서 남해 태자가 끝까지 저항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 **무엇을** 노승이 상서를 맞으며 "산에 사는 사람이 귀와 눈이 없어 대원수 오시는 줄 알지 못하고"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노승은 상서가 형산에 찾아올 것을 알지 못했다.

- ④ **무엇을** 장수들이 상서와 함께 예불에 참여한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무엇을** 상서가 남해 태자를 물리치자 용녀가 원수께 하례하고 군사들을 대접하기는 했으나, 이것이 약속한 보상이었던 것은 아니다.

### 3 답 ②

#### ㉠ 이래서 정답

- ② **누가** [A]에서 양소유는 하늘의 명을 받고 오랑캐를 평정한 장수인 자신에게 항거하지 말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데, 이는 남해 태자의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해 자신의 명분과 실력을 내세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 왜 오답

- ① **누가** “너의 머리를 베어 삼군을 호령할 것”이라는 경고로 보아, 안도감을 주려는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
- ③ **누가** 자신의 편이 되어 달라는 회유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④ **누가** “너의 아비가 남해를 진정시키고 백성에게 은혜를 베푼 일”이 과거의 일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이는 남해 태자를 놓아주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말한 것일 뿐이다.
- ⑤ **누가** 오랑캐 토벌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을 펼치는 말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4 답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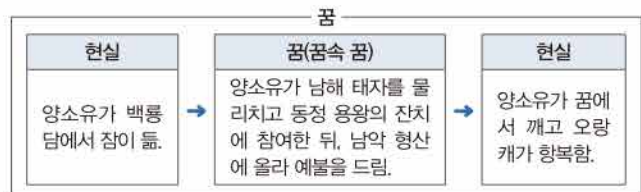
#### ㉠ 이래서 정답

- ⑤ **무엇을** ③에서 양소유가 말에 올라 물 밖으로 솟아오르는 모습, ①에서 양소유가 용궁에 간 일, ③에서 양소유가 지상계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노승을 만난 일 등을 통해 신비로운 체험이 나타난다. 그리고 ②에서도 백룡담 위에 고기비늘과 피가 가득했던 일, 못의 물을 마시니 병든 군병이 나은 일 등을 통해 신비로운 체험이 나타난다.

#### ㉡ 왜 오답

- ① **언제·어디서** ③과 ④의 공간적 배경은 ‘백룡담’이다.
- ② **어떻게** ④에서 양소유가 꿈에서 깬 일을 바탕으로, ③과 ④가 실체가 아니라 꿈이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 ③ **어떻게** ③~④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전개된 사건이다.
- ④ **무엇을** 양소유가 남악 형산에 오를 때 “언제 공을 이루고 물러나 세상 밖 한가한 사람이 될꼬?”라고 한탄한 것을 통해 빨리 큰 공을 세운 후 공직에서 물러나 한가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④에서 오랑캐가 항복해 양소유가 큰 공을 세웠으므로, ③에서 지향하는 삶을 위한 과정이 ④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문제 공식 적용 환몽 구성



### 5 답 ⑤

#### ㉠ 이래서 정답

- ⑤ **무엇을** ‘함포고복’은 ‘잔뜩 먹고 배를 두드린다는 뜻으로, 먹을 것이 풍족하여 즐겁게 지냄을 이르는 말’이므로, ㉠의 상황과 어울린다.

#### ㉡ 왜 오답

- ① **무엇을** ‘결자해지’는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해결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무엇을** ‘면중복배’는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함.’을 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무엇을** ‘와신상담’은 ‘불편한 쉼에 몸을 눕히고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뎌 버리도록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무엇을** ‘이심전심’은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을 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 어휘

- **신이함** 신기하고 이상함.
- **관용**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또는 그런 용서.
- **지향**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함. 또는 그 방향이나 그쪽으로 쏠리는 의지.
- **복종**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좇음.



무기질 청년

누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 이야기: 우연히 이만집의 일기장을 읽게 된 평범한 직장인인 '나'</li> <li>• 내부 이야기: 젊은 대학생으로 물질적으로는 무능하지만 속물적인 삶을 거부하는 이만집, 누명을 쓰고 공무원 직에서 파면당한 뒤 염색 공장에서 일하는 아버지, 고서를 뒤적이며 사는 망형,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둘째 형, 행정고시에 합격한 셋째 형, 속물적인 셋째 형수</li> </ul>
언제 어디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0~1980년대</li> <li>• 도시</li> </ul>
무엇을	이만집이 쓴 비망록의 내용과 그에 대한 '나'의 논평
어떻게	액자식 구성, 비유적 표현
왜	속악한 세태에 대해 비판하고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해 서술함.

1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누가** 이만집은 비망록에서 '나는 당신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며 '당신(아버지)의 무능력에 대한 막심한 자괴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왜 오답

- ① **무엇을** 아버지가 이만집에게 셋째 형의 장래에 대한 걱정을 토로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② **누가** '곧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들의 양심을 찾기가 힘들어진 것만 봐도 그렇다.'로 보아, 이만집은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④ **무엇을** '이만집의 아버지는 ~ 공무원 직에서 파면당한 양반인 것 같다.'로 보아, 이만집의 아버지는 공무원 직을 계속하고 있지 않다.
- ⑤ **누가** 이만집의 비망록 중 '아버지도 무능하지만 나는 얼마나 더 무력한가!'로 보아, 이만집은 아버지만큼이나 자신도 무능하고 무력하다고 생각한다.

2 답 ④

이래서 정답

- ④ **누가** ㉔은 취직은 하지 않고 공부만 하는 이만집을 비꼬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말이다. 여기에 현실적 대안은 나타나 있지 않다.

왜 오답

- ① **누가** ㉔에서는 적당주의의 탈을 쓰고 병든 사회에 부화뇌동하는 모습, 출세를 위해서 '날라리 학력'을 쌓는 속물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 ② **어떻게** ㉔에서 '죽은 시늉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풍뎅이는 어떤 일에도 속수무책인, 즉 무력하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삶의 태도를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 ③ **누가** ㉔의 '적잖은 수확'은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사랑이 차이가 지극히 적어서 때려야 뗄 수 없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의미한다.

- ⑤ **누가** ㉔에서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 즉 속물적 태도를 지닌 셋째 형 내외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며 비난하고 있다.

3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무엇을** 이만집의 비망록에는 속물적 인간들로 가득한 사회의 속악한 현실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왜 오답

- ① **무엇을** 이만집과 셋째 형수와의 갈등이 나타나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찾을 수 없다.
- ③ **언제 어디서** 계절의 변화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건이 다층적으로 변화하는 양상도 찾을 수 없다.
- ④ **어떻게** 비망록에서 서술되는 사건들은 동시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상반된 관점도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언제 어디서** 여러 감각을 사용해 배경을 묘사하는 부분이나 특정 인물에게 도래할 비극적 사건을 제시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4 답 ④

| 보기 | 오려 보기

「무기질 청년」은 일종의 액자 소설로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가 번갈아 가며 서술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이러한 중층 구조에서 서로 다른 ㉔ 내부 이야기의 '나'와 ㉔ 외부 이야기의 '나'는 유사한 시각을 드러내기도 하고 상이한 시각을 드러내기도 한다. ...

어떻게

이래서 정답

- ④ **어떻게** ㉔가 '비망록 어느 구석에도 어머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㉔는 ㉔의 어머니가 '일찍 타계하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 ㉔가 '늘 피해 의식에 시달린다'고 판단한 대상은 ㉔의 아버지와 망형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왜 오답

- ① **어떻게** ㉔는 아버지의 무능함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식하며 측은하게 여기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㉔는 '이만집은 제법 다혈질이랄까, 아직도 눈물이 메마르지 않은 듯하다.'라고 언급했으므로 적절하다.
- ② **어떻게** ㉔는 셋째 형을 돈을 좋아하는 속물적인 인간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대해 ㉔가 이만집의 셋째 형이 출세 지

향 주의자임을 언급하며 '사람들마다의 재주와 처세술도 이렇게 다양해야 된다'는 견해를 말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어떻게** ㉠은 '이제 아버지는 어떤 일에도 속수무책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는 이만집의 아버지에 대해 '무능하기 짝이 없으나 법 없이도 살 피해자들이고, 워낙 무능력하기 때문에 해를 끼칠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⑤ **어떻게** ㉢가 언급한 '어떤 신고나 불행도, 심지어 굶주림 까지도 말없이 수용'하는 아버지와 ㉣가 언급한 '생래부터 착한 심성으로 고생을 낙 삼고 살 양반'은 서로 유사한 시각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 공식 적용** 액자식 구성

[외부 이야기] 서술자인 '나'가 이만집의 비망록을 읽고 소감과 비평을 제시함.

[내부 이야기] '나'(이만집)가 자신의 삶을 일기로 기록하면서, 주변의 인물과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 비판하고 성찰함.

**+ 어휘**

- **비망록**: 잊지 않으려고 중요한 골자를 적어 둔 것. 또는 그런 책자.
- **토로**: 마음에 있는 것을 죄다 드러내어서 말함.
- **파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직무나 직업을 그만두게 함.
- **적당주의**: 일을 어물어물 요령만 피워 두루뭉술하게 해치우려는 태도나 생각.
- **부화뇌동**: 좇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
- **속물적**: 교양이 없거나 식견이 좁고 세속적인 일에만 신경을 쓰는 것.
- **냉소적**: 쌀쌀한 태도로 업신여기어 비웃는 것.
- **속악한**: 속되고 고악한.

**운영전**

누가	• 현실: 김 진사와 운영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전하는 유명 • 꿈: 안평 대군의 시객인 김 진사, 안평 대군의 공녀인 운영, 수성궁의 주인인 안평 대군, 김 진사의 하인인 특
언제 어디서	• 조선 시대 • 수성궁
무엇을	• 사랑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김 진사·운영과 그들을 방해하는 안평 대군·특과의 갈등 • 삽입 시,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를 매개하는 소재인 김 진사가 기록한 책, 적강 모티프
어떻게	서술자의 전환, 환몽 구성, 액자식 구성
왜	• 신분을 초월한 남녀의 비극적 사랑을 서술함. • 억압된 삶에 대한 저항과 자유 연애 사상을 서술함.

**1 답 ⑤**

**이래서 정답**

- ⑤ **무엇을** '김 진사'는 '특'이 우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 세상사에 뜻이 없어져 나흘 동안 먹지 않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따라서 '김 진사'가 자신의 목숨을 포기한 것은 '운영'의 재생을 위한 것이 아니다.

**왜 오답**

- ① **무엇을** "부처님, 특이란 종놈의 목숨을 끊고 쇠로 만든 칼을 씌워 지옥에 가두어 주옵소서."로 보아 적절하다.
- ② **무엇을** "우리는 인간 세계에 태어나기를 소망하지 않았습니다."로 보아 적절하다.
- ③ **무엇을** "그러다가 때때로 ~ 속세에서 예전에 노닐던 곳을 찾아보곤 한답니다."로 보아 적절하다.
- ④ **누가, 무엇을** '청량사에 올라갔습니다. 며칠을 묵으며 특이란 놈이 한 짓을 자세히 듣게 되었지요. 분을 이기지 못했으니'로 보아 적절하다.

**2 답 ②**

**| 보기 |** 오려 보기

「운영전」은 몽유자가 꿈속에서 남녀 주인공을 만나 겪은 일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는데, 현실이라는 외부 이야기 속에 꿈이라는 내부 이야기가 들어 있는 액자 구조를 갖추고 있다. ...

**어떻게**

**이래서 정답**

- ②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몽유자인 유영이 꿈속에서 남녀 주인공의 사연을 듣는 공간은 지상계의 수성궁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왜 오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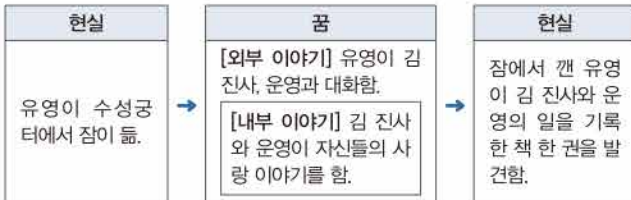
- ① **무엇을, 어떻게** 몽유자인 유영이 꿈에서 깨어난 후 발견한 책은 꿈속에서 김 진사가 기록한 책으로, 유영이 꿈속에서 김 진사와 운영을 만난 것이 사실임을 알려 준다. 따라



서 이 책은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를 매개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 ③ **어떻게** 내부 이야기에서 '나'는 남자 주인공인 김 진사로, 김 진사의 관점에서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 ④ **무엇을, 어떻게** 내부 이야기에서 남녀 주인공인 김 진사와 윤영이 한을 품고 죽는 것과 외부 이야기에서 몽유자인 윤영이 침식을 폐하다 자취를 감추는 것은 불행한 결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작품이 비극적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 ⑤ **무엇을, 어떻게** 남녀 주인공인 김 진사와 윤영이 읊은 시는 폐허가 된 수성궁을 보고 지은 것으로, '봄빛은 예와 같되 주인은 간 데 없네.'와 '눈물이 수긴 적심 금치 못하네.'와 같은 구절에서 슬픔과 무상감을 느낄 수 있다.

**문제 공식 적용** 환몽 구성과 액자식 구성



### 3 답 ②

◎ **이래서 정답**

- ② **누가** [A]에서 김 진사가 유영에게 보답할 것을 암시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왜 오답**

- ① **누가** “바닷물이 마르고 바위가 문드러져도”와 같은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며 “이 사랑의 감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또한 “천지가 다해도”와 같은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며 “이 한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 ③ **누가** “오늘 밤 그대와 만나 ~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유영과의 만남이 가지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누가** “저희가 쓴 글을 수습하시어 영원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유영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하며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 ⑤ **누가** “경망스런 사람의 입에 ~ 고맙겠습니다.”에서 자신들의 이야기가 우스갯거리가 되는 일을 우려하며 이를 막아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 **어휘**

- **매개**: 둘 사이에서 양편의 관계를 맺어 줌.
- **무상감**: 모든 것이 덧없다는 느낌.

어떻게

## 13 풍자, 해학, 희화화, 언어유희

**확인 1 답** (1) ○ (2) ○ (3) × (4) ×

◎ **이래서 정답**

- (1) 언어유희는 동음이의어, 각운, 동일한 소리 반복, 도치법 등의 말장난을 통해 재미를 이끌어 내는 표현 방식이다.
- (2) 희화화는 사건이나 대상을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거나 비판하고 풍자하는 방식이다.
- (3) 풍자는 대상의 결점이나 현실의 부정적 현상, 모순 따위를 빗대어 비웃으며 폭로하고 공격하는 서술 방식이다.
- (4) 해학은 우스운 말과 행동을 통해 남을 웃기는 익살스러운 서술 방식으로, 공격성이 없는 웃음을 유발한다.

**확인 2 답** 나, 르

◎ **이래서 정답**

- 나. ‘옹’이라는 동일한 소리를 반복하는 언어유희가 나타나 있다.
- 르.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동음이의어인 ‘문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언어유희가 나타나 있다.

**확인 3 답** (1) ○ (2) × (3) ○

◎ **이래서 정답**

- (1) ㉠에서 미스터 방은 자신이 말만 하면 기관총 든 엠피가 쏙발을 만들어 놓을 것이라며 으스대고 있다.
- (2) ㉡에서 미스터 방은 자신보다 강한 자에게 꿈쩍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3) 백 주사에게 으스대던 미스터 방이 S 소위에게는 빌다가 맞는 장면에서 미스터 방을 희화화하며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확인 4 답** ②

◎ **이래서 정답**

- ② ‘방자 놀이 ~ 부른 배가 딱 걸려서 들도 나도 아니하는구나.’에 배 비장의 모습이 해학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확인 5 답** (1) 비웃음 (2) 동음이의어

◎ **이래서 정답**

- (1) 북곽 선생은 범에게 아침하며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언영색한 태도는 비웃음을 유발한다.
- (2) “유(儒)란 것은 유(謔)라 하더니”에서 범은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를 통해 북곽 선생을 꾸짖고 있다.

IV

오답 노트

봄·봄

누가	점순에게 장가들기 위해 데릴사위로 들어와 머슴살이를 하는 '나', 계산적이고 교활한 마음인 장인(봉필), 봉필의 둘째 딸인 점순
언제 어디서	• 1930년대 봄 • 강원도 산골 마을
무엇을	'나'와 점순의 성례를 둘러싼 '나'와 장인의 갈등
어떻게	1인칭 주인공 시점, 역순행적 구성, 해학, 방언, 비속어
왜	혼인을 둘러싼 데릴사위와 장인 간의 갈등을 서술함.

1 답 ⑤

◎ 이래서 정답

- ⑤ **어떻게**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어수룩하고 순박한 '나'의 시각과 입장에서 서술하여 친근감을 주고 있다.

❖ 왜 오답

- ① **어떻게** '나'가 구장님을 찾아간 사건은 서술하는 시기보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다.  
 ②, ③ **무엇을, 어떻게**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적 소재나 여러 개의 삽화를 나열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어떻게** 시간적 배경이 변화하면서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로 인해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지는 않다.

2 답 ④

| 보기 | 오려 보기

... 해학적 상황에 빠진 인물이 해학적 상황을 불러일으킨 오해·음모·우연을 인식할 때까지 해학적 상황은 지속되고 ...

**어떻게**

◎ 이래서 정답

- ④ **어떻게** '나'는 '장인'과 '구장'의 말을 믿고 있으며, 음모의 진실을 끝까지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학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왜 오답

- ① **어떻게** '장인'이 꾀속말을 하고 간 뒤에 '구장'은 헐박과 회유를 하며 '나'를 설득하는 것으로 보아, '장인'과 '구장'은 공모자임을 알 수 있다.  
 ② **어떻게** "그럼 봉필 씨! 얼른 성례 시켜 주구려, 그렇게까지 제가 하구 싶다는 걸……."이라는 '구장'의 말을 들은 '나'는 '구장'이 자신을 편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장인'이 샷대질로 눈을 부라리자 바로 수궁하는 '구장'의 모습을 통해 '나'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어떻게** '구장'님이 장인님에게 땅 두 마지기 얻어 부치니까 그래 꾀였다'는 정보를 '나'에게 전하고 있는 문태는 독자

와 같은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어떻게** '나'는 자신이 '장인'과 '구장'에게 속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장인'과 '구장'의 말을 사실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해학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문제 공식 적용 해학

시점	정보 결핍 상태에 있는 '나'가 사건의 전말이나 다른 인물의 심리 등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한적인 관점으로 서술함.
문체	방언과 비속어를 사용함.
인물	어수룩하고 순박한 '나'와 이기적이고 교활한 장인이 대비됨.
상황	장인과 데릴사위의 관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 과장되어 제시됨.



웃음을 유발하고 해학성을 드러냄.

3 답 ①

◎ 이래서 정답

- ① **누가** '서울엘 좀 갔다 오더니 사람은 점잔해야 한다구 ~ 에헴 하고 늘 쓰담는 손버릇이 있다.'로 보아, ㉠은 서울의 문화에 대한 동경에서 비롯된 행동임을 알 수 있다.

❖ 왜 오답

- ② **누가** ㉠은 장인이 허세 부리는 모습으로, 보는 사람에게 호의적 반응을 일으키기 힘들다.  
 ③ **누가** ㉠은 구장의 행동이고, ㉡은 장인의 행동이다.  
 ④ **누가** ㉠과 ㉡은 모두 말의 억양, 어조, 장단 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이 아니다.  
 ⑤ **누가** ㉠은 "에헴" 하는 소리가 동반되지만, ㉡은 소리가 동반되지 않는다.

4 답 ⑤

◎ 이래서 정답

- ⑤ **무엇을** [A]에서 장인은 성례를 그만두자고 말하지 않았으므로, ㉢의 "하지만 원고가 정 그렇게 원한다면 계약은 없었던 일로 합시다."는 적절하지 않다.

❖ 왜 오답

- ① **무엇을** "그럼 봉필 씨! 얼른 성례 시켜 주구려, 그렇게까지 제가 하구 싶다는 걸……."로 보아 적절하다.  
 ②, ④ **무엇을** "아, 성례구 뭐구 기집애년이 미처 자라야 할 게 아닌가?"로 보아 적절하다.  
 ③ **무엇을** "그래, 거진 사 년 동안에도 안 자랐다니 그 킨은 제 자라지유?"로 보아 적절하다.

⊕ 어휘

- **공모자**: 공동으로 좋지 못한 일을 계획한 여러 사람.
- **허세**: 실속이 없이 겉으로만 드러나 보이는 기세.



### 서대주전

누가	교활하고 부도덕한 쥐인 서대주, 힘없는 다람쥐인 타남주, 무능력한 원님
언제 어디서	중국 농서 소토산, 남악산
무엇을	• 서대주와 타남주의 갈등 • 송사 모티프
어떻게	서술자의 개입(편집자적 논평), 순행적 구성, 풍자, 비유적 표현
왜	서대주(조선 후기 양반)의 부정적 행태와 원님(조선 후기 관리)의 무능력에 대해 풍자함.

## 1 답 ①

### ◎이래서 정답

- ① **어떻게** 서대주가 단정히 꿰어앉아 두 손을 모아 슬피 비는 모습에 대하여 ‘보는 자가 더할 나위 없이 애처롭고 불쌍하다고 할 만한 것이었다.’라고 평하는 부분에서 서술자의 주관적 논평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상의 아등, 적은 것들, 부녀 또는 가마 메는 줄부 등이 서대주의 자손들을 만나기만 하면 죽여 버리는 것에 대하여 ‘이것은 즉 서대주가 사람을 해친 마음에 대한 앙갚음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평하는 부분에서 서술자의 주관적 논평을 확인할 수 있다.

### ❖왜 오답

- ② **어떻게** ‘서대주가 옷섶을 고쳐 여미며 ~ 옷깃을 적시니’에 서대주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어떻게** 이 글은 송사 과정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을 뿐, 액자식 구성은 활용하지 않았다.
- ④ **어떻게** 과장된 비유는 나타나 있지 않으며, 급박한 상황을 부각하는 부분도 없다.
- ⑤ **어떻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뿐, 현재와 과거의 사건이 교차되고 있지 않다.

## 2 답 ⑤

### ◎이래서 정답

- ⑤ **누가** [A]에서 서대주가 자신의 특별한 공적을 나열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왜 오답

- ① **누가** “이놈의 평상시 소행을 제가 하나하나 다 아뢰겠나이다. ~ 세상천지에 이와 같은 맹랑하고 무뢰한 놈이 있겠습니까?”에서 타남주의 부당한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누가** 타남주가 “맹랑하고 무뢰한 놈”, “무도하고 못난 놈”인 것과 달리 자신은 “대대로 공훈이 있는 가문의 후손”임을 밝히며 자신의 말을 믿도록 설득하고 있다.

- ③ **누가** “저는 본시 대대로 부유하여 ~ 빌어먹는 놈의 밥을 흠뻑했다는 것이 어찌 옳겠습니까?”라며 자신이 무고를 당했음을 주장하고, “밝게 살피시는 원님께 엎드려 바라건대, 사정을 살피시어 원한을 풀어 주옵소서.”라며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④ **누가** 서대주는 원님에게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고, “제가 비록 매우 졸렬하기는 하지만”과 “밝게 살피시는 원님께”와 같은 표현에서 청자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 있으므로 겸양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답 ②

### ◎이래서 정답

- ② **누가** 서대주는 거짓말이 있다면 엄한 형벌로 치죄를 할 것이라는 형리의 말을 듣고 속으로는 별별 떨렸지만 태연히 정신을 진정하고 안색을 변치 않고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로 보아 서대주는 ‘마음에 어떠한 충동을 받아도 움직임이 없이 천연스러움.’을 뜻하는 ‘태연자약’의 태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왜 오답

- ① **누가** ‘와신상담’은 ‘불편한 쉼에 몸을 눕히고 쓸개를 맞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뎌 버리는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서대주가 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뇌물을 주어 옥에서 편하게 지냈으므로, ‘와신상담’했다고 보기 어렵다.
- ③ **누가** ‘권토중래’는 ‘어떤 일에 실패한 뒤에 힘을 가다듬어 다시 그 일에 착수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서대주의 실패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권토중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누가** ‘살신성인’은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인(仁)을 이룸.’을 뜻한다. 서대주가 자기의 몸을 희생하지는 않았으므로, ‘살신성인’의 자세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⑤ **누가** ‘토사구팽’은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 없게 되어 주인에게 삶아 먹히게 된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서대주가 버림받는 상황에 처해 있지 않으므로, ‘토사구팽’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고 보기 어렵다.

## 4 답 ④

### | 보기 | 오려 보기

... 우화 소설은 이러한 소설적 형상화 방식을 통해 인간 세태에 대한 풍자를 드러내는 문학이라 할 수 있다. ... **어떻게**

⑥ 이래서 정답

- ④ **어떻게** 타남주는 밤을 도둑맞은 피해자임에도 원님의 잘못된 판결 때문에 귀양을 가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말을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윤리 의식'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왜 오답

- ① **어떻게** '수졸'은 서대주로부터 물건을 받고 대단히 좋아하며 서대주의 편의를 봐 주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뇌물을 받는 부패한 관리를 풍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어떻게** '원님'은 타남주의 밤을 훔친 서대주를 놓아주고, 도리어 타남주를 외딴섬으로 귀양을 보내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이를 통해 시비를 올바르게 가리지 못하는 무능한 판관을 풍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어떻게** '서대주'가 "저는 본시 대대로 부유하여", "대대로 공훈이 있는 가문의 후손으로서"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서대주'는 양반을 대변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서대주'는 밤을 훔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며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서대주'를 통해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하며 부도덕하게 살아가는 양반을 풍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어떻게** '뽕죽한 입이 오물거리고 두 귀가 발췌거리며'는 쥐의 외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해 공식 적용 풍자

수졸	뇌물을 받고 서대주의 편의를 봐 줌.	→	뇌물을 받는 부패한 관리를 풍자함.
원님	밤을 훔친 서대주는 놓아주고, 죄가 없는 타남주는 귀양 보냄.	→	시비를 올바르게 가리지 못하는 무능한 판관을 풍자함.
서대주	타남주의 밤을 훔쳤으면서도, 원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고를 당했다고 주장함.	→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하며 부도덕하게 살아가는 양반을 풍자함.

+ 어휘

- **공작**: 노력과 수고를 들어 이루어 낸 일의 결과.
- **무고**: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
- **야박하게**: 야멸치고 인정이 없게.

웅고집전

누가	성격이 과묵하고 욕심이 많으며 불효자인 진짜 웅고집, 학 대사가 벼집으로 만든 가짜 웅고집
언제 어디서	• 조선 후기 • 웅진골 웅당촌
무엇을	• 진짜 웅고집과 가짜 웅고집의 갈등, 벼집으로 가짜 웅고집을 만드는 사건에 드러나는 전기성 • 진짜와 가짜가 다투는 진가쟁주 모티프, 송사 모티프
어떻게	전지적 작가 시점, 서술자의 개입, 순행적 구성, 언어유희
왜	권선징악과 개과천선을 통한 인간의 참된 도리를 서술함.

1 답 ④

⑥ 이래서 정답

- ④ **어떻게** '얼굴도 같고 의복도 같고 머리, 가슴, 팔뚝까지 같았으니, 그 진위를 뉘라서 가리리요.'에 서술자의 목소리가 직접 드러나 있다.

③ 왜 오답

- ① **어떻게** 가짜 웅가가 나타나 진짜 웅가와 함께 송사를 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으나, 이 사건을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② **언제 어디서**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③ **어떻게** 새로운 사건의 도입이나 서술자 교체가 이루어진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⑤ **어떻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을 뿐, 현재와 과거 장면이 교차되고 있지 않다.

2 답 ⑤

⑥ 이래서 정답

- ⑤ **누가** 진짜 웅가는 곤장을 더 맞을까 봐 "웅가가 아니오니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며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 보아 진짜 웅가가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는 강인한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없다.

③ 왜 오답

- ① **무엇을** '호적을 맡아보는 관리를 불러 놓고, 양 웅의 호적을 강 받을 제'로 보아, 관청에서 백성들의 호적을 관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무엇을** 사또가 진짜 웅고집을 알아낼 방법을 몰라서 고민할 때, 형방이 "두 백성의 호적을 상고하여 보사이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로 보아 형방은 사또를 보좌하는 참모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무엇을** '육방의 아전과 내빈 행객 불러내어 ~ 가짜 웅가가 진짜 웅가 같아 전혀 알 수 없는지라.'로 보아, 사람들



이 진짜 웅가와 가짜 웅가를 구분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무엇을** '두 웅가가 이 말을 옳게 여겨, 서로 잡고 관청에 달려가서 송사를 아뢰었다.'로 보아, 누군가가 관청에 가서 진위를 가리도록 충고했음을 알 수 있다.

### 3 답 ②

#### ◎이래서 정답

- ② **어떻게** [A]에서는 진짜 웅가와 가짜 웅가의 말을 통해 서로 자신이 진짜 웅고집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서술자가 상황을 직접 이야기 해 주고 있다.

#### ❖왜 오답

- ① **언제 어디서** [A]와 <보기>에서 공간적 배경을 묘사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③ **어떻게** [A]에서는 등장인물의 말을 직접 보여 주고 있지만, <보기>에서는 서술자에 의해 간략하게 제시되었다.
- ④ **어떻게** [A]와 <보기>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나 결말을 암시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⑤ **어떻게** [A]와 <보기>에서 상황을 상세히 묘사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4 답 ②

#### | 보기 | 오려 보기

... 이러한 언어유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구현되는데, 동일한 소리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음어나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하는 경우, 말꼬리를 이어 연결하는 경우, 말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 의성어나 의태어를 활용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어떻게**

#### ◎이래서 정답

- ② **어떻게** [B]에는 '웅송', '만송'이라는 인물의 이름과 의미는 다르지만 발음이 유사한 '웅송만송'이라는 말을 연결하는 언어유희가 나타나 있다. ②에서 '개잘랑'과 '개다리소반'을 활용해 양반의 뜻을 풀이하는 것도 의미는 다르지만 발음이 유사하다는 점을 활용한 언어유희에 해당하므로 ②에는 [B]와 같은 특성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 ❖왜 오답

- ① **어떻게** '문'과 '바람', '물'과 '목'의 위치를 뒤바꾸는 말장난이 나타나 있으므로 [B]와 같은 특성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없다.
- ③ **어떻게** '삼 년이요'라는 동일한 소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B]와 같은 특성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없다.
- ④, ⑤ **어떻게** '뽕뽕'(④), '주루룩, 싹싹'(⑤)과 같은 의성어

와 의태어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B]와 같은 특성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없다.

#### 문제 공식 적용 언어유희

- "민의 아버 이름은 웅송이옵고 할 아버지는 만송이옵니다."
- "그놈 호적은 웅송만송하여 전혀 알 수 없으니"

개잘랑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를 쓰는 양반이 나오 신단 말이오.

동음이의어(동음어)나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해 재미를 이끌어 냄.

### 5 답 ①

#### ◎이래서 정답

- ① **무엇을** 사또는 집안의 사정을 자세하게 말한 가짜 웅가의 진술을 듣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가짜 웅가를 진짜 웅고집이라고 판단하였다.

#### ❖왜 오답

- ②, ③ **무엇을** 두 웅고집은 서로 자신이 진짜 웅고집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집안 내력은 같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명문 귀족 출신이라거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짜 웅가를 진짜 웅고집이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 없다.
- ④ **무엇을** 가짜 웅가는 집안의 내력을 자세하게 말한 뒤 "저렇듯 무도한 놈을 처치하사 타인을 경계하옵소서."라고 말 하였을 뿐, 보답할 것을 약속하지는 않았다.
- ⑤ **무엇을** 가짜 웅가의 진술에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 어휘

- **호적**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하여 그 집에 속하는 사람의 본적지, 성명, 생년월일 따위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
- **참모**윗사람을 도와 어떤 일을 피하고 꾸미는 데에 참여함. 또는 그런 사람.
- **웅송만송** 뒤송송하게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고 흐리멍덩한 모양.

**확인 1 답** (1) ○ (2) × (3) ○

◎ 이래서 정답

- (1) 작품에 사용된 비속어와 방언을 통해 인물의 성격이나 이미지와 같은 특성이 구체화되기도 한다.
- (2) 과거형 어미가 아니라 현재형 어미를 사용할 때 사건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현장감과 생동감을 줄 수 있다.
- (3)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같은 감각을 자극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 사건, 배경 등을 묘사하면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다.

**확인 2 답** ①

◎ 이래서 정답

- ① <보기>의 ‘올린다’, ‘편다’ 등에서 현재형 어미 ‘-는다’를 사용하여 인물 간의 갈등 상황을 실감나게 제시하고 있다.

**확인 3 답** ②

◎ 이래서 정답

- ② <보기>에 향토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 왜 오답

- ① 달밤의 고요함과 산허리의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시각적 이미지, 공감각적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감각적 문체로 묘사하고 있다.
- ③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등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확인 4 답** (1) 간결체 (2) 만연체

- (1) (가)에서는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간결체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 (2) (나)에서는 심표를 많이 활용한 긴 문장으로 여러 대상과 장면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만연체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확인 5 답** ②

◎ 이래서 정답

- ② <보기>의 “배가 좀 아파서유!” 등에서는 방언을, “이 대가릴 까 놀 자식.” 등에서는 비속어를 사용하여 ‘나’와 장인이 싸우는 모습을 토속적이고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다.

### 토지

누가	독립적이고 강인한 성격을 가진 최 참판가의 최서희, 최 참판가의 외가 쪽 친척인 교활하고 탐욕적인 조준구 내외
언제 어디서	• 구한말 ~ 1945년 해방 • 경남 하동, 서울, 만주(북간도) 등
무엇을	• 최씨 일가의 3대에 걸친 파란만장한 삶(수록 부분: 최 참판가의 유일한 핏줄인 최서희와 가문의 재산을 가로챈 조준구 내외의 갈등) •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조국, 즉 국토를 의미하는 토지
어떻게	일대기 구성, 현재형 진술, 방언, 비속어, 비유적 표현
왜	일제 강점기를 살아간 우리 민족의 삶의 애환과 강인함을 서술함.

**1 답** ④

◎ 이래서 정답

- ④ **누가** ‘빌어먹을, 이거 다 된 죽에 코 빠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날을 다가야겠다.’를 통해 삼수의 제안을 거절한 윤보가 삼수로 인해 최 참판가를 습격하려는 거사가 실패할까 봐 염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왜 오답

- ① **무엇을** “하기사 전력이 있으니께 나를 믿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소.”를 통해 삼수는 자신이 조준구에게 협조하며 마을 사람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윤보가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누가, 무엇을** ‘읍내서 헌병, 순사들이 왔다는 말에 흥 씨는 겨우 본채로 돌아갔다.’를 통해 흥 씨는 서희와 봉순의 반격이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헌병과 순사들 때문에 본채로 돌아갔음을 알 수 있다.
- ③ **무엇을** “머 내가 휘방을 놓자고 ~ 너무 그러지 마소.”를 통해 삼수가 최 참판가를 습격하려는 윤보를 휘방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조준구를 먼저 칠 것을 제안하기 위해 찾아온 것임을 알 수 있다.
- ⑤ **무엇을** ‘조준구는 바로 저놈이 폭도의 앞잡이었다고 이미 한 말을 다시 강조할 뿐이다.’를 통해 조준구는 헌병에게 삼수가 의병의 앞잡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답** ⑤

◎ 이래서 정답

- ⑤ **언제 어디서** [A]에서는 ‘자정’이 넘은 시간, ‘칠혹의 밤’과 같은 시간적 배경을 통해 장정들이 습격을 준비하는 장면의 긴장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B]에는 방에서 연못으로의 공간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흥 씨와 서희가 대립하는 원인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왜 오답

- ① **어떻게** [A]에서는 ‘덩어리 같은 침묵’과 같은 비유적 표현



을 통해 타작마당에 장정들이 은밀하게 모이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어떻게** [B]에서는 ‘와락와락’, ‘고래고래’와 같은 음성 상징어를 통해 서희의 앞가슴을 잡아 흔들고 서희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흥 씨의 행동이 격렬함을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다.
- ③ **어떻게** [A]에서는 깊은 밤 타작마당에 장정들이 모여드는 장면을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고, [B]에서는 ‘그는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와 같이 인물의 내면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
- ④ **어떻게** [A]에서는 ‘자정이 넘었다’, ‘장정들이 모여들었다’와 같이 과거 시제가 쓰이다가, ‘개들이 짖는다’, ‘인적이 가 난다’, ‘보이지 않는다’, ‘움직이기 시작한다’와 같이 현재형으로 시제가 바뀌면서 장면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B]에서는 ‘흔들어 댄다’, ‘변한다’, ‘남는다’, ‘뛰쳐나간다’와 같은 현재형 진술을 통해 흥 씨와 서희의 갈등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문해 공식 적용** 현재형 진술

현재형 진술	표현 효과
‘짖는다’, ‘시작한다’, ‘흔들어 댄다’, ‘뛰쳐나간다’, ‘남는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장감 유발</li> <li>인물 간 갈등을 생동감 있게 전달</li> </ul>

### 3 답 ③

① **이래서 정답**

- ③ **누가** “네년 소행인 줄 뉘 모를 줄 알았더냐?”를 통해 흥 씨는 간밤에 자신을 습격했던 윤보 무리가 서희와 관련되어 있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흥 씨는 윤보 일행의 습격을 ‘화적 놈’과 공모한 서희의 소행이라고 판단하여 ㉠과 같이 말한 것이다.

② **왜 오답**

- ① **누가** 삼수는 ㉠에서 속담을 활용하여 조준구를 먼저 치면 재물도 얻고 조준구도 제거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을 뿐, 윤보의 계획을 숨길 수 있음을 알리고 있지는 않다.
- ② **누가** 삼수가 윤보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기는 했지만 동네에 알려졌다면 윤보를 협박하고 있지는 않다. 삼수는 ㉠에서 조준구에게 윤보의 계획을 고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자신을 믿어 달라고 청하고 있을 뿐이다.
- ④ **누가** ㉡은 서희가 흥 씨의 뻔뻔함과 영악함이 도를 넘었음을 경고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니라, 흥 씨에게 자신의 영악함이 범보다 더 무섭다고 표현하기 위해 한 말이다.
- ⑤ **누가** “이놈! 네 죄를 몰라 하는 말이나?”, “능지처참할 놈 같으니라구.” 등을 통해 조준구가 삼수에게 분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난밤 조준구를 습격한 것은 삼수가 아니라 윤보이며, 삼수는 오히려 윤보 일행이 습격했을 당시 조준구를 도와준 인물이다.

### 4 답 ③

| 보기 | 오래 보기

「토지는 개화기부터 해방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수난과 저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

**언제 어디서 왜**

① **이래서 정답**

- ③ **무엇을** 봉순이 달려들어 서희 몸을 잡아당긴 것은 흥 씨로부터 서희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므로, 이를 신분 질서의 붕괴나 봉순과 서희의 협력 관계가 약화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왜 오답**

- ① **무엇을** 삼수는 최 참판가 습격을 준비하던 윤보에게 조준구를 먼저 습격하라고 제안하지만, 윤보는 이를 안 들은 걸로 해 두겠다고 삼수에게 말한다. 이를 통해 윤보는 삼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삼수와 협력 관계를 거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무엇을** 윤보가 의병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 참판가 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앞부분 줄거리와, ‘왜놈들하고 한통속인 조가 놈’을 먼저 치라는 삼수의 말로 볼 때, 타작마당에 모인 장정들과 윤보는 조준구로 대표되는 친일 세력과 대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무엇을** 죽을 생각을 했던 서희는 “내가 왜 죽지? 누구 좋아하라고 죽는단 말이나?”라고 말하며 흥 씨의 눈을 똑바로 주시하고 있다. 이는 서희가 흥 씨의 패악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흥 씨와 서희가 대립 관계를 이어 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 ⑤ **무엇을** 윤보에게 조준구를 치라고 부추기던 삼수는 사당마루 밑에 숨은 조준구를 돕고, 위기를 넘긴 조준구는 삼수를 폭도로 몰고 있다. 이로 볼 때 조준구와 삼수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적에서 동지, 동지에서 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해 공식 적용** 배경의 종류와 역할

구한말(시간) 하동 평사리(공간)	일제 강점기(시간) 간도 지방(공간)	3·1 운동~광복(시간) 진주, 서울, 만주 등(공간)
최 참판 일가의 몰락, 토지 상실	상인으로 부 축적(서희), 독립운동(길상)	거대 지주와 상인으로 성장, 국내외 독립운동 전개

최서희를 중심으로 한 최 참판가의 가족사가 구한말에서 해방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수난사로 확장됨.

③ **여휘**

- **거사** 매우 거창한 일.
- **소행** 이미 해 놓은 일이나 짓.
- **피력** 생각하는 것을 털어놓고 말함.

춘향전

누가	퇴계(지금은 기생이 아니지만 전에 기생 노릇을 하던 여자를 이르는 말) 월매의 딸 성춘향,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이 도령), 부패한 탐관오리인 변학도(변 사또)
언제 어디서	• 조선 후기 • 전라도 남원
무엇을	• 이몽룡에 대한 절개를 지키려는 춘향과 권력을 이용하여 춘향을 취하려는 변학도 사이의 갈등 • 탐관오리를 응징하려는 이몽룡과 탐관오리인 변학도 사이의 갈등 •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나려는 춘향과 사회의 갈등
어떻게	서술자의 개입, 장면의 극대화, 풍자, 해학, 회화화, 언어유희, 음성 상징어, 비속어, 비유적 표현
왜	신분을 초월한 사랑,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과 저항 의식, 신분적 갈등의 극복을 통한 인간 해방을 서술함.

1 답 ⑤

❶ 아래서 정답

- ⑤ **어떻게** '울음이란 것이 말리는 사람이 있으면 더 울게 되는 것이니, 이 도령 기가 막혀 더욱 쉽게 운다.'에서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서술자가 이 도령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❷ 왜 오답

- ① **어떻게** 중략 이전은 춘향과 이 도령의 대화를 중심으로, 중략 이후는 춘향과 월매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② **어떻게** 춘향을 두고 서울로 떠나야 하는 슬픔에 눈물이 나지만 울 수 없는 이 도령의 심정을 '두부장 끓듯'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또 이 도령과 함께 할 수 없어 화가 난 춘향의 심정을 '아픈 입 틀 듯', '매가 핼을 차듯' 등의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③ **어떻게** "이년 이년, 썩 죽어라. 살아서 쓸데없다. 너 죽은 시체라도 저 양반이 지고 가게 어서 썩 죽어라. ~ 이년 이년, 말 듣거라."에서 월매는 비속어를 사용하여 이 도령과 이별하게 된 춘향에게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어떻게** '붉으락푸르락', '뽀도독뽀도독', '와드룩 좌르룩', '와드득', '썹썹', '동동', '탁탁' 등과 같은 의성어·의태어를 통해 이별해야 한다는 이 도령의 말에 화를 내고 서러워하는 춘향의 모습을 사실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문해 공식 적용 비유적 표현, 비속어, 음성 상징어

비유적 표현	비속어	음성 상징어	표현 효과
'두부장 끓듯'(이 도령), '아픈 입 틀 듯, 매가 핼을 차듯'(춘향)	'이년 이년, 썩 죽어라', '이년 이년, 말 듣거라'	'붉으락푸르락', '뽀도독뽀도독', '와드룩 좌르룩', '와드득', '썹썹', '동동', '탁탁' 등	등장인물들의 행동이나 심정을 생생하고 사실감 있게 드러냄.

2 답 ②

❶ 아래서 정답

- ② **누가** "대부인 앞에 여쭙았더니 꾸중이 대단하시며 양반의 자식이 부형 따라 지방에 내려왔다가 기생첩 두려 데려간다는 말이 앞길에도 괴이하고 조정에 들어가 벼슬도 못한다 하니"를 통해 대부인(㉠)은 춘향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 도령의 앞날이 걱정되어 화를 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저 양반 올라가면 누구 간장을 녹이려느냐. ~ 너와 같은 봉황의 짝을 얻어 내 앞에 노는 양을 내 눈으로 보게 되면 너도 좋고 나도 좋다 이르지 않았느냐."를 통해 월매(㉡)는 이 도령과 이별하게 된 춘향이 걱정되어 화를 내었음을 알 수 있다.

❷ 왜 오답

- ① **누가** "기생첩 두려 데려간다는 말이 앞길에도 괴이하고 조정에 들어가 벼슬도 못한다 하니"를 통해 ㉠은 이 도령의 입신출세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은 이 도령과의 신분 차이로 이별하게 된 춘향을 걱정하고 있을 뿐 춘향의 입신출세를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③ **누가** ㉠은 춘향과 함께 서울로 가고 싶어 하는 이 도령을 신분 차이를 이유로 꾸중하고 있으므로 신분적 제약이 있는 현실에 순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 이 도령과 이별하게 된 춘향에게 화를 내며 신분이 같은 짝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신분적 제약이 있는 현실에 순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누가** ㉠은 신분 차이를 이유로 춘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아들을 꾸중했으므로 신분 차이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도 춘향에게 신분이 같은 짝을 얻었어야 한다고 화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분 차이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 ⑤ **누가** "꾸중이 대단하시며 양반의 자식이 부형 따라 지방에 내려왔다가 기생첩 두려 데려간다는 말이 앞길에도 괴이하고"를 통해 ㉠은 양반의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물질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3 답 ①

❶ 아래서 정답

- ① **누가** ㉠에서 춘향은 신분 차이로 인한 자신의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고 이 도령과 함께 서울로 갈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에 현실을 비판하려는 춘향의 의도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없다.

❷ 왜 오답

- ② **누가** ㉡에서 춘향은 이 도령의 첩이 되어서 함께하고 싶



다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누가** ㉔에서 이 도령은 신분 차이를 이유로 어머니가 춘향의 일을 청하는 자신을 꾸중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춘향의 욕망이 달성되기 어려운 이유는 신분 차이로 인한 집안의 반대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④ **누가** ㉕에서 춘향은 이 도령과 함께하고자 했던 욕망이 좌절되자 격렬하게 화를 내고 있다.
- ⑤ **누가** ㉖에서 월매가 춘향에게 형세·지체 너와 같은 짝을 얻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춘향의 욕망이 좌절된 것은 춘향과 이 도령의 신분 차이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4 답 ①

##### ㉔ 이래서 정답

- ① **누가** 춘향은 서울로 떠나게 된 이 도령에게 함께할 방법을 제안하지만, 이 도령은 이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춘향은 이 도령에게 급격한 태도 변화를 보이며 원망과 설움을 토로하고 화를 내고 있다. 따라서 춘향에게는 갑작스런 이별이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이었음을 부각시켜 보여 주면 시청자들도 춘향의 급격한 태도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 ㉕ 왜 오답

- ② **누가** 급격하게 변한 춘향의 행동을 춘향이 평소에 드러내지 않았던 본모습이라고 나타내면 시청자들은 춘향을 더욱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 ③ **누가** 춘향이 화를 내는 대상은 이별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도령이므로, 춘향의 행동을 지배 계층에 대한 서민들의 분노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누가** 춘향이 이 도령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일부러 과장된 행동을 하는 것인지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 ⑤ **누가** 춘향은 이 도령의 첩이 되어서 함께하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이 도령을 통해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볼 수는 없다.

##### 문제 공식 적용 인물의 유형과 심리·태도

성춘향	이 도령(이몽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기인 월매와 참판 사이에서 태어나 가생의 신분임.</li> <li>• 신분적 제약을 뛰어넘어 사랑을 성취하고자 함.</li> <li>• 의지적·적극적 인물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원 부사의 아들로 양반 신분임.</li> <li>• 초반에는 가볍고 철없는 모습을 보이지만, 점차 성숙해져 신의 있는 모습을 보임.</li> <li>• 의리가 있는 인물임.</li> </ul>

#### 5 답 ①

##### ㉔ 이래서 정답

- ① **누가** [A]에서 서울로 떠나게 된 이 도령은 함께할 방법을 제안한 춘향에게 이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고, 이

를 들은 춘향은 놀라 원망과 설움을 토로하며 화를 내고 있다. 따라서 춘향의 심정을 드러내기에 적절한 한자 성어는 ‘맑게 갠 하늘에서 치는 날벼락’이라는 뜻으로, 뜻밖에 일어난 큰 변고나 사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청천벽력’이다.

##### ㉕ 왜 오답

- ② **누가** ‘전전궁궁’은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이라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누가** ‘와신상담’은 ‘불편한 쉼에 몸을 눕히고 쓸개를 맞는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뎌 버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누가** ‘자승자박’은 ‘자기의 줄로 자기 몸을 묶는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기 자신이 얽혀 곤란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누가** ‘동상이몽’은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꾸는’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판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 어휘

- **격양** 기운이나 감정 따위가 격렬히 일어나 높아짐.
- **형세** 실림살이의 형편.
- **지체** 어떤 집안이나 개인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신분이나 지위.
- **웁아** 끈이나 줄 따위로 단단히 감아.

청산택

누가	6·25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월남전으로 아들을 잃은 청산택
언제 어디서	• 일제 강점기 ~ 1960년대(월남전) • 전라도의 어느 읍
무엇을	역사적 수난(일제 강점기, 6·25 전쟁, 월남전)으로 인한 청산택의 기구한 삶
어떻게	역사행적 구성(회상), 방언
왜	역사적 수난 속에서 희생당하는 민중의 기구한 삶과 치유의 가능성을 서술함.

1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어떻게** [A]의 “청산택 기시요?”, “누구다요?”, “마침 기셨구만이라.”, “워편 일이요. 일로 앉으씨요.” 등에서 사투리를 활용하여 반장이 읍사무소 직원과 함께 찾아와 청산택과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사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왜 오답

- ① **어떻게** [A]에 요약적 서술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과거 상황이 제시되어 있지도 않다.
- ③ **어떻게** [A]에 청산택과 반장의 대화, 청산택과 읍사무소 직원의 대화는 제시되어 있지만, 이를 통해 청산택이나 반장, 읍사무소 직원의 성격 변화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④ **어떻게** [A]에 회상하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갈등 해소의 실마리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어떻게** [A]에 인물의 반복적 행위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긴박한 분위기도 조성되어 있지 않다.

문해 공식 적용 방언

방언	표현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장: “청산택 기시요?”, “마침 기셨구만이라.”, “괜찬오요. 근디, 읍사무소서 나온 양반이요.”</li> <li>청산택: “누구다요?”, “워편 일이요. 일로 앉으씨요.”, “세금 다 냈는디 읍사무소는 무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물들의 대화 상황을 사실감 있게 전달함.</li> <li>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함.</li> </ul>

2 답 ③

보기 | 오려 보기

이 작품에는 역사적 질곡이 빚어낸 민족의 희생이 드러나는데, ... 자식에 대한 사랑과 자손을 지키려는 의지로 발현된 개인의 강인한 모성은 시대의 아픔에 대한 치유와 극복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

왜

이래서 정답

- ③ **왜**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충격과 슬픔에 깨무러쳤던 청산택은 다시 정신을 차린 후 낫을 들고 머리를 풀어 해

치고 맨발인 채로 뛰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이는 청산택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지 사회를 치유하려는 개인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다.

왜 오답

- ① **왜** 청산택의 남편이 일제 강점기에는 징용에 끌려가고, 6·25 전쟁이 일어난 후에는 전쟁터로 끌려 나갔다는 것에서 역사적 질곡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희생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왜** 청산택은 아들이 월남전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6·25 전쟁에서 전사한 남편을 떠올리며 남편과 아들의 얼굴이 뒤범벅이 되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전쟁으로 가족의 죽음을 반복하여 겪는 여성의 수난을 엿볼 수 있다.
- ④ **왜** 전쟁으로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잃은 상황에서도 청산택은 며느리에게 자식을 위해서라도 이를 악물고 살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자손을 지키려는 여성의 강인한 모성을 엿볼 수 있다.
- ⑤ **왜** 청산택은 손자 돌잔치에 쓰려고 장만했던 쌀로 아들의 장례식에 쓰기 위해 아들이 좋아하던 송편을 밤이 늦도록 온 정성을 다해 빚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엿볼 수 있다.

문해 공식 적용 나라·사회\_역사적 수난 속 청산택의 기구한 삶

일제 강점기	6·25 전쟁	월남전
남편이 징용을 감.	남편이 전사함.	아들이 전사함.

청산택의 삶을 통해 역사적 질곡으로 인한 민족의 수난과 시대의 아픔에 대한 치유와 극복의 가능성을 보여 줌.

어휘

- 질곡**: 몹시 속박하여 자유를 가질 수 없는 고통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발현**: 속에 있거나 숨은 것이 밖으로 나타나거나 그렇게 나타나게 함. 또는 그런 결과.
- 치유**: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함.



확인 1 답 (1) ○ (2) × (3) ×

이래서 정답

- (1) 이 글에서는 이승의 양생과 저승의 여인 사이의 사랑과 이별을 다루고 있으므로 생사를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여인과 양생은 여인이 저승길로 떠나게 되어 헤어지게 된 것이므로 여인의 부모의 반대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3) 여인은 저승길을 떠나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양생과 헤어지고 있으므로 여인이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고 양생과의 인연을 이어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확인 2 답 ①

이래서 정답

- (1) 이 글에서는 '나'를 좋아하는 소녀인 '점순'과 '점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박한 소년인 '나'의 사랑을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다.

확인 3 답 ②

이래서 정답

- (2) <보기 2>에 따르면 허 노인은 줄타기에 대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지닌 장인으로, 단장이나 관객들의 요구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엄격성을 지키려는 인물로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재주를 부리라는 단장의 요구는 허 노인의 예술적 신념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허 노인이 땀을 흘리며 곤란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 오답

- (1) 재주를 부리라는 단장의 요구는 '세속적 가치를 강요하는 외부의 압력'에 해당하므로 허 노인이 지키려는 장인으로 서의 엄격성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
- (3) 재주를 부리라는 단장의 요구에도 줄타기 자세를 바꾸지 않고 전처럼 줄을 타는 허 노인의 모습에서 세속적 가치에 영합하지 않고 자신의 예술 세계를 지키려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어휘

- 영합: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며 좇음.

채봉감별곡

누가	개인적 욕망에 따라 능동적·주체적으로 행동하며 사랑을 이루어 가는 채봉과 필성
언제 어디서	• 조선 후기 • 평양, 서울
무엇을	• 채봉과 필성이 장애를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어 가는 과정 • 가사 「추풍감별곡」의 삽입, 혼사 장애 모티프
어떻게	간접 제시, 순행적 구성, 비유적 표현
왜	권세에 굴하지 않는 순결하고 진실한 사랑을 서술함.

1 답 ②

이래서 정답

- (2) **어떻게** 이 글은 김 참봉과 이 부인, 김 참봉 내외와 채봉, 채봉과 취향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왜 오답

- (1) **어떻게**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구어체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서민들의 삶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3) **어떻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순행적 구성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4) **언제 어디서** 서울에 갔던 김 참봉이 평양으로 돌아왔다는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통해 작품의 사실감을 더해 주고 있지는 않다.
- (5) **어떻게** 인물이 처한 상황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이를 과장하여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2 답 ⑤

이래서 정답

- (5) **누가** “나는 여자의 몸이 되어 ~ 부모의 근심을 끼칠지라도 내 몸이나 불의지죄를 면하리라.”와 “아무리 부모의 분부인들 그런 중한 언약을 오늘날 배반할 수 있겠느냐?”에서 채봉은 필성과의 사랑과 신의를 지키기 위해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더라도 부모의 분부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채봉이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왜 오답

- (1) **누가** 채봉이 필성과의 사랑과 신의를 지키기 위해 부모의 분부를 따르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 (2), (4) **누가** 채봉이 허 판서의 첩이 되기를 바라는 김 참봉에게 “차라리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땀이 되기는 원이 아니올시다.”라고 말하는 데서 사리 판단이 분명하고(2)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전달할 줄 아는 채봉의 주체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④).

- ③ **누가** “부은 같은 이 세상에 ~ 가없고 한심한 일이고구나.”에서 채봉은 부모에 의해 허 판서의 첩으로 가게 될 처지에 놓인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서글퍼하고 있다.

### 3 답 ④

① **이래서 정답**

- ④ **누가** 채봉을 허 판서의 첩으로 보내자는 김 참봉의 말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던 이 부인은 정경부인이 될 수 있다는 김 참봉의 말에 설득당해 김 참봉의 편이 되어 채봉에게 허 판서의 첩이 되라고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이 부인이 채봉이 겪는 갈등 상황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왜 오답**

- ① **언제·어디서** 채봉의 아버지가 허 판서에게 돈을 주고 벼슬을 사서 참봉이 된 것을 통해 매관매직이 행해지던 당시의 타락한 사회상이 드러나고 있다.
- ② **누가** 자신의 벼슬자리를 위해 채봉을 허 판서의 첩으로 보내려 하는 김 참봉의 이기심이 채봉이 겪는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언제·어디서** 취향에게 반말을 하는 채봉과 채봉에게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취향의 대화를 통해 두 인물 간의 신분상 차이를 짐작할 수 있다.
- ⑤ **누가** “당초에 서울서 정혼을 하고 오시더라도 ~ 서울 마나님이 꼭 되는 길밖에 없나 봅니다.”에서 취향이 채봉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면서도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데서 취향은 도덕적 선택에 대해서는 채봉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답 ①



① **이래서 정답**

- ① **왜** 서울로 상경하지 않을 꾀를 생각해 내 비밀리에 일을 꾸미고 있는 사람은 취향이 아니라 채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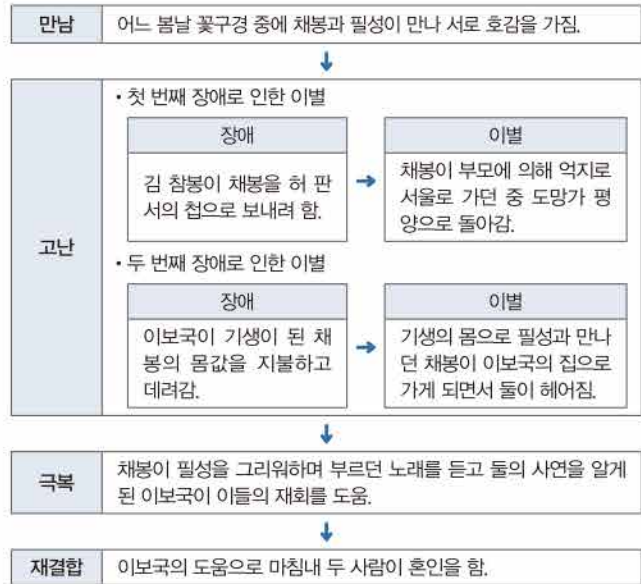
② **왜 오답**

- ②, ④ **왜** 김 참봉 내외가 채봉을 허 판서의 첩으로 보내기 위해 서울로 상경할 행장을 차리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김 참봉의 상경 결정이 채봉과 필성의 이별의 원인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 ③ **왜** 채봉이 장 선천 부사의 아들 필성과 정혼하였다는 이 부인의 말을 듣고 놀라는 김 참봉의 모습을 통해 김 참봉은 채봉과 필성의 만남에 대해 몰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왜** 채봉이 “아무리 부모의 분부인들 그런 중한 언약을 오늘날 배반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채봉은 필성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필성과 재회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문해 공식 적용** 사랑\_혼사 장애 구조



### 5 답 ②

① **이래서 정답**

- ② **누가** [A]에서 채봉을 허 판서의 첩으로 보내자는 김 참봉의 말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던 이 부인은, [B]에서는 김 참봉의 편이 되어 딸은 아버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도리라며 채봉에게 허 판서의 첩이 되라고 부추기고 있다. 이를 통해 이 부인의 태도가 변했음을 알 수 있다.

② **왜 오답**

- ① **누가** [B]에서 채봉이 새롭게 등장함으로써 김 참봉 내외와 채봉 간의 새로운 갈등이 드러나고 있을 뿐, 채봉이 갈등 상황을 중재하고 있지는 않다.
- ③ **누가** [B]에서 채봉의 혼사에 대한 이 부인의 입장이 달라졌을 뿐, 인물들의 처지가 서로 역전되고 있지는 않다.
- ④ **어떻게** [A]와 [B] 모두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으므로 서술자의 서술 시점이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⑤ **언제·어디서** 계절적 배경은 드러나지 않는다.

**+ 어휘**

- **원화**: 긴장된 상태나 급박한 것을 느슨하게 함.
- **중재**: 분쟁에 끼어들어 쌍방을 화해시킴.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

누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과 그를 그리워하는 '나'
언제 어디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부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 까지
무엇을	• 폐암 판정을 받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남편에 대한 '나'의 회상과 삶 • 남편이 남기고 간 '모자'와 '틈바구니'라는 말
어떻게	1인칭 주인공 시점, 독백적 진술, 역순행적 구성(회상)
왜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따뜻한 가족애를 서술함.

1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어떻게** 이 글에서는 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기고 간 '모자'와 '틈바구니'라는 말을 떠올리며 남편을 그리워하는 '나'의 내면을 독백적 진술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왜 오답

- ① **어떻게** '나'와 남편의 대화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특정 인물을 풍자하고 있지는 않다.
- ③ **무엇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의 상황과,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나'의 삶과 내면을 드러내고 있을 뿐, 동일한 공간에서 사건이 반복되거나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는 않다.
- ④ **어떻게** 남편의 병원 진료 장면, 남편이 손자와 장난하는 장면, 남편의 죽음 이후 '나' 혼자 남아 남편을 그리워하는 장면 등으로 장면은 교차되고 있지만 긴박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는 않다.
- ⑤ **어떻게** '방사선 치료로 시꺼멓게 탄 이마'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은 남편의 외양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는 있으나, 이를 통해 남편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2 답 ④

◎이래서 정답

- ④ **무엇을** '그는 이마가 까맣게 타도록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다시 해 본 CT 촬영에서 암은 소멸되지도 줄지도 않은 채였다.'를 통해 방사선 치료를 받았음에도 남편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왜 오답

- ① **무엇을** '그 여러 개의 모자는 멋이나 체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민머리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를 통해 남편은 방사선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진 민머리를 가리기 위해 모자를 썼음을 알 수 있다.
- ② **무엇을** '막내가 사 온 모자는 내 마음속에 있는 ~ 신사 모자라기보다는 카우보이 모자를 연상시켰다.'를 통해 막내가 남편을 위해 사 온 증절모는 테가 넓어서 카우보이 모

자를 연상하게 했음을 알 수 있다.

- ③ **무엇을** '미국 가 있는 막내를 ~ 판 자식들의 의견이기도 했다.'를 통해 남편의 병세가 나아지지 않자 판 자식들은 미국에 있는 막내가 귀국해서 생전에 남편을 뵈어야 한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 ⑤ **무엇을** '그는 평범한 사람이고, 잘난 척할 줄도 몰랐기 때문에 ~ 멋있거나 뜻깊은 말뜻은 아니다.'를 통해 남편은 잘난 척할 줄 모르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평소 멋있거나 그럴듯한 말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무엇을** '오직 틈바구니만이 예외다. ~ 나를 자꾸 심각하게 한다.'와 '여전히 틈바구니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않는다. ~ 한없이 추구해야 할 화두임을 면할 수가 없다.'를 통해 '나'는 남편이 생전에 말했던 틈바구니(㉠)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틈바구니(㉠)는 '나'에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을 유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 오답

- ① **무엇을** ㉠을 통해 이야기의 초점이 남편에서 막내로 바뀌고 있지 않다.
- ③ **무엇을** '나'가 생전에 남편이 말했던 ㉠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남편의 죽음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④, ⑤ **무엇을** ㉠을 통해 막내가 남편의 죽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나(④), '나'의 가족들이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성찰하게 되었다는 내용(⑤)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4 답 ③

| 보기 | 오래 보기

... '나'는 죽은 남편이 남기고 간 모자를 간직하며 남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드러낸다. 또한 남편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 따뜻한 가족애를 보여 주기도 한다. **왜**

◎이래서 정답

- ③ **왜** '나'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 남편의 '빛에 대한 공포감'에 대해 상상하며 홀로 외롭게 치료를 받는 남편에 대한 안타까움과 암흑과 상통할 것 같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나'가 방사선 치료를 받는 남편의 '빛에 대한 공포감'을 털어 주고 있지는 않다.

❖왜 오답

- ① **왜** '나'가 남편의 유품 중에서 남편과의 추억이 담겨 있

는 '모자'만은 모두 자신이 간직하며 모자를 물질 이상의 것으로 여기는 모습에서 남편에 대한 '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왜** 자신이 한 말을 농담으로 받는 남편의 말에서 연민을 느끼고 감동하여 울어 버릴 것 같다고 하는 '나'의 모습에서 남편이 자신을 연민한다고 믿는 '나'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왜** 병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모자를 두고 손자와 장난을 하며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남편의 모습에서 가족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왜** 남편의 흔적을 찾기 위해 남편이 쓰던 모자를 꺼내 머리카락 한 오라기라도 찾으려고 더듬어 보는 '나'의 모습에서 남편을 그리워하는 '나'의 애절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해 공식 적용** 사랑\_남편에 대한 '나'의 사랑과 그리움

'나'		남편
암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남편이 쓰던 모자를 소중히 간직하며 남편이 남긴 '툼바구니'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김.	연민 ← → 그리움	고약한 성깔에 치받쳐 한 '나'의 말에 연민하는 마음을 담아 농담을 함.

**+ 어휘**

- **병세**: 병의 상태나 형세.
- **상통**: 서로 어떠한 일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음.
- **유품**: 죽은 사람이 생전에 사용하다 남긴 물건.

**백학선전**

누가	영웅적 활약상을 보이는 조은하(조 원수), 조은하를 구하기 위해 출전한 유백로(유 원수), 조은하와 유백로를 위기에 빠뜨리는 최 국남
언제 어디서	• 명나라 때 • 남경, 서남, 기주, 청주, 서울
무엇을	• 유백로와 조은하가 장애를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어 가는 과정, 조은하가 영웅적 활약을 보이며 가담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건, 백학선으로 적을 물리치는 등의 비현실적 사건 • 사랑과 연약의 징표인 백학선, 혼사 장애 모티프, 적강 모티프
어떻게	서술자의 개입, 요약적 제시, 영웅의 일대기 구성
왜	남녀 간의 신의 있는 사랑과 우국충정을 서술함.

**1 답 ③**

**㉠ 아래서 정답**

- ㄱ. **무엇을** '원수가 말에서 내려 하늘에 절하고 주문을 외워 백학선을 사면으로 부치니 천지가 아득하고 뇌성벽력이 진동하며 무수한 신장이 내려와 도우니'에서 비현실적인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 ㄴ. **어떻게** '위수에 이르러 용신께 제사하고 3만 군 혼백을 위로한 후 사당을 지어 사적을 기록하고 ~ 아미산에 이르러서 유 원수의 선산에 성묘하고 ~ 늙은 종 충복을 찾아 천금을 상사한 후 서울로 향하니라.'에서 공간의 이동(위수 → 아미산 → 서울)에 따른 조은하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왜 오답**

- ㄴ. **어떻게** 사건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전개되고 있을 뿐, 꿈에서 일어난 일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 ㄷ. **어떻게**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외양 묘사는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문해 공식 적용** 전기성

비현실적 사건	
'원수가 말에서 내려 하늘에 절하고 주문을 외워 백학선을 사면으로 부치니 천지가 아득하고 뇌성벽력이 진동하며 무수한 신장이 내려와 도우니'	→ 사랑과 연약의 징표이자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백학선을 통해 적군을 물리침.

**2 답 ②**

**㉠ 아래서 정답**

- ② **누가** [A]에서 조은하는 유 원수의 마음을 낸지시 알아보기 위해 자신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B]에서 유 원수는 조은하와의 재회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조은하의 뛰어난 능력을 칭찬하고 있다.



❖ 왜 오답

- ① **누가** [A]에서 조은하는 유 원수의 잘못을 꾸짖고 있지 않으며, [B]에서 유 원수는 조은하를 칭찬할 뿐 위로하고 있지 않다.
- ③ **누가** [B]에서 유 원수는 조은하를 치하하고 있으나, [A]에서 조은하는 유 원수의 처지를 걱정하고 있지 않다.
- ④ **누가** [A]에서 조은하는 유 원수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지 않으며, [B]에서 유 원수는 조은하를 회유하고 있지 않다.
- ⑤ **누가** [A]에서 조은하는 유 원수에게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지 않으며, [B]에서 유 원수는 조은하를 설득하고 있지 않다.

3 답 ④

| 보기 | 오래 보기

「백학선전」은 결혼을 약속한 남녀 주인공이 고난을 이겨 내고 재회하는 애정 소설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남성 중심의 사회적 규범을 극복한 여자 주인공이 영웅적 면모를 보이는 여성 영웅 소설의 성격도 지닌다. ...

왜

❖ 이어서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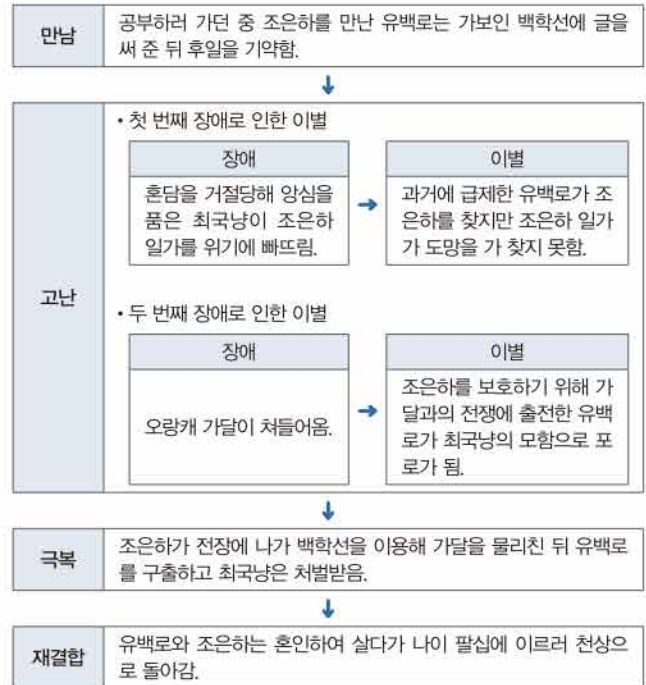
- ④ **왜** 조은하는 가달과 마대영의 항복을 받아 내어 오랑캐를 소멸하고 유 원수를 구하는 공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적을 신첩의 외람하온 죄라고 표현하고 황상에게 죄를 기다리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백학선전」이 여성 영웅 소설의 성격을 지녔지만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남성 중심의 사회적 규범을 극복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없다.

❖ 왜 오답

- ① **왜** 조은하가 가달과 마대영의 항복을 받아 내어 오랑캐를 소멸하고 유 원수를 구하는 데서 영웅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왜** “기특하도다. 조은하는 규중 여자로 출전입공함은 고금에 회한한 일이다.”를 통해 황상이 조은하를 예외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왜** “장군이 전에 길에서 일개 여자를 만나 백학선에 글을 써 주었더니 그 여자가 장성하여 백년을 기약하나 임자를 만나지 못하여”와 “부채를 유 원수 앞에 놓으니 유 원수가 비로소 조 소저인 줄 알고 비회를 이기지 못하여 나아가 그 손을 잡고”에 나타나 있는 백년을 기약하고 헤어졌다 재회한 유백로와 조은하의 모습을 통해 애정 소설의 성격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⑤ **무엇을** 가달과 대결하던 조은하는 선녀가 알려 준 백학선의 사용 방법을 떠올리고 백학선을 사용해 오랑캐를 물리쳤으므로, 백학선은 조은하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은하가 내놓은 백학선을 보고 유

백로가 조은하를 알아보았으므로, 백학선은 유백로가 조은하를 알아보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 공식 적용 사랑\_혼사 장애 구조



4 답 ①

❖ 이어서 정답

- ① **누가** ㉠에는 유 원수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서 자신을 구해 준 사람에게 할 말이 들어가야 하므로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잊을 수 없다는 뜻으로, 남에게 큰 은덕을 입었을 때 고마움의 뜻으로 이르는 말’인 ‘백골난망’이 적절하다.

❖ 왜 오답

- ② **누가** ‘사면초가’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누가** ‘어부지리’는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서로 싸우는 사이에 엉뚱한 사람이 애쓰지 않고 가로챈 이익을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누가** ‘이심전심’은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이라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누가** ‘적반하장’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어휘

- **치하** 남이 한 일에 대하여 고마움이나 칭찬의 뜻을 표시함.
- **고금** 예전과 지금을 아울러 이르는 말.

확인 1 답 (1) 처첩 (2) 교 씨, 사 씨

이래서 정답

- (1) 첩인 교 씨가 정실인 사 씨를 시기하여 간계를 꾸미고 있으므로 <보기>는 일부다처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처첩 간의 갈등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사 씨를 시기하던 교 씨는 사 씨가 아들 인아를 낳자 위기감을 느껴 가정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사 씨를 해칠 계교를 만들어 내고 있다.

확인 2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노 씨는 혼령이 되어 나타난 된 춘연에 의해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되므로 춘연과 노 씨가 화해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노 씨와 춘연의 화해를 통해 효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왜 오답

- ①, ③ 전처소생인 춘연을 포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계모 노 씨(③)는 혼령이 되어 나타난 춘연에 의해 별을 받아 죽게 되므로, 두 사람의 갈등을 통해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인과응보의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①).

확인 3 답 (1) ○ (2) ○ (3) ○

이래서 정답

- (1) 형 놀부가 인식하고 심술궂게 굴었음에도 불구하고 패가망신했다는 형의 소식을 듣자마자 형을 거두는 흥부의 모습에서 형제간의 우애가 부각되고 있다.
- (2) 선량한 흥부와 욕심이 많고 악한 놀부가 대비되면서 형제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3) 흥부의 박과 달리 놀부의 박에서는 보물 대신 괴물이 나와 놀부는 패가망신하였는데, 이는 탐욕을 부리며 심술궂게 굴던 놀부가 징벌을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획

- 정실: '본처'를 달리 이르는 말.
- 간계: 간사한 꾀.
- 패가망신: 집안의 재산을 다 써 없애고 몸을 망친.

### 창선감의록

누가	· 화옥과 첫째 부인 심 씨, 둘째 부인 요 씨, 셋째 부인 정 씨 · 심 씨의 아들 화춘과 처인 임 소저, 첩인 조 씨 · 요 씨의 딸 화빙선과 남편 유생 · 정 씨의 아들 화진과 처인 윤 소저와 남 소저
언제 어디서	명나라 때
무엇을	부자간의 갈등(화옥과 화춘), 모자간의 갈등(심 씨와 화진), 형제간의 갈등(화춘과 화진), 부부간의 갈등(화춘과 임 소저), 처첩간의 갈등(임 소저와 조 씨)
어떻게	전지적 작가 시점, 간접 제시
왜	가문 구성원들의 갈등과 화해, 효 사상의 고취와 착한 일에 대한 권장을 서술함.

1 답 ⑤

이래서 정답

- ⑤ 누가 임 소저를 내치고 조 씨를 정실로 삼겠다는 아들 화춘의 말에 심 부인이 “그 애의 죄는 남편의 풍정을 받아 주지 않는 것뿐인데 어찌 투기가 있다고 하느냐? 나도 이미 그 아이에게 정이 들었다.”라고 하는 데서, 심 부인이 임 소저를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왜 오답

- ① 누가 화춘은 임 소저를 몰아내고자 밤낮으로 참소하는 조 씨의 말만 믿고 아무 잘못이 없는 임 소저를 쫓아내려고 했으므로 심지가 굳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 ② 누가 조 씨는 임 소저를 몰아내고 정실이 되고자 임 소저를 모함하고 있으므로 악행을 저지를 정도로 현실적 욕망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할 수 있다.
- ③ 누가 임 소저는 모함을 받고 시댁에서 쫓겨나면서도 시아버지의 사당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고 있으므로 예의가 바르다고 할 수 있다.
- ④ 누가 화진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 전하기 위해 피가 나도록 이마를 땅에 부딪치며 울며 읊하고 간하고 있으므로 신념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2 답 ②

| 보기 | 오려 보기

... 사대부들이 충, 효, 열을 통해 자기 집단을 옹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은 소설이다. 따라서 이 소설은 가부장제를 합리화하려 했고 부녀자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했다.

이래서 정답

- ② 왜 첩인 조 씨가 정실인 임 소저를 모함하여 몰아내는 데서 한 가문 내에서의 처첩 간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보기>에서 이 작품은 가부장제를 합리화하고 부녀자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어졌다고 했으므로 처첩 간의 갈등을 통해 일부다처제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일부다처제하에서 처첩 간의 투기를 경계하고 부녀자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처첩 간의 갈등을 부각시켰다고 볼 수 있다.

#### ❶ 왜 오답

- ① **왜** 임 소저가 억울하게 모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뜻에 따르는 모습 등에서 효를 강조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 ③ **왜** 심 부인은 임 소저가 쫓겨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질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부녀자들에게 질투를 금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심어 주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 ④ **왜** 심 부인이 임 소저를 쫓아낸 이유 중 하나로 화춘과 임 소저 사이에 자식이 없어 대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들고 있는 데서 가부장제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담았음을 알 수 있다.
- ⑤ **왜** 첩인 조 씨에 의해 정실인 임 소저가 아무 잘못도 없이 쫓겨나고 간악한 조 씨가 정실이 되는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 사대부 집안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경계를 담았음을 알 수 있다.

#### 문제 공식 적용 가정·하씨 가문의 갈등

부자간의 갈등	화옥(아버지) ↔ 화춘(아들)
모자간의 갈등	심 씨(첫째 부인) ↔ 화진(셋째 부인의 아들)
형제간의 갈등	화춘(형) ↔ 화진(동생)
부부간의 갈등	화춘(남편) ↔ 임 소저(아내)
처첩 간의 갈등	임 소저(처) ↔ 조 씨(첩)



한 가문의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복잡하게 얽힌 갈등이 드러남.

### 3 답 ③

#### ❶ 이래서 정답

- ③ **무엇을** ㉠에서 조 씨는 화춘에게 형과 아우의 위계질서를 언급하며 비꼬는 방법으로 화춘의 실행을 부추기고 화춘과 화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을 뿐, 화춘의 경쟁심을 부추기고 있지는 않다.

#### ❷ 왜 오답

- ① **무엇을** 첩인 조 씨가 화춘에게 참소하며 임 소저를 내쫓을 것을 제안한 것은 정실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므로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 ② **무엇을** 화춘은 동생인 화진의 반대를 고려하여 임 소저를 내쫓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 ④ **무엇을** 조 씨의 부추김에도 불구하고 화춘은 조 씨의 생각

과 달리 계속해서 주저하고 있다.

- ⑤ **무엇을** 화춘은 장평, 범한과 의논하여 계락을 내고 임 소저를 내쫓기로 결단하고 있다.

### 4 답 ①

#### ❶ 이래서 정답

- ① **누가** <보기>에서 화진은 모함을 받고 쫓겨나는 임 소저에게 곧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위로하고 있으므로 ㉠에는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을 뜻하는 사필귀정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임 소저는 모함을 받고 쫓겨나면서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탓이라며 순종적이고 효성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에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냐'는 뜻으로, 남을 원망하거나 탓할 것이 없음을 이르는 말인 '수원수구'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❷ 왜 오답

- ② **누가**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인 '새옹지마'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비위에 따라서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이르는 말인 '감탄고토'는 적절하지 않다.
- ③ **누가**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인 '고진감래'는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름.'을 뜻하는 '표리부동'은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누가** '전생에 지은 선악에 따라 현재의 행과 불행이 있고, 현재에서의 선악의 결과에 따라 내세에서 행과 불행이 있는 일'을 뜻하는 '인과응보'는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슬퍼함.'을 뜻하는 '일희일비'는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다.
- ⑤ **누가**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을 뜻하는 '전화위복'과 '쫓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을 뜻하는 '부화뇌동'은 적절하지 않다.

#### + 어휘

- **옹호** 두둔하고 편들어 지킴.
- **위계질서** 관등(官等)이나 직책의 상하 관계에서 마땅히 있어야 하는 차례와 순서.

소현성록

누가	소씨 가문의 3대에 걸친 가족 구성원 • 제1대: 소현성(상서)과 첫째 부인 화 씨, 둘째 부인 석 씨, 셋째 부인 여 씨 • 제2대: 소운경과 소운성 • 제3대: 소세명과 소세광
언제 어디서	송나라 태종 때
무엇을	• 3대에 걸친 가족 구성원들의 혼인 과정과 혼인 후에 겪는 갈등(수록 부분: 석 씨와 여 씨의 갈등, 화 씨와 여 씨의 갈등, 상서와 여 씨의 갈등, 양 부인과 여 씨의 갈등) • 여 씨가 약을 먹고 화 씨로 둔갑하는 등의 전기적 사건
어떻게	서술자의 개입, 순행적 구성
왜	혼인을 둘러싼 소씨 가문의 갈등과 해결 과정을 서술함.

1 답 ④

① 이래서 정답

- ④ **무엇을** 이 글에는 여 씨와 석 씨, 여 씨와 상서, 여 씨와 양 부인, 여 씨와 화 씨의 갈등 등 여 씨가 다른 여러 가족 구성원들과 빚는 다면적인 갈등 관계가 드러나 있다.

② 왜 오답

- ① **언제-어디서** '녹운당에 이르니 희미한 달빛 아래 여 씨가 난간에 었드려'에 배경 묘사가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② **누가, 무엇을** "알지 못하겠도다. 누가 잃은 것인가? 필연 동료 중 잃은 것이니 임자를 찾아 주리라."라는 계성의 혼잣말에 독백이 사용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독백의 반복을 통해 내적 갈등의 해결 과정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③ **어떻게**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고 있지 않다.
- ⑤ **어떻게** 청운당, 벽운당, 녹운당, 취성전 등 사건이 일어나는 여러 공간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두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있지는 않다.

2 답 ③

① 이래서 정답

- ③ **누가** '상서는 본래 사람을 지극한 도로 가르치는지라 책망하며 왈, ~ 기세가 엄숙하니, 여 씨가 크게 부끄러워하더라.'를 통해 화 씨의 방을 엿들은 일을 두고 상서가 여 씨를 책망하자 여 씨가 부끄러워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왜 오답

- ① **누가** '날이 늦어져 모임이 흩어진 후 상서의 서모 석파가 청운당에 오니 여 씨가 말하길, '석 씨가 석파를 청하자 석파가 벽운당에 이르러 웃고 왈, '석파가 먼저 나서며 미양을 붙들고 물으니' 등을 통해 석파가 여 씨, 석 씨, 미양

등 집안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여 씨와 관련된 집안일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누가** "더욱이 다른 부인의 방을 엿들은 금수의 행동이라 전일 말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믿지 않았더니 내 눈에 세 번 뵈니 비로소 그 말이 사실임을 알지라."를 통해 상서가 남의 말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누가** '양 부인이 불을 가져다가 사르고 시녀들을 당부하여 왈 ~ 양 부인은 이후 석 씨와 자녀를 보나 내색하지 않더라.', '양 부인이 놀라고 여 씨를 불러 마루 아래에 꿇리고 별주니 ~ 여 씨를 내치고 계성과 미양 등을 엄히 다스리고 집안을 평정하더라.'를 통해 권위를 지닌 양 부인이 가족과 시녀들을 통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누가** '소 씨 나아가 우김질로 들이붓더라. 여 씨가 마지못하여 먹으니 화 씨 변하여 여 씨 되는지라.'를 통해 소 씨가 여 씨를 압박하여 의혹을 해소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답 ④

① 이래서 정답

- ④ **누가** ㉠은 석 씨가 양 부인으로 부터 받는 총애를 석파가 여 씨에게 자랑한 일에 대해 석 씨가 석파에게 한 말로, 석파의 경솔한 언행이 다른 부인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염려하여 한 말이다. 또한 ㉡은 상서가 정색하고 여 씨에게 어디 갔었느냐고 묻자 상서의 의심을 피하고자 여 씨가 거짓으로 꾸며서 한 말이다.

② 왜 오답

- ① **누가** "석 부인은 비단 얼굴뿐 ~ 더욱 사랑하시나이다."는 석파의 독선에서 나온 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은 석 씨가 석파의 독선을 질책해서 한 말로 볼 수 없다. 상서는 여 씨가 어디에 갔었는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 씨에게 묻은 것이므로 ㉡이 상서의 오해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② **누가** ㉠은 석파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며, ㉡은 상서를 속이기 위해서 한 말일 뿐 상서를 위협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다.
- ③ **누가** ㉠은 석파가 여 씨에게 한 자랑을 석 씨가 내키지 않아 하며 당부한 말이므로 석파에 대한 호의를 표현한 말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은 여 씨가 상서를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므로 상서에 대한 불신을 표현한 말로 보기 어렵다.
- ⑤ **누가** ㉡은 상서가 여 씨의 행동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정보를 여 씨가 물랐기 때문에 한 거짓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은 석파의 경솔한 언행을 염려하여 한 말이지, 석파에게 얻은 정보에 대한 불신 때문에 한 말이 아니다.



음모 모티프는 인물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음모를 실행하는 이야기 단위이다. ... 이때 음모자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미나 결국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며 죄상에 따라 처벌된다. **무엇을, 왜**

### ⑤ 이래서 정답

- ⑤ **왜** 상서는 여 씨가 화 씨의 방을 엿들은 일을 두고 '금수의 행동'이라고 책망하고, 여 씨가 앞으로 과실을 고치길 당부하며 여 씨를 교화하고자 하였다. 한편 양 부인은 여 씨가 꾸민 음모와 악행의 실상이 밝혀진 '어젯밤 일'로 인해 여 씨를 내치게 되었다. 이 두 사건에서 상서와 양 부인은 여 씨에 대해 저마다 다르게 대처하고 있을 뿐 여 씨의 처벌 방법을 두고 두 사람이 대답하고 있지는 않다.

### ⑥ 왜 오답

- ① **왜** 자신을 석 씨와 견주면서 석 씨의 뛰어난 점을 질투하게 된 여 씨는 양 부인과 석 씨를 '이간'하려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석 씨와의 경쟁 관계를 의식한 여 씨가 집안에서 석 씨보다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음모를 꾸미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왜** 여 씨가 석 씨를 모해하고자 꾸민 '봉한 것'은 계성을 통해 양 부인에게 건네지고, 양 부인은 '봉한 것'을 풀어 보고 '그 글에 품은 한이 흉악'함을 알게 된다. 이는 상하 관계에 있는 음모자 여 씨와 조력자 계성(시녀)에 의해 서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왜** 양 부인이 '그 글'을 불사르고 시녀들에게 누설을 금지함에 따라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게 되었으므로 여 씨가 꾸민 음모의 실행은 잠정적으로 저지되었다. 이에 따라 여 씨의 욕망 실현이 지연되었으므로 서사적 긴장이 일시적으로 이완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④ **왜** 여의개용단을 먹고 화 씨로 둔갑했던 여 씨는 '회면단'을 먹자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를 통해 음모자가 자신의 욕망 실현을 위해 준비한 환상적 요소인 약을 먹고 변신하는 것이 음모의 실체를 드러내는 도구로도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문제 공식 적용** 가정\_여 씨를 중심으로 한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부인들 간의 갈등	여 씨 ← 석 씨 ↓ 화 씨
부부간의 갈등	여 씨 ↔ 상서(소현성)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	여 씨 ↔ 양 부인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한 가족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드러남.

### + 여휘

- **다면적** 여러 방면에 걸친 것.
- **진위** 참과 거짓 또는 진짜와 가짜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설낭자전

누가	이 대감 만아들의 처인 정 부인, 둘째 아들의 처인 황 부인, 셋째 아들(이 도령)의 배필인 설 낭자
언제 어디서	• 조선 후기 • 장안
무엇을	• 가정에 속한 기존 인물인 정 부인, 황 부인과 혼인으로 가정에 편입하려는 설 낭자의 갈등(동서 간의 갈등) • 설 낭자가 누명을 쓰고 누명을 벗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되는 저고리
어떻게	판소리 사설 두 문제, 비유적 표현
왜	설 낭자의 혼인을 둘러싼 선악의 대립과 권선징악을 서술함.

### 1 답 ③

#### ③ 이래서 정답

- ③ **무엇을** 정 부인이 있는 방(㉠)의 장롱에 있던 설 낭자의 저고리가 대감의 거처(㉡)로 옮겨진 것은 이 대감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김 동지 며느리가 설 낭자의 누명을 벗겨 주고자 저고리를 직접 들고 대감의 거처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 ④ 왜 오답

- ① **무엇을** 설 낭자에게 다른 남자와 정을 통했다는 누명을 씌우기 위해 계락을 세운 정 부인과 황 부인은 윤백을 사주하여 이 도령과 설 낭자가 잠든 별당(㉢)으로 가서 저고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에 따라 설 낭자의 저고리는 ㉠에서 ㉡으로 옮겨진 것이다.
- ② **무엇을** ㉠에서 윤백에 의해 도난당한 저고리로 인해 설 낭자는 다른 남자와 정을 통했다는 오해를 받지만, ㉡에서 김 동지 며느리의 도움으로 진실이 밝혀져 오해가 해소되었다.
- ④ **무엇을** 정 부인과 황 부인이 장롱에 숨겨 두었던 설 낭자의 저고리는 한달음에 ㉡으로 뛰어 들어가 장롱을 들고 나온 김 동지 며느리에 의해 발견되었다.
- ⑤ **무엇을** 정 부인은 ㉡에서 저고리에 대해 말해 보라는 이 대감의 명령에 저고리가 자신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품, 소매, 진동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 2 답 ②

「설낭자전」은 고전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선과 악의 대립 구도를 통해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선과 악의 대립은 한 가정에 속한 기존 인물들이 그 가정에 편입하려는 인물을 배척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 **왜**

#### ② 이래서 정답

- ② **왜** 설 낭자의 아버지인 설 진사가 설 낭자에게 첫날밤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추궁하는 것은 진실을 알기 위해서이지 설 남자와 대립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또한 설 진사는 억울하다며 결백을 호소하는 설 남자의 말을 듣고 더는 추궁하지 못하고 굵어 죽기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이 둘을 선과 악의 대립으로 볼 수는 없다.

#### ③ 왜 오답

- ① **왜** “소녀가 일곱 살에 이 저고리를 지었을 때, 소녀의 어머니께서 기특하다 여겨 ~ 그것을 보면 모두 알 것이옵니다.”에서 설 남자는 저고리 안에 어머니가 수놓은 자신의 아명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설 남자의 경험이 설 남자의 누명을 벗기는데 결정적 단서로 활용되고 있다.
- ③ **왜** 이 대감이 설 남자에게 누명을 씌운 정 부인을 하옥하는 것은 악한 사람에게 벌을 내린 것이므로, 이를 통해 ‘징악’이라는 주제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대감이 누명을 벗은 설 남자를 행례하게 하는 것은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권선’이라는 주제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④ **왜** “그 하인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은 묻지 아니하여도 아옵니다. ~ 그놈의 행동이 아무래도 수상하옵니다.”에서 김 동지 며느리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 남자의 저고리를 훔쳐 간 하인으로 윤백을 지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가정 외부의 인물이자 설 남자의 조력자인 김 동지 며느리가 설 남자가 누명을 쓰게 된 사건의 내용을 간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왜** 정 부인과 황 부인은 윤백을 사주하여 설 남자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했다는 누명을 씌우고 있는데, 이는 이 대감의 가정에 속해 있는 기존 인물인 정 부인과 황 부인이 이 대감의 가정에 편입하려는 새로운 인물인 설 남자를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해 공식 적용** 가정\_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과 조력 관계

윤백	정 부인과 황 부인의 사주로 설 남자에게 누명을 씌움.
↓ 조력	
정 부인, 황 부인	설 남자를 시기하여 윤백을 시켜 설 남자에게 누명을 씌움.
↕ 갈등	
설 남자	이 도령의 배필로, 다른 남자와 정을 통했다는 누명을 씌움.
↑ 조력	
김 동지 며느리	설 남자가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도움.
↓	
설 남자의 누명이 벗겨지는 과정을 통해 권선징악이라는 주제가 드러남.	

#### + 어휘

- **배척**: 따돌리거나 거부하여 밀어 내침.
- **아명**: 아이 때의 이름.
- **간파**: 속내를 꿰뚫어 알아차림.

#### 확인 1 답 ③

##### 이래서 정답

- ③ 형이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자신을 형이라고 하지 말고 모르는 체하라고 한 것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동생의 안전을 걱정해서 한 말이므로 전쟁의 폭력성에 대한 저항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없다.

#### 확인 2 답 ①

##### 이래서 정답

- ① 일제 강점기라는 부조리한 시대를 ‘좋은 세상’, ‘태평천하’라고 이야기하는 윤 직원을 통해 일제 강점기에 대한 윤 직원의 왜곡된 현실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왜 오답

- ② 윤 직원은 종학이 피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화를 내고 있는데, 윤 직원은 일제의 권력에 결탁해 재산을 모은 인물이므로 윤 직원을 통해 일제 강점기의 비참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③ 종학이 피검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윤 직원의 반응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사회주의 운동의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확인 3 답 (1) ○ (2) × (3) ○

##### 이래서 정답

- (1), (3)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공동체의 붕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정 씨’와 ‘영달’의 동행을 통해 당대 소외 계층의 애환과 연대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 (2)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이라는 노인의 말을 통해 산업화와 도시화가 몰고 온 변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 어휘

- **부조리**: 이치에 맞지 아니하거나 도리에 어긋남. 또는 그런 일.
- **결탁**: 주로 나쁜 일을 꾸미려고 서로 한통속이 됨.



명일

누가	일제 강점기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지식인인 범수와 그의 아내 영주, 두 아이(종석, 종태)
언제 어디서	• 1930년대(일제 강점기) • 서울 종로 일대(금은상, 화신 백화점, 거리 등), 범수네 집
무엇을	• 일제 강점기의 현실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지식에 대한 범수의 내적 갈등, 지식의 교육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한 범수와 영주의 외적 갈등 • 범수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금비녀와 가락지, 범수와 영주의 외적 갈등을 유발하는 두부
어떻게	전지적 작가 시점, 초점화, 풍자
왜	일제 강점기 지식인의 무기력한 삶에 대해 풍자함.

1 답 ⑤

이래서 정답

- ⑤ **어떻게** 이 글에서는 범수를 통해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의 고뇌를 보여 주고 있는데, 서술자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범수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서술함으로써 그의 내적 갈등과 심리 등을 드러내고 있다.

왜 오답

- ① **어떻게** 금은상, 화신, 거리, 범수네 집 등과 같은 공간적 배경은 제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공간적 배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 ② **어떻게** 범수가 도적질에 실패한 장면, 집으로 돌아온 범수가 아내인 영주와 다투는 장면 등과 같은 장면의 전환은 나타나 있으나 이를 통해 사건의 속도감을 높이고 있지는 않다.
- ③ **어떻게** 도적질에 실패한 범수가 집으로 돌아와 아내인 영주와 다투게 되는 과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되고 있으므로 역순행적 구성이 아니라 순행적 구성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어떻게** 친근감을 주는 말투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답 ④

이래서 정답

- ④ **무엇을** 범수가 “흥! 이놈의 지식 승어부는 했구나.”라고 말한 의미를 영주도 알아듣지 못했다고 하였으므로, 종석과 영주 모두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왜 오답

- ① **누가, 무엇을** ‘영주는 폭포같이 말을 쏟뜨려 놓고 싶어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다만 남편이 원망스럽고 노여워 ~ “무슨 낮으루 자식을 나무래요? 다 예미 애비 죄

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무엇을** ‘영주는 종태만이라도 근처의 사립 학교에나마 보낸다고 데리고 나셨다. 종석이까지 데리고 간다고 밤늦게까지 우기며 다투었으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무엇을** 범수는 금비녀와 가락지를 훔치려는 두 번의 시도를 모두 실패하고 금은상을 나왔다.
- ⑤ **누가, 무엇을** 종석이 두부를 훔쳐 먹다가 들켰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범수는 피가 한꺼번에 머리로 치밀어 올랐으나 그만 두 어깨가 축 처져 버렸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범수가 종석을 혼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답 ⑤

| 보기 | 오래 보기

채만식의 「명일(明日)」은 일본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취업도 하지 못한 채 급기야 도적질까지 하려고 하는 주인공을 통해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 계층의 무기력한 삶을 풍자하고 있다. ...

왜

이래서 정답

- ⑤ **왜** 식민지 현실에서 지식의 무가치함을 깨달은 범수는 교육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아들을 서비스 공장으로 데리고 가고 있다. 이를 통해 범수는 교육의 무가치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신념 때문이 아니라 교육이 무가치하다는 현실 인식 때문에 아들을 공장으로 데리고 갔음을 알 수 있다.

왜 오답

- ① **왜** ㉠에서 범수는 ‘십육 년이나 공부를 한 것이 조그만한 금비녀 한 개 감쪽같이 숨기는 기술을 배’운 것보다 쓸모없다며 무능력한 식민지 지식인인 자신에 대한 냉소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인 범수의 고뇌를 엿볼 수 있다.
- ② **왜** 도적질을 하려고 한 자신을 스스로 나무라던 범수는 ㉡에서 도적질하는 것이 왜 나쁘냐고 자조적으로 물으며 합리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식민지 현실의 모순으로 인한 범수의 혼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 ③ **왜** ㉢에서 도적질을 한 아들을 나무라려던 범수는 금비녀와 가락지를 훔치려다 실패한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아들을 나무라지 못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범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④ **왜** ㉣에서 범수는 도적질에 실패한 자신보다 두부를 훔쳐 먹은 종석이 낫다며 자조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취업도 하지 못한 채 도적질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범수의 자신에 대한 자조를 엿볼 수 있다.

범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지식인이지만 취업도 하지 못한 채 빈곤하게 살다 도적질을 하려고 함.</li> <li>지식의 무가치함을 인식하고 자식들의 교육을 반대함.</li> </ul>
----	--



일제 강점기라는 모순된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의 무기력한 삶과 고뇌를 드러냄.

#### 4 답 ③

##### ◎ 이래서 정답

- ③ **언제·어디서, 무엇을, 왜** 공간 A에서 도적질에 실패한 범수는 현실에서는 지식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공간 B로 돌아온 범수는 아들 종석의 도적질과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영주와 외적 갈등을 겪고 있다. 이를 통해 공간 A에서 범수의 내적 갈등이 공간 B에서 범수와 영주의 외적 갈등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범수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 왜 오답

- ① **언제·어디서, 무엇을, 왜** 공간 A와 공간 B에서 범수가 겪는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은 모두 일제 강점기라는 모순된 사회 현실과 관련되어 있다.
- ② **언제·어디서, 무엇을, 왜** 공간 A에서 범수는 '금비녀'와 '가락지'를 훔치려다 실패한 이후 현실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지식에 대해 고뇌하며 내적 갈등을 겪게 된다. 그리고 공간 B에서 범수는 '두부'를 훔쳐 먹은 아들 종석으로 인해 영주와 다투는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견해 차이로 갈등을 겪게 된다. 따라서 '금비녀,가락지'와 '두부'는 갈등을 유발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 ④, ⑤ **언제·어디서, 무엇을, 왜** 공간 A에서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지식의 무가치함과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은 범수는, 공간 B에서 아이들의 교육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영주와 갈등하고 있다(⑤). 이를 통해 범수의 내적 갈등의 원인인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이 해소되지 않는 한 영주와의 갈등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임을 알 수 있다(④).

##### ⊕ 어휘

- **자조** 자기를 비웃음.

#### 몽기미 풍경

누가	고향인 몽기미에서 서울로 상경하여 장난감 공장에 다니는 순자와 주전자 운전을 하는 남분
언제 어디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70년대</li> <li>몽기미, 목포, 서울</li> </ul>
무엇을	고된 노동을 하며 사는 순자와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남분의 현실 대응 방식의 차이
어떻게	전지적 작가 시점, 감각적 문제, 비유적 표현
왜	산업화 시대의 노동자의 생애를 서술함.

#### 1 답 ⑤

##### ◎ 이래서 정답

- ⑤ **어떻게** [A]의 '크고 작은 배들이 수백 척 부두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크고 작은 건물들이 빼곡히 차 있었으며, ~ 모두가 꿈에도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다.'에서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아이들이 처음 본 목포의 광경을 실감 나게 드러내고 있다.

##### ❖ 왜 오답

- ① **어떻게**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으므로 [A]에서는 이야기 안의 서술자가 아니라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A]에서 인물의 내력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 ② **어떻게** [A]의 '목포에 닿자 아이들은 멍청하게 입만 벌렸다.'에서 인물의 행위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긴박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는 않다.
- ③ **어떻게** [A]에 요약적으로 서술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도 드러나 있지 않다.
- ④ **어떻게** [A]에 추측하는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일어난 사건에 대한 예상도 드러나 있지 않다.

#### 2 답 ⑤

##### ◎ 이래서 정답

- ⑤ **언제·어디서** 남분은 몽기미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처음 가 본 도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몽기미에서 살아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있으므로, ㉠은 인물이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 왜 오답

- ① **언제·어디서** 남분은 ㉠에서 도시가 아닌 작은 섬에서 살아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으므로 ㉠은 인물의 욕망이 충족되는 공간으로 볼 수 없다.
- ② **언제·어디서** 남분이 ㉠에서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언제·어디서** 남분이 ㉠에서 다른 사람과 단절되고 있지는



않다.

- ④ **연제·어디서** 남분은 ㉠에서 처음 가 본 도시에서의 경험이 꿈만 같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 ㉠에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는 않다.

### 3 답 ②

#### ㉠이래서 정답

- ② **누가** ㉠에서 남분은 순자에게 “히히” 웃고 야살스럽게 히들거리며 말하고 있으므로, 순자의 마음이 상할 것을 걱정하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왜 오답

- ① **누가** ㉡과 같이 말한 남분은 뒤이어 고향과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며 자기 자랑을 하고 있으므로, ㉡에는 고향의 상황과 비교하여 자신의 상황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남분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누가** 주전자 운전을 한다는 남분의 말을 들은 순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과 같이 묻고 있으므로, ㉡에는 남분이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해하는 순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누가** ㉢과 같이 말한 순자는 그제야 웃물이 도는 듯 눈을 거슴츠레하게 떴다고 했으므로, ㉢에는 남분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렵פות 짐작하고 있는 순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누가** 남분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조금도 스스럼없이 ㉣과 같이 말하고 있으므로, ㉣에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여기는 남분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 4 답 ③

— | 보기 | —

이 작품은 급속한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던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어촌 마을에서 도시로 상경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모습과 고된 노동의 현실을 통해 당시의 세태를 사실적으로 드러낸다. ...

**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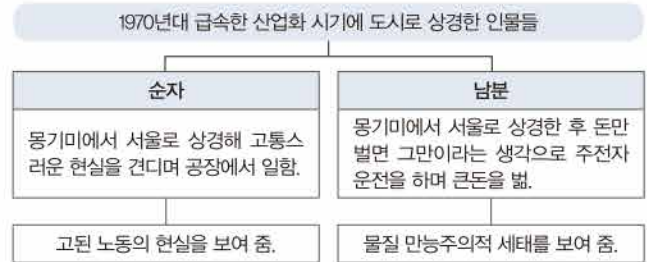
#### ㉠이래서 정답

- ③ **왜** ‘본전도 못 건지’며 ‘가슴을 조이’는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그 섬을 들락거렸다’는 것은 일 년간 해초 채취권을 산 사람들이 본전을 건지기 위해 마음을 졸이며 섬을 들락거렸다는 것으로, 이는 경제적 발전에서 낙후되어 가난한 몽기미의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도시로 상경한 인물들에게 어촌 마을이 그리움의 공간이었다고 짐작하기는 어렵다.

#### ㉡왜 오답

- ① **왜** 서울로 올라와 뼈마디가 저미는 고통을 느끼며 살벌한 현실을 살고 있는 순자의 모습을 통해 도시로 상경한 인물의 고된 노동의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왜** 동화 같던 서울이 오 년만에 너무도 싸늘하고 매정스럽게 돌아앉아 있었다는 순자의 심정을 통해 도시의 삶에서 느끼는 인물의 소외감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왜** 몽기미 짐집마다 너털너털 달라붙은 그 가난이 순자의 가슴을 후벼다는 것을 통해 경제적 발전에서 낙후되어 가난한 어촌 마을의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왜** 식순이 공순이는 남의 종살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쉽게 버는 일을 선택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남분의 모습을 통해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세태를 짐작할 수 있다.

**문제 공식 적용** 나라·사회\_산업화 시기를 살아가는 인물들



#### ㉢어휘

- **내력**: 지금까지 지내 온 경로나 경력.
- **히들거리며**: 입을 불쌍스럽게 벌리며 웃음을 참지 못하고 싱겁게 자꾸 웃으며.
- **상경**: 지방에서 서울로 감.

후조

누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순수함과 따뜻한 인간성을 간직하고 있는 구두닦이 소년 구칠, 구칠에게 연민을 느끼고 인정을 베푸는 민우, 민우가 있던 중학교의 훈육 선생으로 진인한 성격의 최 선생
언제 어디서	• 6·25 전쟁 직후 • 서울, 부산
무엇을	• 민우에게 구두를 선물해 주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의 구두를 훔치다 들킨 구칠이 도망을 간 사건 • 이리저리 생활 터전을 따라 떠돌아다니는 구칠을 상징하는 후조
어떻게	전지적 작가 시점, 초점화, 비유적 표현
왜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따뜻한 인정을 서술함.

1 답 ③

이래서 정답

- ③ **어떻게** 이 글의 서술자는 민우의 시각에서 사건과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왜 오답

- ① **어떻게** 이 글에서는 의식의 흐름 기법을 활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인물의 내적 욕망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② **어떻게** 이 글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하여 서술하고 있지 않다.
- ④ **어떻게** '말썽하게 차린 청년 하나가 ~ 한 손에 구두 한 켤레를 들었다.', '구칠이는 연신 피를 뺀고 입 언저리를 문지르고 하면서 이렇게 거의 절망적인 소리를 지른다.', '구칠이는 그만 골목 막바지로 사생결단 내달아 버렸다.' 등에서 인물의 외양과 행동을 묘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⑤ **누가** 민우에게 신발을 선물해 주고자 청년의 구두를 훔치다 들킨 구칠이 도망가는 부분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2 답 ⑤

보기 | 오래 보기

이 작품은 한국 전쟁으로 인한 각박한 시대 흐름을 비판하면서도 인간 본연의 따뜻한 인정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현실의 절망을 딛고 일어서자는 작가의 현실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

왜

이래서 정답

- ⑤ **왜** [A]의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은 후조도 있다.'에서 '그렇지만도 않은 후조'는 힘든 현실 속에서도 따뜻한 인간성과 인정을 잃지 않은 민우와 구칠을 상징하므로, 이는 각

박한 현실 속에서도 인정이나 의리와 같은 본연의 마음을 드러내는 인간 유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왜 오답

- ①, ②, ③, ④ **왜** <보기>에 따르면 [A]에서 '더우면 오고 추우면 돌아간다. ~ 이것은 후조의 생리다.'는 한국 전쟁으로 각박한 시대의 조류에 맞춰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인간 유형의 생리를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나타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한다거나(①) 한국 전쟁이라는 절망적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고 볼 수 없으며(②),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미래의 희망을 보여 준다거나(③), 시대적인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어 가는 인간의 숙명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없다(④).

문제 공식 적용 나라·사회 6·25 전쟁 직후를 살아가는 인물들

6·25 전쟁 직후의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따뜻한 인정을 간직한 인물들

구칠	민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구두닦이를 하며, 자신에게 인정을 베풀어 준 민우에게 보답하고자 신발을 선물하려 함.	구칠에게 연민을 느껴 인정을 베풀며 항상 따뜻하게 대하고, 도망간 구칠을 걱정하며 구칠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램.

3 답 ④

이래서 정답

- ④ **누가** ㉔에서 민우는 구칠이 자신에게 선물해 주기 위해 구두를 훔쳤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고 있을 뿐 분노하고 있지는 않다. 민우는 자신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한 구칠이 께팠지만 자신을 위하는 구칠의 마음에 측은함을 느꼈다고 했으므로 민우가 자신을 이용한 구칠의 행동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왜 오답

- ① **누가** ㉑에서 구칠은 민우에게 사 주겠다고 제안한 신발을 가져오지 못해 초조해하고 있다.
- ② **누가** ㉒에서 구두를 훔치려다 들킨 구칠은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민우에게 들켜 당황해하며 창피해하고 있다.
- ③ **누가** ㉓에서 구칠의 일을 보고 있던 아이들은 민우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막을 묻자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하고 눈치를 보며 경계심을 드러내고 달아나고 있다.
- ⑤ **누가** ㉕에서 민우는 구칠이 신을 닦던 자리를 지날 때마다 소식이 없는 구칠을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다.

어휘

- **도태**: 여럿 중에서 불필요하거나 무능한 것을 줄여 없앴.
- **내막**: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일의 속 내용.



확인 1 답 ①

이래서 정답

- ㉠ 계월이 이부 시랑 홍무의 딸이자 천상계에서 죄를 지어 적강한 선녀라는 내용을 통해 고귀한 혈통임을 확인할 수 있다.
- ㉡ 부인 양 씨가 선녀가 나오는 꿈을 꾸고 계월을 낳았다는 내용을 통해 계월이 비정상적 출생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계월이 글을 한 번 보면 다 기억한다는 내용을 통해 계월이 비범한 능력을 지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 2 답 ③

이래서 정답

- ㉠ 대성은 천자를 구하러 가는 도중에 앞에 놓인 큰 강을 건널 길이 없자 분기충천하여 말하였을 뿐, 공중에서 들리는 소리에 분기충천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천상계의 조력을 거부하고 있지도 않다.

왜 오답

- ㉠ 대성이 황강으로 달려가 호왕의 머리를 베고 천자를 구하는 모습에서,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는 대성의 탁월한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 ㉡ 호왕의 창끝에 명이 다하게 되자 기절해 누워 있는 천자의 모습과 칠성검으로 호왕을 단칼에 죽이고 천자를 구하는 대성의 모습이 대비되면서, 대성의 영웅적 면모가 부각되고 있다.

확인 3 답 (1) ○ (2) ○ (3) ○

이래서 정답

- (1) ㉠에서 충렬은 적장 문걸을 죽이고 적에게 항복할 위기에 처한 천자를 구하고 있으므로, 충렬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부친 유심의 죽음으로 어려서 홀로 된 충렬을 강희주가 길러 주었다는 ㉡을 통해 충렬이 조력자인 강희주에 의해 유년기의 위기에서 구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에서 충렬은 정한담과 최일귀로 인해 부친 유심과 장인 강희주가 죽게 되었다고 말하며 자신이 위기에 처한 것은 정한담과 최일귀 때문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어휘

- 분기충천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 격렬하게 복받쳐 오름.

최고운전

누가	천상에서 적강한 인물로 신이한 능력을 지닌 최치원
언제 어디서	• 신라 때 • 신라, 중국, 용궁
무엇을	• 승상 나업의 딸 운영과의 혼인을 둘러싼 최치원과 나업의 갈등, 학식의 우열을 가리는 최치원과 중국의 학사들의 갈등, 최치원과 여러 가지 간계로 최치원을 시험하는 중국 황제의 갈등, 최치원의 신이한 능력을 보여 주는 전기적 사건 • 최치원의 문재(글을 짓거나 글씨를 쓰는 재능)를 드러내고 갈등을 해결하는 기능을 하는 삽입 시, 적강 모티프
어떻게	전지적 작가 시점, 영웅의 일대기 구성
왜	최치원의 비범성과 가치를 서술함.

1 답 ②

이래서 정답

- ㉡ **무엇을** “제가 선생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으려고 ~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에서 이목은 천승이 나타나 자신을 벌하려고 하자 두려워하면서, 치원의 명령을 어기지 않기 위해 하늘의 명령을 어겨 벌을 받게 되었다고 치원에게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목은 하늘의 명령보다 치원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왜 오답

- ㉠ **무엇을** “내가 이 섬의 사람들을 위하여 이목에게 ~ 나를 죽이는 것이 옳겠소.”에서 치원은 천승에게 이목이 하늘의 명령을 어기고 비를 내린 것은 자신의 명령 때문임을 밝히며 자신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치원은 천제가 자신이 아니라 천명을 어긴 이목을 벌할 것이라고 예상해 자신을 대신 벌하라고 말했음을 알 수 있다.
- ㉢ **무엇을** “이목이 교룡으로 변하여 ~ 지금 죽하께서 숨기시고 내놓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니를 통해 천승은 교룡으로 변신하여 숨은 이목을 알아보고 치원에게 이목을 내놓기를 요구했음을 알 수 있다.
- ㉣ **무엇을** 천제는 치원이 아니라 이목을 벌하려고 하였으므로 천제가 이목보다 치원의 죄가 더 크다고 생각했다고 볼 수 없다.
- ㉤ **무엇을** “이 섬의 주민들은 가뭄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 이 섬은 거의 비게 되었습니다.”를 통해 위기도 주민들 대부분은 가뭄으로 죽거나 섬을 떠났음을 알 수 있다.

2 답 ④

보기 | 오래 보기

“최고운전”은 비범한 능력을 지닌 최치원이 곤경에 처한 나라와 백성을 구하여 영웅이 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최치원의 영웅적 면모는 ...

왜

㉠이래서 정답

- ④ ㉠에서 치원은 천승에게 이목 대신에 자신을 벌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명령으로 가뭄이 든 위이도에 비를 내려 하늘의 명령을 어긴 이목의 죄를 자신이 대신 받겠다고 한 것이다. 치원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목을 구하기 위함이지 천승의 임무 수행을 돕기 위함이 아니다.

㉡왜 오답

- ① ㉠에서 가뭄으로 죽을 지경에 이른 섬 주민들은 치원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나와 목숨을 구해 달라고 애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섬 주민들은 치원을 자신들을 구해 줄 영웅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에서 위이도 주민들은 치원에게 글로써 비를 내려 달라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치원의 비범한 능력이 학문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에서 치원은 위이도의 가뭄을 해결하고자 용왕의 아들인 이목에게 비를 내리게 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치원이 수궁계 인물인 이목에게 도움을 받아 섬 주민들을 구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 ⑤ ㉠에서 천승은 치원이 원래 인간 세상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 천제의 말을 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치원의 비범한 능력이 천상계의 인물이었기에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문제 공식 적용 영웅\_영웅인 최치원의 일대기

고귀한 혈통	최치원은 인간 세상으로 유배되어 온 적강 선인임.
비정상적 출생	금돼지에게 잡혀 갔던 최충의 아내가 금돼지를 죽이고 탈출한 후 치원을 낳음.
비범한 능력	학문과 문장, 지략이 뛰어남.
유년기의 위기	아버지 최충이 금돼지의 자식이라 의심하여 버림.
구출·양육	버려진 치원을 말과 소가 피해 가고 선녀가 감싸 주며, 연꽃이 받쳐 주고 백학이 날개로 덮어 줌.
성장 후 위기	중국의 황제가 여러 가지 간계로 최치원을 시험함.
위기 극복과 승리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중국 황제의 간계를 모두 물리치고, 황제에게 실력을 인정받은 후 중국에서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오름.

3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에서 이목은 자신이 치원을 기다린 이유는 치원에게 공자의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B]에서 천승은 자신이 이목을 벌하려는 이유는 이목이 하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비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왜 오답

- ② ㉠에서 [A]의 “제가 사는 땅은 어르신네께서 사시는 땅과는

아주 달라 공자의 학문이 없습니다. ~ ‘내가 무슨 죄를 지어 이 땅에 잘못 태어나 공자의 도를 들을 수 없는가.’ 하였는데”에서는 이목이 공자의 도를 배울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부각하여 치원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B]에서는 천승이 자신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지 않으며 치원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지 않다.

- ③ ㉠에서 [B]에서 천승은 치원에게 천제가 자신을 보내 이목을 죽이라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 치원을 위협하거나 회유하고 있지는 않다.
- ④ ㉠에서 [B]에서 천승은 치원에게 천제가 자신을 보내 이목을 죽이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천승이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는 않다.
- ⑤ ㉠에서 [A]에서 이목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치원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4 답 ⑤

㉠이래서 정답

- ⑤ ㉠에서 천승이 언급한 ‘최치원이 천상에 있을 때 마침 조그마한 죄를 얻어 ~ 인간 세상의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천제의 말을 통해 치원이 천상에 있을 때 죄를 얻어 인간 세계에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치원이 인간 세계에 떨어지게 된 원인이 ‘비’ 때문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왜 오답

- ① ㉠에서 위이도 주민들이 치원에게 “글로써 비를 기원하여 죽어 가는 수많은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③ ㉠에서 “천제께서 또한 나를 보낸 것은 이목을 죽여 그 죄를 응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와 “이목이 하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비를 내렸기 때문에 하늘이 이를 미워하여 나를 보내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라는 천승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②, ③).
- ④ ㉠에서 치원이 “자네의 재능이면 ~ 용기를 내 비를 뿌려 주어 이 섬의 말라 죽어 가는 백성들을 구해 주게.”라고 하자, 이목이 그 명령을 좇아 산간으로 들어간 뒤 비가 내렸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어휘

- 곤경: 어려운 형편이나 처지.
- 회유: 어른만지고 잘 달래어 시키는 말을 듣도록 함.



조웅전

누가	영웅이자 충신인 조웅, 간신인 이두병, 위국을 침략한 서번 왕
언제 어디서	• 송나라 때 • 송나라, 위국, 서번
무엇을	• 조웅과 이두병의 갈등, 조웅과 서번 왕의 갈등 • 초월적 세계의 뜻을 전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한 왕 부인(어머니)의 꿈과 조웅의 꿈
어떻게	서술자의 개입(편집자적 논평), 영웅의 일대기 구성, 비유적 표현
왜	진흥보국(충성을 다하여서 나라의 은혜를 갚음)을 위한 조웅의 활약상과 자유연애를 서술함.

1 답 ②

㉠이래서 정답

- ② **무엇을** 태자가 유배되었다는 말을 들은 왕 부인 모자가 “우리 도망하여 태자를 따라 사생을 한가지로 하고 싶으나 종적이 탄로 나면 이에 앞서 죽을 것이니 어찌하리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조웅 모자가 송 태자와 사생을 같이하겠다는 계획을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 오답

- ① **누가** 이두병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왕 부인이 하늘을 향해 “웅의 나이 팔 세에 불과하니 죄 없는 것을 살려 주소서.”라고 비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무엇을** ‘이두병이 큰아들 관으로 동궁을 봉하고 ~ 송 태자를 외객관에 두었더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무엇을** ‘송 태자를 외객관에 두었더니, 여러 신하들이 다시 간하여 태산 계량도에 유배하여 주거를 제한하고 소식을 끊게 하였다. 이날 왕 부인 모자가 태자께서 유배되었다는 말을 듣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무엇을** ‘황제와 여러 신하들이 보고 나서 놀라며 분기등등하여 ~ 조웅 모자를 결박하여 잡아들이라 하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답 ⑤

| 보기 | 오래 보기

... 이 작품의 주인공은 영웅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악을 물리치고 태평한 질서를 회복하려는 선의 욕망을 지닌 인물이다. 반면 반역을 꾀하는 인물들은 악의 욕망을 지녀 선의 욕망을 지닌 인물들과 대립하고 갈등한다.

㉢이래서 정답

- ⑤ **왜** 관원들은 이두병의 명에 따라 경화문에 이두병을 욕하는 글을 쓴 조웅을 잡으려 하지만 잡지 못하는데, 이는 악의 욕망을 지닌 이두병과 선의 욕망을 지닌 조웅의 갈등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선의 세력에 의해 악

이 축출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 오답

- ① **왜**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 동궁(송 태자)을 폐위시키는 이두병의 모습에서 악의 욕망이 드러나고 있다.
- ② **왜** 이두병에 의해 송 태자가 유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웅이 분기탱천하여 원수 갚을 모책을 생각하는 모습에서 악에 맞서려는 선의 욕망이 드러나고 있다.
- ③ **왜** ‘시절 노래’에서는 이두병이 태자를 폐위시키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현실을 난세라고 비판하면서 백성들에게 시절을 기다리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언젠가는 이두병이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절 노래’에는 선의 회복을 추구하는 작가와 독자층의 욕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왜** ‘동궁을 어찌하고 네가 옥새를 전수하느냐?’, ‘신명을 돌아보아 송업을 끊지 말라.’ 등을 통해 조웅이 악을 물리치고 태평한 질서를 회복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해 공식 적용 영웅·영웅인 조웅의 일대기

고귀한 혈통	송나라의 공신인 좌승상 조정인의 아들임.
비범한 능력	얼굴이 아름답고 충효를 갖추.
유년기의 위기	이두병의 참소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도망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빌어먹음.
구출·양육	월경 대사, 화산 도사, 철관 도사로부터 글과 무술, 도술 등을 배움.
성장 후 위기	• 위왕과 적대 관계에 있는 서번 왕과 대결함. • 이두병과 다시 대결함.
위기 극복과 승리	서번을 격파한 후 이두병을 물리치고 태자를 다시 황제로 모셔 왕실을 회복한 뒤 제후가 됨.

3 답 ①

㉤이래서 정답

- ① **어떻게** ㉠에서는 직유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황제의 등극과 동궁의 폐위로 슬퍼하고 있는 후궁, 벼슬아치들, 노비 등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왜 오답

- ② **누가** ㉡에서 조웅은 이두병에 대한 자신의 심리와 자신에 대한 이두병의 심리를 대조함으로써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있을 뿐, 이두병과의 싸움의 결과를 회의적으로 전망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어떻게** ㉢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이두병에 대한 조웅의 원망이 아니라 이두병에 의해 송 태자가 유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기탱천한 조웅의 심정을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고 있다.
- ④ **누가** ㉣에서는 고사를 인용하여 이두병이 황제가 된 것이

부당한 일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어떻게** ㉠에서는 이두병의 명을 어기게 될까 두려워하는 신하들의 모습과 조웅 모자가 이미 멀리 달아나 잡을 수 없게 된 상황을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4 답 ④

##### ㉠ 이래서 정답

- ④ **언제-어디서** 중략 부분 줄거리의 '조웅은 분을 참지 못하고 경화문에 이두병을 욕하는 글을 쓴 뒤 자취를 감춘다. 경화문을 지키던 관원은 글을 발견하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왜 오답

- ① **언제-어디서** 조웅 모자가 임시로 머무르고 있는 공간은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② **언제-어디서** '여러 신하들이 모여 동궁을 폐하여 외객관으로 내치니'와 '송 태자를 외객관에 두었더니, 여러 신하들이 다시 간하여 태산 계량도에 유배하여'를 통해 송 태자가 이두병에 의해 폐위되어 지내게 된 공간은 외객관과 계량도임을 알 수 있다.  
 ③ **언제-어디서** 이두병이 '경화문'에서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는 지는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⑤ **언제-어디서** '중문에 내달아 장안 큰길 위를 두루 걸어 한 곳에 다다르니 여러 사람들이 모두 모여 시절 노래를 부르거늘'을 통해 여러 백성들이 모여 현실을 한탄하는 시절 노래를 부르는 공간은 장안 큰길 위의 한 곳임을 알 수 있다.

##### + 어휘

- **축출**: 쫓아내거나 몰아냄.
- **폐위**: 왕이나 왕비 등의 자리를 폐함.
- **난세**: 전쟁이나 무질서한 정치 따위로 어지러워 살기 힘든 세상.
- **고사**: 지나간 과거의 일.

#### 옥주호연

누가	영웅적 인물인 유씨 세 자매(자주, 벽주, 명주)와 최씨 세 형제(완, 진, 경)
언제 어디서	• 오대 때 • 중국
무엇을	• 전통적 유교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유씨 자매가 거부하는 사건, 유씨 자매-최씨 형제와 변방을 침입한 북한의 갈등, 유씨 자매와 최씨 형제가 인연을 맺는 과정 • 남장 모티프
어떻게	영웅의 일대기 구성
왜	세 자매와 세 형제의 영웅적 삶을 서술함.

#### 1 답 ⑤

##### ㉠ 이래서 정답

- ⑤ **언제-어디서** [A]에서 최완은 '본진'으로 돌아가 거짓으로 항복한 일에 대해 말하고 다시 '원양성 북문 밖'으로 가서 때 북하였다가 한양을 속여 '북문 안'으로 들어가 싸우고 있다. 이를 통해 [A]에서는 '본진', '원양성 북문 밖', '북문 안' 등 공간의 이동에 따른 최완의 행위를 통해 전쟁 상황의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왜 오답

- ① **언제-어디서** 배경을 묘사하고 있지 않으며,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지 않다.  
 ② **어떻게** 과장된 상황 설정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최완이 적을 물리치는 장면에서 긴박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을 뿐 해학적 분위기는 형성되어 있지 않다.  
 ③ **어떻게** 편집자적 논평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인물의 부정적인 면모를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어떻게** 과거와 현재가 빈번하게 교체되고 있지 않으며, 인물의 내력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

#### 2 답 ①

##### ㉠ 이래서 정답

- ① **무엇을** 장임의 명으로 성을 지키던 한양은 최완이 "우리 북한 패군이니 빨리 문을 열라."라고 한 말에 속아 원양 북문을 열고, 최완은 군을 몰고 북문 안으로 들어가 북군을 물리치게 된다. 이를 통해 한양이 최완의 군을 북군으로 착각하여 북문을 개방함에 따라 결국 북군이 패배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 왜 오답

- ②, ③, ⑤ **누가, 무엇을** 왕 씨는 삼 소저에게 "여자의 도는 내행을 닦으며 방적을 힘써 규중 외 나지 아니함이 마땅하거늘 ~ 내 차라리 죽어 모르고자 하나니 너희 소견은 어떠하뇨?"라고 말하며 무예를 익히는 행동을 그만두라고



타이르며(⑤) 한탄하지만(②), 삼 소저는 “소녀 등이 어찌 부모의 은덕을 모르고 뜻을 거역하리오마는 ~ 소녀의 득 시지추이어늘 어찌 한갓 여도를 지키어 세월을 허비하리 이꼬.”라고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며(③) 공명을 세워 부모께 현양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⑤).

- ④ **무엇을** “원수의 말이 당연하거니와 그러나 그대 사정이 이 같은즉 어찌 다시 의심하리오.” / 하고 양인을 머물러 주옥으로 정성껏 대접하더니’를 통해 장임은 명주와 최완이 거짓으로 항복한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을 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답 ④

#### ㉠이래서 정답

- ④ **누가** ㉠은 명주와 최완이 장임을 속이기 위해 거짓으로 꾸며 낸 계책이다. 따라서 ㉠에는 상대방을 전략적으로 속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왜 오답

- ① **누가** ㉠에 장임을 기피하려는 의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누가** ㉠에 장임을 칭송하려는 의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누가** ㉠에 장임을 비판하려는 의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누가** ㉠에 장임의 동정심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 4 답 ②

| 보기 | 오래 보기

... 여성 주인공들은 남성 영웅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비범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영웅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왜**

#### ㉠이래서 정답

- ② **왜** 삼 소저는 자신들이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어머니 왕 씨에게 장원 공주가 평생 무예를 배워 천하를 횡행하여 이름을 빛냈다는 업적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여성도 공적 영역에 진출하여 입신양명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 한 말이므로 이를 통해 전통적 유교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된 효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왜 오답

- ① **왜** 삼 소저가 ‘매양 후원에서 조약돌로 진을 벌이며 칼쓰기와 말달리기를 익히’고, “공명을 세워 부모께 현양고자” 하는 것에서 무예를 연마하여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삼 소저의 욕망을 엿볼 수 있다.  
 ③ **왜** “여자의 도는 내행을 닦으며 방적을 힘써 규중 외 나지 아니함이 마땅하거늘”이라고 말하는 어머니 왕 씨에게 삼 소저가 “어찌 한갓 여도를 지키어 세월을 허비하리이

꼬.”라고 말하는 것에서 삼 소저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요구된 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왜** ‘활을 한 번 당기어 ~ 말에서 떨어지매’에서 여성 주인공인 벽주의 뛰어난 무예 실력이 드러난다.  
 ⑤ **왜** 명주가 최완과 함께 장임에게 거짓 항복함으로써 계략을 성공시키는 모습, 벽주가 활을 쏘 장임을 말에서 떨어뜨림으로써 최경이 생포하게 하는 모습, 자주가 칼을 휘둘러 원평을 거꾸러뜨리고 항복을 받는 모습 등을 통해 여성 영웅인 삼 소저가 남성 영웅인 최완, 최진, 최경과 동등한 위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 공식 적용** 영웅\_영웅인 유씨 세 자매의 일대기

비정상적 출생	유원경이 부처로부터 명주 세 개를 얻는 꿈을 꾸고서 세 자매가 태어남.
비범한 능력	세 자매가 뛰어난 외모, 품성, 능력을 지님.
유년기의 위기	규수로서의 삶을 강요받은 세 자매가 남장을 하고 가출을 함.
구출·양육	세 자매가 최씨 세 형제와 의형제를 맺고 광련산의 진원 도사에게 수학함.
성장 후 위기	북한과의 전쟁이 벌어짐.
위기 극복과 승리	전장에서 크게 승리한 유씨 세 자매와 최씨 세 형제는 황제의 주선으로 혼인을 하고 금의환향하여 살다가 한낱 시에 일생을 마침.

### 5 답 ③

#### ㉠이래서 정답

- ③ **누가** ㉠에서 장임은 군사들이 땅굴에 빠지고 **복병**을 만나 사망으로 흩어져 죽는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거의 죽게 되어 곧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름.’을 뜻하는 ‘명재경각’이다.

#### ㉡왜 오답

- ① **누가** ‘간담상조’는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하게 사귀.’을 뜻하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누가** ‘마부위침’은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누가** ‘살신성인’은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인(仁)을 이룸.’을 뜻하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누가** ‘주마가편’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뜻으로, 잘하는 사람을 더욱 장려함을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 어휘

- **매복** 상대편의 동태를 살피거나 불시에 공격하려고 일정한 곳에 몰래 숨어 있음.
- **횡행** 아무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함.
- **복병** 적을 기습하기 위하여 적이 지날 만한 길목에 군사를 숨김. 또는 그 군사.

**Memo**